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7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6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7호 (128)

1956년 7월 25일

내용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 문헌의 심오한 연구와 실천을 위하여

지난 四월에 진행된 우리 당 제三차 대회는 당 창건후 가장 중요한 당 대회이며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대회는 우리 당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 인민의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도로 앙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 속에서, 그리고 쏘련 공산당 및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형제 당들로부터의 열렬한 축하와 커다란 관심과 주시 속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자기의 기본적 주의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의 촉진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수행에 집중하였다。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는 당이 제二차 대회 이후 八년간에 전취한 빛나는 승리적 성과들을 과학 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앞으로의 혁명 과업을 명백히 제시하였으며 우리 나라 혁명 정세에 적응한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인 조국 통일의 위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력사적인 선언을 채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회의 총결 보고에서는 지난 총결 기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한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진영의 일환으로서 극동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적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힘 있게 인도한 당의 정책과 그에서 달성한 력사적 성과들이 총화 분석되였으며 따라서 이를 보장한 당의 실제적 활동과 당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이 총화되였다。

대회는 자기의 결정에서 지난 총결 기간에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정치 로선과 그의 실제적 활동이 완전히 정

당하였다고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회는 우리 당이 쟁취한 모든 성과는 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이 정확하였으며 그가 항상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형제적 당들의 투쟁 경험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내외의 적들과의 투쟁에서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였으며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긴밀히 견지한 데 기인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회의 총결 보고와 결정에서는 현 시기의 중요한 국제적 사변들을 분석하면서 쏘련 공산당 제二○차 대회에서 제시한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각이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문제, 각이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형태에 대한 문제, 로동 계급의 국제적 련대성과 통일의 강화에 대한 문제들은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에는 우리 당은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견지하며 전쟁 세력을 반대하는 제 인민들과의 공동 전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대외 정책 분야에서의 당의 금후 과업이 제시되였다.

또한 대회의 총결 보고와 결정에는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를 조국 통일 독립을 위한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과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인민 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할 데 대한 방책들이 명시되였다. 또한 그에는 이와 함께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며 당의 조직 지도 수준을 제기된 새로운 과업의 수준에까지 향상시키며 사상 사업의 질을 가일층 개선할 데 대한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새 규약은 우리 당의 금후 가일층의 공고 발전과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의 제고와 또한 당 앞에 제기된 혁명 임무 수행에 있어서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진 력사적 문건으로 된다.

또한 대회에서 채택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언서에는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최대의 민족적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책이 다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이와 같이 제三차 대회는 지난 총결 기간에 있어서 우리 당과 우리 당의 지도하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과 당의 투쟁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한 토대 우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횃불로써 우리 혁명 승리의 전망을——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달성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의 전망을 휘황히 밝혀 주었다.

전체 인민 대중을 새로운 투쟁과 승리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제三차 대회의 기본 사상과 그가 제시한 앞으로의 투쟁 과업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들을 반영한 대회 문헌들은 우리 당 및 국가 건설과 그의 모든 사업의 중요한 투쟁 강령으로 되며 일체 활동과 생활의 지침으로 된다. 따라서 제三차 대회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이것은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대중의 고상한 임무로 된다.

오늘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과 그리고 전체 인민 대중의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 제三차 대회의 기본 정신과 그의 결정을 실제 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회의 기본 정신, 대회가 제시한 제 과업, 그의 실현 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대회 문헌을 연구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며, 일시적 깜빠니야가 아니라 꾸준하고 세심한 노력과 창의 창발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회의 문헌을 심오히 연구하며 실천하는 이것은 곧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의 물질 문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의 국가, 경제 및 문화 건설 사업에 대한 지도 수준을 더욱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당원 대중의 사회주의적 사상 의식을 제고하며 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는 우리 국가 및 사회 생활의 각 분야와 당 단체들의 당적 지도의 각 분야와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사상 생활의 각 분야에 걸쳐 그에 깊이 침투되여 착실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여야 할 투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회 문헌의 연구와 실천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일체 교조주의적 독경식 학습 방법과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의 연구와 실천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일부 당 단체들과 당원들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문헌의 개별적 문장과 문구의 개념만 따지고 이러저러한 명제들만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면서 자기의 사상 리론 수준 제고와 당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의 정확한 인식과 자기 임무의 충실한 수행에 대하여는 등한시하며 또 일부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사상과 자기 단체의 구체적 사업에 침투함이 없이 몇번의 회의나 강연으로써 그 실천을 대치한 것이 바로 그러한 례의 일부이다.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대회 문헌의 연구와 실천을 반드시 자기 사업을 개선 발전시키는 거기로부터 출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 사업 부문에서 공작하는 당원들은 산업、농업、철도、운수 등 자기 맡은 령역의 경제 사업을 개선 발전시키도록、당 및 국가 기관의 지도적 부문에서 공작하는 당원들은 모든 부문에 대한 당적 및 국가적 지도 수준을 개선 향상시키도록、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공작하는 당원들은 우리의 과학 문화 예술을 더욱 발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선 대회 문헌의 학습에서 대회의 기본 정신과 대회가 제시한 제 과업들과 그의 리론적 정당성을 깊이 연구하며 그와 함께 자기 맡은 부문의 사업 정형과 대회가 제시한 그 부문의 과업과 그의 전망을 명확히 파악하며 그의 성과적 완수를 위한 창발적 방법들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현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조국 통일 실현의 전망과 방도를 깊이 인식하며 우리 승리에 대한 확신、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리론 및 기술적 수준과 실무적 능숙성을 부단히 배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 당 위원회들과 그 지도 일군들은 대회 문헌 연구 지도에 있어서 당원 대중의 각이한 사상 및 리론 수준과 그들의 사업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백방으로 제고시키면서 그들의 력량을 우선 당이 제시한 가장 중심적 과업들의 수행에 집중시키며 그 과업들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회는 자기의 결정에서 「…일체 력량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작성 실행함으로써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민주 기지를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시키는 투쟁을 견결히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회가 제시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는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확고히 축성하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완성함으로써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 과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방대하고 영예로운 과업이다。 이를 완수하려면 여기에는 수백만 로력 대중의 고상한 자각성과 무궁 무진한 창의 창발성、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 잠재하는 온갖 경제적 및 정신적 예비의 집중적 동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당 단체들과 당 일군들과 매개 당원들의 일상 사고와 일체 활동과 모든 정력은 이 과업 수행에로 돌려져야 하며 전체 당 단체와 당원들의 모든 관심은 이 과업 수행에로 대중을 동원하는 데 집중되여야 한다。

대중을 목적 달성에로 조직 동원하려면 우선 지도 일군들 자신의 사상 리론 수준과 군중 령도의 예술을 더욱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매개 당원들에게 특히 당 및 국가 기관 간부들에게 대중 생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군중을 제기된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능숙한 수완과 재능을 소유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매개 일군들이 무엇보다도 당의 군중 로선에 더욱 확고히 립각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의 군중 로선의 기본 원칙은 어디까지나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당의 일체 활동을 이에 복종시키는 것인 바 매개 당 일군들과 전체 당원들은 매사에서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는 관점、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인민 대중 앞에서 책임지는 관점、군중 자신이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관점、인민 대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관점에 튼튼히 립각하여야 한다。 대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함이 없이는 관료주의、명령주의、독선주의가 지정될 수 없으며 또 이것이 시정됨이 없이는 대중을 옳게 령도할 수 없다。

령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적 지도를 계속 강화하는 문제이다。 집체적 지도의 의의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 처리의 편면성과 어떤 개인의 그릇된 주관적 의도의 지배를 방지하고 집체적 협의제를 통하여 그의 원만한 해결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집체적 지도는 정확한 당 정책의 수립과 그의 성공적인 집행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창조적 력량을 당적 지도에 최대한으로 동원 인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준다。

제三차 대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을 위하여 거대한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였는 바 이것은 당이 자기의 일체 활동에서 레닌적 당의 조직 원칙을 튼튼히 옹호하고 지도에서 집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 데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전쟁과 같은 곤난한 환경이 조성된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도 집체적 지도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자기의 전원 회의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당 사업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해결하였으며 집체적 지도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는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성을 발양하면서 사업에서 집단의 힘을 믿지 않고 개인의 역할을 우상화하는 개인 숭배를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개인 숭배 사상은 력사 발전에서 인민 대중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반맑스주의적 견해의 구체적 표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미제의 고용 간첩이며 종파주의자였던 박 헌영 도당의 실례에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들은 대중을 기만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하여 대중 속에 개인 숭배 사상을 주입시키기에 갖은 졸렬한

술책을 다 하였다。 당시 개인 숭배 사상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은 무원칙하게 그에 추종하였는 바 이러한 사상 여습이 오늘에 와서 완전히 청산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 숭배의 잔재는 각종 형태에 의하여 발로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항상 경각성을 제고하면서 이러한 사상 경향에 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적 지도 원칙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당 사업을 경제 사업과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은 혁명 사업에서 두 개의 측면인 동시에 불가분리의 통일체이며 령도 방법의 특성이며 우리 당 사업의 기본 방법이다。 이에 있어서 당은 지난 기간에 당 중앙 위원회 三월、一一월、一二월 전원 회의 이후 산업과 농촌 경리에 대한 당 기관들의 지도에서 일련의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을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 일꾼들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기술 지식을 소유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당이 요구하는 가장 긴절한 문제의 하나이다。 더우기 제三차 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매개 일꾼들이 경제 지식을 소유함이 없이는 경제 사업을 도저히 지도할 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매개 간부들은 그가 어떤 부면에서 사업하든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경제 지식의 습득을 위한 투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三차 대회는 우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은 총결 기간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침략 정책과 그들의 온갖 모략과 책동을 폭로 분쇄하며 당내에 숨어 든 미제의 고용 간첩인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의 파괴 활동을 적발 제거하며 온갖 종파 분자、좌우경적 기회주의자들의 행동들과 반당적 사상 경향들과의 무자비한 투쟁 속에서 단련 강화되였으며 영광에 찬 거대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의 당성을 가일층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매개 당원들의 당성 단련은 당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과 경제、문화 건설에 대한 성과적 실천과 결부시켜야 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규약상 원칙에 립각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발전시키며 당 규률에 대한 자각적 태도로 당원들을 교양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전체 당원들과 매개 간부들은 당의 공고화와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을 와해시키려는 원쑤들의 온

갖 기도를 여지 없이 분쇄하며 당내에 조성될 수 있는 온갖 불순한 암류들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며 그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매개 당원들은 당 대렬내에서 종파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그를 무자비하게 근절함이 없이는、개인 숭배·사상을 청산함이 없이는 당 대렬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당 앞에 제기된 혁명적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당의 교시를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때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과 그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제三차 대회는 당 사상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학습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적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진실한 힘은 그의 창조적 적용에 있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을 학습하며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 경험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 리론의 일반적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 혁명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고 우리 앞에 제기된 실천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기간에 우리의 사상 사업은 많은 경우에 주체가 없이 우리 나라 혁명 문제와 그의 실행을 위한 실천적 활동과 유리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과 대중의 각오 정도와는 관계 없이 진행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건 않맞건 덮어놓고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따다가 통채로 삼키는 교조적 방법으로 진행된 실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상실한 실례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회는 금후 우리의 사상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 나라 혁명의 실제적 문제들의 연구를 강화하며 이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을 그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은 우선 현 시기에 있어서 조선 혁명의 성격과 그의 구체적 임무를 심오하게 연구하며 우리 혁명의 장래 전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 나라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해방후 우리 당의 투쟁 력사、당이 매 시기에 실시하는 정책과 생활의 실제 정형을 진지하고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잠시도 안일함이 없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면서 대회가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

화합과 동시에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 통일 독립을 달성하려고 지향하는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단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三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상술한 문제들 외에도 우리의 실지 사업과 생활에서 개선 강화를 요구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문제는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대회의 문헌을 독경식으로 학습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 정신과 원칙적 문제들을 심오하게 연구 파악한 기초 우에서 그를 자기의 실제 사업과 생활에 결부시켜 제기된 혁명 과업들을 능숙하게 해결함에 있다。 이러함으로써 대회의 결정은 모든 분야에 걸쳐 관철될 것이며 따라서 조국 통일이 촉진될 것이며 우리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층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간부 사업의 개선은 당 조직 사업 강화의 기본

리 효 순

오늘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로선과 결정들을 환영 지지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정책과 당이 제시하는 과업들을 실행하는 것을 항상 자기의 제一차적 임무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당의 정책이 항상 인민의 근본적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정책이 언제나 정당하기 때문이다。

조선 로동당은 객관적 사회 발전 법칙과 인민 대중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면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 혁명·발전의 매 계단과 시기에 있어서 정확한 정치 로선을 수립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여 위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여 왔다。

이에 있어서 정확한 정치 로선을 수립하는 것은 지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승리의 중요 조건이다。 그러나 승리는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고 전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치 로선이 수립되고 옳은 결정이 채택된 다음에는 그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사업이 제一차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조직 사업은 당 로선을 실현하고 당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사업인 바 그의 성과 여하는 인재의 옳은 선발 배치와 집행에 대한 검열에 달려 있다。 실제에 있어서 옳은 정치 로선이 수립된 다음에는 준비된 유능한 일꾼들이 모든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바 결국 간부들은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력량으로 된다。 따라서 간부들과의 사업은 당 활동에 있어서 항상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당 조직 사업의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지나 온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여 능숙하게 간부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의.결과로 조성된 민족 간부의 전반적 결핍을 느끼는 곤난한 조건하에서 조국 창건의 길에 들어 섰다。 해방 후 미제와 모든 인민의 원쑤들은 조선 인민은 무능하여 정치를 할 수 없으며 자기의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허위적으로 비방하였다。

그러나 당은 원쑤들의 악의에 찬 허위적 비방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우리 인민을 자기의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길로 단호히 인도하여 나아갔다。 당은 해방 후 간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대한 레닌의 교시에 확고히 의거하였다。 일찌기 레닌은 력사의 창조자들인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에게는 무진장한 재능、 창발성、 조직력이 있는 바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조건하에서는 극도로 억압 유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새 사회 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임무는 근로 대중의 힘을 믿으며 그들의 무진장한 재능과 창발성과 조직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에 있다고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레닌의 교시에 립각하여 인민 대중 속에서 당 및 국가를 관리 운영하며 새 조국 건설에 필요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유능한 간부들을 선발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있어서 당은 간부 정책의 기본 출발점을 지배 계급에서 나와 지배 계급에게 복무하던 낡은 간부들을 개조하며 인민층에서 나와 인민에게 복무하는 새 간부를 선발하여 그를 교양 훈련함에 두었다。 그리하여 당은 우선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단련된 혁명 투사들을 핵심으로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하에서 오래 고착된 생산 로동자들 속에서 우수한 분자들을 당 및 국가 기관의 지도적 직위에 대담하게 등용하고 실지 사업을 통하여 이들을 교양 훈련하였으며 일제하에서 교양 훈련받은 낡은 간부들을 우리 사업에 인입하여 그들을 재 교양하고 개조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새로 민족 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 각종 정치 학교를 설치하였고 인민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을 신설 확장하였으며 쏘련을 비롯한 형제 국가들에 류학생을 파견하였다。

당이 실시한 정확한 간부 정책의 결과에 오늘 당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되였으며 실지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간부들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 간부의 결핍을 기본적으로 퇴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간부들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하여 놓았다。

오늘 우리 당 앞에는 거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력사적인 제三차 대회는 당 앞

에 제기된 새로운 정치、경제、 문화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당 조직 지도 사업 수준을 더욱 제고시킬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집체적 지도 원칙을 강화하고 당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적 작풍을 퇴치하고 행정 기관 사업들을 대행하거나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을 시정하는 것이 긴급한 과업인 바 이를 위하여 간부들과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간부 사업을 제기된 정치적 과업의 수준에까지 개선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三차 대회는、 간부 선발 배치와 그를 육성하는 사업은 당 사업에서 제一차적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정치적 표징을 과소 평가하고 실무적 표징에만 치중하는 현상을 퇴치하고 엄밀한 정치적 및 실무적 표징에 의하여 간부들을 정확히 선발 배치하며 그들과의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재능과 열성을 남김 없이 혁명 사업에 바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간부 선발 배치에 있어서 정치적 표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직위에 당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하고 당성이 강한 일꾼들을 등용함으로써 당 조직 지도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수준에까지 제고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로선과 과업들은 이 원칙에 복종되여 있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을 실현하는 인재들은 우선 당과 인민에 무한히 충실하며 인민의 리익을 제일 생명으로 알며 사상적으로 확고한 일꾼이라야 한다。 오직 이러한 일꾼들만이 당의 로선을 자기 로선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곤난한 환경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당이 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간부의 선발과 배치에서 정치적 표징을 위반하고 친척、 친우、 동향 관계에 의거하거나 사무 기능과 말 재간등 실무적 능력에만 의거한다면 당 사업의 정치적 수준을 저하시키며 간부 대렬의 질적 제고와 순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곳에서는 당과 국가의 위임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 경우에 친근한 사람끼리 가족주의를 형성하고 결함들을 호상 음폐 비호하여 주면서 안일과 탐오、 랑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대렬내에 아첨과 맹동의 불건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어는 계급적 적대 분자들의 잠입까지 허용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은 증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 정치 정세와 사회적 환경은 간부 선발 배치에서 정치적 표징의 원칙에 더욱 철저히 립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계속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파송하여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흉악한 기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상적으로 견실치 못한 자들을 리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간부들의 정치적 표징을 무시하고 응당한 경각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며 놈들의 침해로부터 당과 국가 기관을 수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간부 사업에서 정치적 표징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일상 강조하고 있으며 그로부터의 온갖 리탈과 외곡을 반대하여 꾸준히 투쟁해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제의 고용 간첩이며 종파 분자들인 박 헌영, 리 승엽 악당들은 남반부에서 당을 四분五렬로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들어 와서까지 당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간부 사업의 당적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자기의 심복들을 규합하는 데 광분하여 정치적으로 불순한 자, 혁명의 변절자, 간첩 분자, 종파 분자들을 당과 국가의 중요 직위에 등용하려 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당과 인민에 충실한 간부들을 백방으로 박해하며 그들을 미제의 학살에 제공하거나 직접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반당적 행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고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는 개인 영웅주의자 허 가이에 의하여 외곡된 당 간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허 가이는 자기의 추종 분자, 아첨 분자, 실무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무원칙하게 등용함으로써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외곡하였으며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고 한 때 당 사업에 관료주의 사업 작풍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의 집체적 현명성은 허 가이의 반당적 행동도 폭로 분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사상적 여독을 숙청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였다.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과 허 가이, 주 녕하, 박 일우 등 종파 분자들의 폭로 분쇄는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였는 바 이는 간부 사업에서 경각성을 높이며 정치적 자질을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간부의 선발 배치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표정에 대한 고려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당의 정책은 사람들——우선 간부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만큼 일군들을 정치적 표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실무적 표징에 의하여, 즉 사업에서 숙련되고 경험이 있으며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 수준이 높으며 정치, 실

무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능력 있는 간부들이 당 및 국가 기관들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선발 배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더우기 방대하고 복잡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 조건하에서 간부들의 실무적 자질에 대한 문제는 지도 수준의 제고와 구체적 지도를 위하여 긴박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선진적 기술로써 장비되고 부단히 개선 향상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지도 일군들의 실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졌다. 사업에 무식하고는 결코 지도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군들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적 지도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노력을 적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일군들이 영예스러운 자기 위치를 조금이라도 오래 동안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없다.

정치적 지도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되여 있으며 그 사업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만큼 전문적 지식과 실무적 능력이 없이는 어떤 정치적 지도도 불가능하다. 일부 일군들은 간부 선발 배치에서 정치적 면에만 치중하고 그들의 실무적 능력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는 결과 실무적으로 일정한 준비도 갖추지 못한 무능력한 자들이 간부 대렬에 동용되여 사업을 그릇되게 처리하는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업은 간부 사업에서 두 개의 방면 즉 정치적 및 실무적 표징을 옳게 결합하는 당적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체 경향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의 조직 사업은 당의 정치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사업이다. 당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을 능숙하게 창조적으로 조직하고 신속하고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 사업에 생기발발한 혁명적 사업 기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로간부와 젊은 간부들을 옳게 배합하고 간부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로간부들과 새로운 간부들과의 배합 문제는 당 간부 대렬을 빈틈 없이 구성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로간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핵심으로 우수한 민족 간부 육성에 크게 주의를 돌려 왔다.

혁명 투쟁에서 세련된 로간부들은 풍부한 투쟁 경험이 있고 원칙성이 강하며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혁명성과 인민 대중에 대하여 겸손하고 성실한 옳은 군중 관점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간부들을 새 것에 민감하고 대담하며 사업 의욕에 충만된 젊은 간부들과 배합하는 것은 우리 당

사업에 혁명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는 기본적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당 단체들은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로혁명 간부들을 『무능』하느니 『무식』하느니 하면서 배척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 중앙위원회는 제때에 이 결함을 시정하고 혁명 간부들을 대담하게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직위에 등용하여 그들을 실지 사업과 각종 정치 학교를 통하여 교양하고 그들을 젊은 간부들과 옳게 배합함으로써 간부 진영을 강화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전체 당 단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로간부들과의 사업에서 존재하는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로간부와 새로운 젊은 간부들을 옳게 배합하여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서로 배우고 호상 방조하게 함으로써 우리 당 조직 지도 사업을 부단히 완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우리의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제기된 과업을 원만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을 그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에 의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재능과 력량을 충분히 발휘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능숙한 조직 사업이란 제기된 과업에 따라 인재들을 옳게 선발 배치하고 그들과의 일상적인 면밀한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부를 옳게 배치한다는 것은 매개 일꾼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책임적 자리에 나섰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그가 자기 능력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시키고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닌은 간부 선발 배치 사업을 대 음악회 조직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음악회에서 배역을 옳게 하여 한 사람에게는 바이올린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웅장한 콘트라바스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휘봉을 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사업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합리적이며 조화된 『음악회의 배역』 배치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간부들이 능력에 넘치거나 혹은 소질에 맞지 않는 자리에 배치되여 사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적극성과 창발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이와 같은 결함을 시정하고 간부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이 자기 사업에 흥미와 책임성을 느끼고 자기 재능과 열성을 남김 없이 혁명 사업에 바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간부들을 옳게 연구 료해하여 그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과업을 위임하고 실지 사업을 통하여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사람들과 사업하기 위하

여서는 우선 그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일꾼들은 일상적인 실지 사업을 통하여 간부들을 연구하고 옳게 지도 방조할 대신에 책상 머리에 앉아서 리력 문건에만 의거하여 경솔하게 간부를 평가하는 사무실적 작풍과 또는 어떠한 선입견과 부정확한 재료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버리는 그릇된 경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산 사람과의 사업은 산 방법을 요구한다。 일꾼들을 옳게 연구 료해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실지 사업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방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결정 집행에 대한 검열 사업이 간부들을 료해하고 지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된다。

채택된 결정의 실행을 보장하며 결정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시정하고 우리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 결정 집행에 대한 검열은 퍽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집행에 대한 검열은 채택된 결정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하여 결정과 집행의 일치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그런데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검열 사업은 곧 사람들과의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집행에 대한 검열의 중요 내용은 간부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옳게 연구하며 결함을 비판 시정해주고 구체적인 지도 방조를 주어 그들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자립적으로 해결할 줄 알도록 하며 락후한 고리를 제때에 유능한 간부로써 강화하는 데 있다。 동시에 지도 검열 사업을 옳게 진행함으로써 당 및 국가 일꾼들을 일상적으로 하부에 접근시켜 자체가 처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특히 하부 실정을 체계적으로 료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초 우에서 당 사업을 부단히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행에 대한 검열은 간부들과의 사업을 개선하며 당 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기본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이에 있어서 직접 사업을 조직 집행하고 그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간부들과 접촉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들이다。 해당 부서들은 실지 사업을 통하여 간부들을 정확히 연구 료해하고 그들의 결함을 제때에 시정해 주며 옳은 교양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당 및 국가 기관 책임 일꾼들은 아직도 간부 사업은 다만 간부부나 간부 일꾼들만의 일인듯이 생각하고 자기 산하 간부들을 연구하고 지도할 대신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간부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간부 일꾼들의 과업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해당 부서들의 선차적인 과업이며 전 당적인 과업이다。

오늘 우리 당의 조직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령도 방법을 수립하는 것、특히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결합은 당 사업에서 불가분리의 통일체이며 우리 당의 기본 사업 방법이다。 정치 사업의 성과는 경제 과업의 실현에서 표현되여야 하며 경제 사업의 성과는 정치 사업에 의하여 보장되여야 한다。

경제적 지도 사업을 정치적 수준에까지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급속히 발전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들을 우수한 기술 간부로써 보장 강화하며 그들과의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 당은 특히 기술 간부들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에 들어선 우리에게 있어서 간부에 관한 문제는 경제 건설에서의 결정적 문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三차 당 대회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과학 기술 간부들의 역할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그들과의 사업을 개선하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각급 당 단체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에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직 과학 기술 간부들과의 사업은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우선 지적할 것은 낡은 기술 일군들과의 사업에서 존재하는 결함이다。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 교육 받은 인테리들과 기술자들의 절대 다수는 오늘날 경제、 문화、 교육 기관들과 또는 직접 생산에서 자기 재능과 지혜를 다하여 당과 정부의 과업을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국가 건설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 경력과 주위 환경만 따지면서 「성분이 나쁘다」느니 「환경 불순」이니 하면서 불신임의 태도를 취하며 랭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간부의 성분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일제하에서 교육 받은 인테리、 기술자들의 과거 성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해방 후 오늘까지 당과 정부의 시책을 지지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우리 당의 꾸준한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의식으로 개조된 이상 또 무엇을 그들에게서 요구하겠는가?

그러므로 일제하에서 교육 받은 인테리들과 기술자들을 평가할 때에는 과거 경력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상적으로 준비되여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 료해하며 준비 정도에 따라 대담하게 등용하며 해방 후 민주 교육을 받은 새로운 간부들과 옳게 배합함으로써 그들의 발전과 장성을 꾸준히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지도 일군들은 과학 기술 간부들의 기능과 능력을 충분히 생산의 발전과 기술의 개선에 활용하며 그들의 과학 기술 활동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방조해 주는 사업에 등한하고 있다。

일부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많지 못한 귀중한 기술 간부들에게 본신 사업과는 거리가 먼 행정 관리 사업의 번잡한 사무 처리를 맡기거나 잡다한 회의와 각종 「검열」「지도」 사업에 번번히 동원시킴으로써 二중 三중의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산 기술적 지도 사업과 연구로부터 리탈케 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지어 일부 책임 일군들은 기술 간부들에게 생산의 발전과 기술의 개선을 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보장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공에 맞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조차 옳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떤 기업소에서는 전기 기술자를 기계 기술자의 위치에 배치하며 건축 설계 일군을 지어 항내 지주공으로까지 배치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도 일군들은 젊은 기술 일군들과의 사업을 옳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일상적으로 지도 방조하며 실지 사업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자라도록 배려할 대신 「현장 실정을 잘 모른」느니 「경험이 없고 어리다」느니 하면서 되는대로 배치하고 방임함으로써 젊은 일군들의 열성과 의욕을 저하시키고 새 간부들의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기술 간부들과의 사업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며 나아가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 과업 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으로 될 것이다。

전체 당、 국가 기관 지도 일군들은 우선 자체의 경제적 지도 수준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함과 함께 이상과 같은 과학 기술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책임적으로 신속히 시정 개선하고 그들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역군으로、 창조적 로력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이며 그들의 육성과 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간부 사업을 개선하고 간부들의 질적 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실지 사업을 통하여 인내성 있게 육성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간부를 일단 배치한 다음에는 그 간부에게 인내성 있게 교육을 실시하며 그가 매개 문제를 독자적으로 옳게 해결할 수 있게끔 지도하며 그의 사업을 검열하여 결함을 제때에 시정하여 주며 그들의 곤난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는 상급 지도 기관의 습성을 양성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은 아직도 간부들을 사업 과정에서 옳게 육성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

으로 그를 대치하고 있다。례하면 간부를 임명할 때나 교체할 때에만 관심을 돌리고 그 다음 날에는 벌써 잊어버리고 응당한 지도와 방조를 줄 대신에 방임하고 무관심했다가 일단 과오나 범한다면 그의 준비 정도와 객관적 사업 조건도 고려함이 없이 덮어놓고 책벌과 철직을 주는 사업 방법들이 그것이다。이러한 결과에 적지 않은 간부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오를 범하여 간부 대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

작년 一년 동안만 하여도 一、五〇〇 여 명의 당 및 국가 각급 기관 일꾼들이 책벌 받고 철직되였다。

만약에 일꾼들에게 제때에 되는 관심과 배려를 돌렸다면 그들의 과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옳은 간부로 육성함으로써 당과 국가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당 및 국가 기관의 책임 일꾼들은 간부들의 육성과 교양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업 작풍을 시급히 퇴치하고 그들을 인내성 있게 육성함으로써 우수한 지도 일꾼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책벌 받고 철직되여 간부 대렬에서 떨어져 나간 일꾼들과의 사업을 개선함에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 책벌은 간부들을 교양하기 위한 수단이며 결코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과오를 범하고 간부 대렬에서 떨어져 나간 일꾼들에 대하여 아주 못쓸 사람으로 인정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돌려 그들이 자기 과오를 시급히 시정하도록 계통적인 지도와 방조를 줌으로써 항상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느끼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그들이 과오를 시정하고 열성적으로 사업한다면 다시금 적당한 위치에 등용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제고시켜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간부들의 육성과 발전에서 지장으로 되는 것은 간부들의 빈번한 이동이다。간부를 일정한 위치에 고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깊이 연구하며 능수가 되도록 참을성 있게 육성할 대신에 일부 당 및 국가 기관들에서는 간부를 부단히 옮겨 놓는 것으로써 사업을 대치하고 있다。

지난해 一년 동안만 하여도 중앙 성급 기관에서 五一·七%、지방 정권 기관은 四六·六%、특히 황북도 산하 시、군 정권 기관들의 지도원은 그의 七九·二%가 교체 되였다。

이것은 간부들의 이동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바 이러한 정형하에서 일꾼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연구나 당 기관들이 사업 과정을 통한 그들의 체계적 육성을 기대할 수 없다。이와 같은 현상은 간부들의 발전에 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도 큰 지

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간부들의 고착에 무관심한 현상을 근절하고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에 당적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간부를 실지 사업을 통하여 옳게 지도하며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혁명의 리익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혁명 투사로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로 하여금 옳은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진실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간부들의 군중 관점이란 인민 대중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말하는 바 옳은 혁명적 군중 관점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력사에 있어서 인민 대중의 역할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인민 대중은 모든 물질적 부의 생산자이며 문화의 창조자로서 사회 발전의 결정적 력량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인민 대중의 강력한 력량에 튼튼히 립각하여 그들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을 자기의 제일 과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당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는 우리 당 위력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조건인 것이다。그러나 일부 일꾼들은 자기가 인민의 충복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인민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력량을 믿지 않으며 혁명은 개인의 총명이나 재능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자기 행동에 자고 자대하며 교만하게 된다。그들은 대중을 향하여 명령하며 겸손치 못하게 우쭐대며 벼슬냄새를 피우고 례절과 사회 도덕상 규범을 잘 지키지 않으며 민족적 풍습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함으로써 당과 인민 대중을 리탈시키고 있다。우리 일꾼들은 이와 같은 혁명 사업과 상용될 수 없는 관료주의 작풍들을 근절하고 인민의 충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중의 리해로부터 출발하며 당적 지도의 기본 원칙인 해설과 설복의 방법에 의거하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라는 당의 지시에 충실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여야 한다。당 일꾼들이 옳은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는 것은 당과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며 간부들에게 정확한 령도 방법을 체득케 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동시에 간부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과 당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경험은 간부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등한히 하며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와 지도를 약하게 진행한다면 그들에게서 필연코 사상적으로 해이되고 당의 조직 규률을 문란시키며 마치 자기에게는 당적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듯이 특세를 부리는 등의 그릇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당적 통제에서 리탈된 일부 간부들은 점차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며 개인을 당 조직 우에 올려 세우려고까지 시도하게 된다。그러므로 우리의

파업은 간부들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여 당 생활에 충실하게 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실지 사업을 통하여 옳게 육성 훈련함으로써 당파 혁명의 리익에 헌신적이며 어떤 곤난한 환경에서도 능히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당성이 강한 혁명 투사로 단련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의 모든 승리는 정확한 정치 로선을 수립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 대중을 조직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오늘 우리 당 앞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거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언제나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당은 새로운 과업이 제기될 때에는 우선 간부들과의 사업에 큰 주의를 돌린다。

제三차 대회는 간부들과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 과업을 전체 당 단체들에게 지시하였다。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당 단체들은 간부 사업에 존재하고 있는 결함을 시급히 퇴치하고 간부 사업을 높은 수준에 제고함으로써 당 조직 지도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

하 앙 천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의 결정들은 거대한 정치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결정들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 발전된 과정과 조선 인민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와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총화 분석하고 새로운 정세에 적응한 앞으로의 혁명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당면한 최대의 임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 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시킨 강령적인 문헌으로서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당원들과 전 조선 인민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 주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당 대회의 결정들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 그를 깊이 침투시키며 그의 실천을 위한 리론적 전개와 구체적 대책의 수립은 목전 우리 사업의 중심 방향으로 되고 있다。사상 전선에서 주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 문화 일꾼들에게 있어서도 이 방면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당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과학 문화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을 천명하였다。당 대회 결정에 명시된 과학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문제는 사상 사업의 중심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당 대회의 총결 보고에는 『과학 일꾼、특히 사회 과학 부문 일꾼들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의 하나는 선진 과학의 연구 사업과 아울러 과거의 우리 나라 과학、문화의 우수한 유산을 계승하며 일체 과학 연구 자료들을 수집 정리함으로써 장래의 찬란하고 건전한

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과학 문화 일꾼들의 사업 방향을 명시하였으며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우수한 작품들에 대한 연구 분야가 아직도 거의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학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문제는 오늘에 와서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과학 문화 일꾼들의 창조적 연구 사업을 강조하였다。 과거의 선진적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과학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의 과학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레닌은 일찌기 그의 저작 『청년 동맹의 임무』에서 『인류의 전 발전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만、그 문화의 개조에 의해서만 프로레타리아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리해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임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 문화의 전문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꾸며 낸 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는 모두 순전한 잠꼬대이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지주의 사회、관료배의 사회의 압박 밑에서 이룩한 지식 축적의 합법칙적 발전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레닌 전집』、로문판、三一권、二六二페지)라고 과학 문화 유산의 계승에 대한 고전적인 명제를 주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五차 전원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선조들이 써 놓은 력사나 지리나 기타 군사、정치、경제、문화 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로 분석하고 그를 섭취하여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유산들을 집어 치우는 아주 용서 못할 엄중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옛말이나 노래도 남의 것은 다 좋고 자기 것은 다 못쓰겠다고 하는 현상들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문화의 유산에 대한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현상들과 앞으로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문화의 유산을 옳게 섭취하며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 우에서만이 타국의 선진 과학、문화들을 급히 또는 옳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는 찬란한 과학、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천문 지리、수학、특히 천문 기상학은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일찍부터 발전하였는바 三

국 시대부터 기상을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七세기 초에 건립된 경주 첨성대는 현존하는 동양 최초의 천문대이다。 고려 시대에는 초기부터 말엽에 이르는 三六○년 동안 태양의 흑점 관측을 三四회、즉 一○년 동안에 一회씩 주기적으로 관측한 기록이 오늘까지 보존되고 있다。 리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격루(自擊漏)、측우기、풍신기(風信旗)들이 제작되였으며 그중 一四四○년대에 발명된 측우기는 一六九○년 이태리 메네제스 카스젤리가 발명한 것보다 약 二○○년 앞섰던 것이다。 그 당시 농업 생산을 위한 기상 관측망은 전국적 규모로 형성되였으며 관개 수리 공사도 광범히 전개되였던 것이다。

이외에 금속 활자와 거북선의 발명、의학、지리학、미술、공예、건축 기술 등 과학 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문화의 전통은 예로부터 보존되여 오는 력대 문헌이 적은 까닭에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으며 또 근 四○년 간이나 야만적 일제 통치하에서 자기 나라의 력사、지리와 학문을 연구할 자유가 없었고 모국어마저 제대로 사용할 자유가 없었고 조선 문화의 우수한 전통이 파괴 말살되는 조건하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매몰되여 있는 과거의 훌륭한 과학 문화 전통을 비판적으로 연구、섭취하는 문제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우리 당은 자기 존재의 첫날부터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에 대하여 심대한 주의를 돌려 왔던 것이다。 우리 당은 해방 후 비로소 소생 발전하기 시작한 민족 문화를 인민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고귀한 민족 문화 유산 속에서 인민적、진보적인 요소와 애국적 혁명적 전통을 찾으며 쏘련을 비롯한 선진 과학 문화를 섭취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였으며 이 사업에서 적지 않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통치의 남반부에서는 그의 반동적 반인민적 과학 문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민족 문화는 파산 상태에 처하게 되였으며 일제 통치하에서 보다 더 과학 문화 유산이 혹심히 파괴 말살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미제는 경주 첨성대를 비롯하여 고대 건물들을 파손하며 창덕궁、왕궁 박물관을 위시하여 각지에서 우리 선조들의 유물들을 략탈하며 『신라 향가』를 비롯한 옛날의 가요、문학 등을 조선의 고유한 문학 예술이 아니라고 하며 『춘향전』의 주인공을 천하 제일 박색 추부로 외곡하는 등 우리 나라 고전 문학의 전통을 부인하며 한글의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력사가와 과학자들을 압박 학살하며 조선 인민의 민족 의식을 마비 말살시키기 위하여 부패한 미국식 반동 문화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조선 인민 자체의 과학 문화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은 우리 북반부의 과학 문화 일꾼들의 임무가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당은 민족적 유산 계승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항상 민족 유산 계승 발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을 견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소한 리탈 행위도 용서치 않았다。 당은 과학 문화 정책을 외곡하며 과거의 혁명적 전통을 홀시하며 지어 우리의 민족적 고전과 유물에 대한 경시 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한 일부 동지들의 과오를 제때에 비판 폭로하였으며 과학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 문화 일꾼들의 연구 사업을 성심 성의로 방조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과학 문화 일꾼들은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 밑에 기본상 인민적 립장에 서서 자기의 연구 사업과 온갖 창작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여 왔으며 과학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근년에 와서 실학파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늘어가며 고전 문헌과 작품들이 점점 많이 번역 소개되고 있다。 당 대회를 계기로 공화국 과학원에서 『조선어 소사전』과 『조선 통사』 상권을 편찬 출판한 것은 우리 나라 과학 문화 발전에 대한 적지 않은 기여로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아직 많은 거리가 있다。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전통과 혁신 관계 등 고전의 계승 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리론적 문제가 아직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전 저작에 관한 연구 분야가 『아직 [illegible]의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 사업은 아주 굼뜨게 진행되며 매우 불만족한 처지에 놓여 있다。

당 대회의 보고와 결정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엄격히 지적한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개 과학 문화 일꾼들은 과거의 사소한 업적에 만족하지 말고 당 대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심오한 연구와 참신한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

과학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문제에 있어서 선결적인 문제는 어떤 것을 계승하며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과학 문화 발전의 력사、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물론과 유심론과의 원칙적인 사상 투쟁의 력사이다。 그것은 진보와 락후、낡은 것과 새 것、인민적인 것과 반인민적인 것 등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진보적 계급과 반동 계급간에 장기간에 걸쳐 투쟁한 사상 투쟁을 반영한 것이다。

수천년전 소수 착취 계급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과학

문화를 거의 독점한 조건하에서 과학 문화는 불가피적으로 착취 계급의 유심론적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연 과학 자체에는 계급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당시의 력사적 제한성에 의하여 발전상 저해를 받았으며 사회 과학에 있어서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하여 유심론적 영향을 농후하게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사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과학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선 그 유산 속에 있는 유심론적인 락후하고 반인민적인 껍질을 벗겨버리며 유물론적인 것、진보적인 것、인민적인 것 등 그의 알맹이들을 선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별 사업은 어려운 일이며 아주 세밀한 분석과 인내성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신라 경덕왕(新羅 敬德王) 시대의 에밀레종 이야기를 실례로 들어 보자。

철을 용해하여 종을 만들 때 골분을 넣으면 린의 작용으로 종소리가 잘 날 수 있다。

어린애를 쇳물 속에 빠뜨린 것은 그 당시 어머니의 실수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어머니의 말한 마디 잘 못으로 국가에서 일부러 아이를 빼앗아다가 쇳물 속에 집어 넣었다는 잔인한 전설을 만들어 내였다。

고구려 평원 공주(高句麗 平原 公主)와 온달(溫達) 장군 이야기는 왕족 출신의 선량한 녀자가 궁중의 향락 생활을 버리고 평민에게 출가하여 로동 생활을 하는 인민적인 전설인데 후세의 봉건 사가들은 다섯살 때 울기를 잘하여 아버지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리행한 것이라고 상식에서도 벗어난 륜리 관념을 날조하여 내였다。

과거의 유산과 전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력사적 사전、인물、학설들을 그 당시의 사회적、시대적 조건에 의거하여 적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서 화담(徐花潭)의 기불멸론의 기(氣)가 순수한 물질적 원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는 벌써 물질 불멸론의 사상에 접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홍경래에게 봉건 시대의 령수가 되려는 야욕이 있었다 하여 당시 량반 통치를 반대하여 궐기한 농민 봉기에서의 그의 역할을 무시하며 인민적 립장에 서지 못한 것으로 론단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우리는 통치 계급 가운데서도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는 력사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순응하여 긍정적이며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세종 대왕이 량반 통치 계급에 속한 인물이며 계급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四○○여년 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문헌 편찬 사업을 대규모적으로 추진시키며 민족 문화 발전의 대로를 열어 놓은 그의 진보적 역할과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인민성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현대적 안광과 척도를 가지고 과거 인물들에게 지나

친 요구를 한다면 그들에게서는 진보적 요소와 혁명적 전통을 찾기가 더욱 힘들 것이다。

우리 나라 고전 문학 작품중에서 우리는 풍부한 인민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조선 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며 인민들의 실생활을 반영한 고전적인 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암흑과 곤난속에서 미래의 광명과 행복을 위하여 분투 노력한 모습을 회상하면서 수백년 수천년을 사이에 두고도 동일한 사상 감정에 공명하며 감격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다。

안악 고분이나 강서 고분의 벽화를 보고 우리는 고구려 시대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생동적으로 표현한 선명한 색채와 교묘한 필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콩쥐 팥쥐』、『흥부와 놀부』나 『심청전』、『춘향전』을 보고 우리는 로동과 나태、정의와 부정의、폭력에 대한 불굴의 투쟁、녀성들의 청렴한 품성、인민들의 사랑과 미움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가를 똑똑히 알 수 있다。

우리는 박 연암의 『호질(虎叱)』『허생전(許生傳)』、『량반전(兩班傳)』등 작품에서 유교 도덕의 허위성과 량반 귀족 정치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느낄 수 있으며 그가 국내 시장 확장과 대외 무역 및 외국 류학을 주장하는 그 당시 실학과의 사상을 반영하였으며 봉건 량반 계급의 몰락과 근대 상업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를 어느 정도 예견한 데서 그의 위대성을 더욱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 문예 작품들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연극과 가극으로 상연되여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으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오늘 우리들의 실 생활의 일정한 힘으로 되고 있다。 고전의 생활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전 문학 작품이 일부 청년 학생층 속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하여 그 작품 자체를 과소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일부 나어린 청소년 독자들이 도달한 사상 의식 수준이 미숙한 데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번역 출판한 고전적 작품들이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홍길동전』을 읽고는 자기도 활빈 당의 괴수가 되여 조선 팔도를 횡행할 환상을 가진다거나 『춘향전』을 읽고는 『어허 둥둥 내 사랑』에만 취미를 부친다면 물론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역 출판되는 고전 작품에 대하여 서적 해제와 평론 등을 광범히 진행하여야 하며 또 청년 학생들의 독서 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지도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옛날 작품중 그 내용이 아주 락후하고 반인민적이라면 애야 출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력사 유산에서 우수한 전통이란 인민적、혁명적 인도주의적、애국주의적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자국내·통치 계급과 또는 외래 침략자들의 침입을 반대하는 계급적、민족적 투쟁 경험이나 자연 극복을 위한 생산 투쟁 경험이나 그 시대 인민의 생활 풍습、사상、감정、희망 등을 표현한 고전 문헌、고전 문학、예술 작품、문화 유물 등은 인민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 재보이며 세계 문화 보고에도 첨가될 것이다。

우리가 계승하자는 과학 문화의 유산은 바로·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떻게 인민적 전통을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문화 유산의 계승은 자손이 부모의 유산을 세습하듯이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아니요 혁신이며 창조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계하여야 할 두 가지 경향은 복고주의적 경향과 배타주의적 경향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이 모두 계승과 혁신과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김 일성 동지가 一九五五년 一二월 二八일 선전 관계자 회의에서 『주체를 찾으라』고 교시하신 후 사상계에서 외국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형식주의와 자기 나라의 혁명적 전통을 경시 혹은 부인하던 민족 허무주의적 경향을 배격하며 주체를 확립하기에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앞으로 발레트나 번역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등의 의문을 품으며 혹은 『장차 고전 예술 극장만 남고 국립 예술 극장은 없어진다』느니 등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조선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 좋은 비행기、화차 등도 다 버리고 갓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위험한 견해이며 주체와 고전 계승에 대한 인식상 착각이다。

우리는 『고전의 보고를 리용한다고 하여서 그를 봉건적 옛날이나 봉건적 침체성을 노래하며 예술의 낡은 형태를 리상화하는 것으로 전변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애국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옛날의 애국주의 사상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시대성에 의하여 애국주의의 사상은 과거에 비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더욱 새롭고 풍부하고 질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과거의 애국주의의 사상은 외래 침략자들의 침입을 반대하여 궐기한 인민들의 투쟁에서나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던 반인민적 소수 량반 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낡은 사회의 모든 결함과 암흑을 폭로하며 미래의 광명을 희망하는 인민들의 요구 속에 표현되여 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자기의 정당을 가지고 정권을 장악한 새로운 사회적 력사적 조건 밑에서 오늘의·애국주의 사상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지난 三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표시된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단순히 조선 인민 자체의 조국 방위와 통일 독립을 위한 반침략 전쟁이였을 뿐만 아니라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쟁이며 오늘 조선 인민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도 국제 민주 진영과 굳게 단결되여 있는만큼 오늘의 애국주의 사상은 프로레타리 국제주의 사상과 일치되여 있는 것이다。

문학 예술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도 실천 과정에서 부단히 혁신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자기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습관과 심리 상태와 민족적 정서에 알맞는 언어와 선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외국의 것을 기계적으로 끌어다가 결합시킬 수는 없다。

一七세기 후반기의 저명한 문인 서포 김 만중(西浦 金萬重)은 송강 가사(松江 歌辭)의 한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선의 선비라는 자들이 자기 나라의 말은 버리고 남의 나라 글을 배워 시문을 짓는 것은 마치 앵무새의 흉내와 다름 없다」라고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형식주의에 통봉을 가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주체를 바로 잡는 명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진 문화의 섭취를 거부하는 배타주의적 경향은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근대 조선이 장기간 봉건 사회와 식민지 사회로 있으면서 현대 문명에서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해방된 오늘에 있어서도 쏘련을 비롯한 선진 국가 인민들이 쟁취한 과학 문화 수준에 비하여 락후한 것은 자인하여야 할 것이다。 문학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선진 국가들에서 도달한 과학 문화 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선진 문화를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민족의 특성을 살리며 현대적 생활에 알맞는 새로운 문학 예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근년에 와서 우리 나라 예술계에 있어서도 자기 민족의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 조선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성과작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전쟁 기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요 『샘물터에서』 『통쾌한 운전사』, 민요 『매봉산 타령』, 무용극 『조선의 어머니』, 군무 『장미』와 같은 작품들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의하여야 할 현상은 작사거나 작곡을 막론하고 민족적 형식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옛날 민요 가운데서 몇몇 구절을 따다가 땜질을 하여 가지고 자기의 창작인 듯이 내놓는 악습은 시정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마을의 아침』과 같이 조선 무용과 발레트를 아무 통일적 련관성이 없이 내놓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조선화에 있어서도 고전미를 상실하게까지 현대화하지 말며 선진 국가 화가들의 수법을 배워서 조선의 얼굴을 나타내도록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적 형식에 관한 문제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부단히 연구할 문제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유산의 인민적 전통의 계승은 오늘의 실 생활에 알맞게 일층 확대시키며 일보 전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 *

과학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은 대략 이상과 같다。

문제는 그를 위한 현존하고 있는 가능성과 사료를 충분히 리용하며 실무적인 조직 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그에 대한 연구 사업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에 력량과 주의를 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료 문제이다。 정확 여부는 차차 하고라도 우선 사료가 있어야 고전에 대한 연구 분석도 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현재 사료의 결핍으로 인하여 학자들 간에 론의되고 있는 력사적 현안인 리론상 문제들이 더 깊은 연구로 들어가지 못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쟁론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 관계를 전공하는 학도들이 초보적인 연구 론문을 발표하는 데도 곤난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분산된 사료에 대한 다방면의 수집도 필요하거니와 현재 중앙 도서관이나 각 대학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전 문헌들에 대한 보관 사업을 더 철저히 하며 사료가 일반에게 리용되도록 보급시키기 위하여 복각과 번역 사업을 광범히 할 필요성이 긴급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보존된 문헌이 극히 적은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이 사업은 번중하고 방대한 사업일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실학파의 거두 정 다산의 『여유당전서』만 하여도 四四九이나 되며 『리조 실록』은 근 一、〇〇〇책이나 된다。

재래에 이 사업은 일정한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수공업적으로 극히 불만족하게 진행되였다。 엄격히 말하면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재로 조직된 과학원 고전 편찬 출판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 정리、 번역、 복각에 대한 세밀한 전망 계획을 세우며 조직적 대책을 시급히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유물에 대한 보존과 발굴 사업이다。 그러나 유물 보존 사업도 아직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민왕릉(恭民王陵)과 안악 고분을 비롯하여 고적에 대한 수리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시키며 유물、 유적들에 대한 보관 관리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속학 박물관의 건설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 시、군 향토지의 편집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국외에까지 인원을 파견하여 고적을 탐사하며 각종 유물과 사료를 수집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물보 사업에서 주요한 것은 지하 사료의 발굴이다。 궁산리(弓山里)와 초도(草島)를 비롯하여 발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발굴 조사 보고서도 미구에 출판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고대 조선을 연구함에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고고학은 우리가 요구하는 데 비하여는 아직 처녀지로 남아 있다。 력사학계에서 론쟁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노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기동이렬전』(史記東夷列傳)이나 『위서』(魏書)에서 나오는 기사만을 가지고는 너무 빈약하다。 국내 국외에서 이에 관한 더 많은 사료의 수집과 또한 다방면적인 연구 사업도 필요하나 이것을 확증할만한 력사적 유물과 유적들이 고고학적으로 해명되여야 할 것이다。

지질 탐사와 고고학적 연구는 결부시켜 진행할 사업이다。

쏘련에서는 공중 촬영과 물리 탐광 방법으로 유적을 발견하며 포자 화분 분석 방법(胞子花粉分折方法)으로 고대의 토양과 지리적 조건에 대한 결론을 얻는 등 자연 과학적 방법을 고고학에 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도 연구 방법상 선진 과학계의 경험을 더 많이 섭취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세째로 민간 예술의 수집 연구 사업이다。

민간에는 구전 문학인 가요 전설과 민족 기악、무용 등 대중적 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창작된 예술이 풍부하게 있으며 이름 모를 민간 예술인들도 허다하다。

봉산탈춤、북청 통소 합주、나비춤、녕변 팔경가、조선화 등 이미 발견한 것도 적지 않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그를 조사 수집하면 더 많이 찾아 낼 수 있다。

당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 창작 연구소를 속히 내오게 하며 민간 미술 수집에 주의를 돌리며 민요의 채보 사업을 계속 개진시키는 한편 민요 가수들의 노래를 록음하여 두거나 레코드에 취입하여 두는 등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네째로 신인 육성 문제이다。

고전 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한 현존한 학자나 예술인들 자체의 수준을 제고하며 저작을 장려하는 외에 이들을 통하여 신인 육성에 더 많은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 안되는 년로한 전문가들이 자연 법칙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한 지식과 예술을 후세에 전달 못하고 서거하게 되면 이보다 큰 손실이 어데 있겠는가!?

선전성 산하의 국립 고전 예술 극장과 국립 최 승희 무용 연구소의 교양 체계를 더욱 개선 강화하며 국립 음악 대학과 미술 대학에서 연구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여 더 많은 신인들을 길러내야 하며 과학원 력사 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각 대학 력사 문학 강좌에서도 이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신인들중 우수한 동무들은 선발하여 외국에 류학을 보내며 사전에 그들에게 조선 관계 학문과 고전 문학 예술에 대한 예비 지식을 소유시키며 조선 자체의 것을 기초로 하고 선진적인 것을 섭취하여 앞으로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되도록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 사업이 광범히 전개되여야 한다。

봉건 제도의 발생 과정에 대한 것、근대 개화 사상에 대한 평가 등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은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발생 과정、민족 형성 문제 등 사학계에서 허다한 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고 전통과 혁신 관계에 대한 리론적 분석、미분음의 처리 등 고전 문학 예술 부문에서도 허다한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전 연구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성이다。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연구 발표하며 남의 의견에도 평론을 가하는 호상 론쟁이 광범히 벌어져야 한다。 이것이 발전을 가져오는 전제 조건이다。 협의회 좌담회、쎄미나、지상 토론 등 각종 형식을 통하여 이 사업을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론쟁하는 태도에 있어서 리론 수준의 향상과 서로 방조하고 단결하고 교육하는 것이 기본 립장이다。 신구를 물론하고 고전 예술이나 현대 예술을 막론하고 모두 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료를 충분히 장악하고 문제를 본질적으로、전면적으로 관찰 분석하며 겸손한 태도로 론쟁을 계속할 것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당장 취의하여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유심론적 사상』이니 『반맑스주의적 태도』이니 하는 등등 함부로 감투를 씨워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은 초보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허다한 행정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중 이 부문 사업의 일층 개진을 위하여 오늘의 국가적 형편을 고려한 기초 우에서 당장 필요한 각종 시설、기술적 대책 등 최소 한도의 물질적 조건은 보장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과학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먼저 과학 문화 일군들 자체가 당과 정부의 정책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며 이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三차 당 대회의 결정 침투 사업과 함께 해당 부문에서 상세하고도 전망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에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해당 부문의 당 단체들이 이 사업을 협조 보장하도록 당적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하여

리 상 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 앞에 나서는 당면 임무는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 민주 기지의 물질적 기초를 가일층 공고화하기 위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축성하는 데 있다. 즉 이것은 이미 창설 공고화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기반으로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이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적 지위를 확대 강화하며 일체 인민 경제의 명맥을 국가의 수중에 장악하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높은 생산력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당은 오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농 경리와 개인 수공업을 점차 사회주의적 협동경리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성분을 리용 제한하면서 점차적 방법에 의하여 그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 있다.

자본주의적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정책은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표현하여 준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적 개인 상공업이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그를 리용 또는 제한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자는 것이다.

현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 경제적 형편에서 개인 상공업에 대한 개조 정책은 현 계단의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제 조건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그러면 우리 당의 자본주의적 개인 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및 개조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자본주의적 개인 상공업은 국가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대하여 일방으로는 긍정적 작용을 수행하는 한편 타방으로는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만 사실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북반부에서 자본주의적 개인 상공업에 대하여 일방으로는 그가 국가의 경제 건설에 유익하게 복무하도록 그의 긍정적 측면을 지지 리용하며 타방으로는 그가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독점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그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하며 점차 그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 상공업자들을 점차 자기의 로력으로 일하며 인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국가 및 협동 단체 부문이 인민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개인 상공업을 리용 장려하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와 같이 자본주의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달리 개인 상공업이 인민 정권의 지도하에 국가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긍정적으로 복무하게 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해방후 개인 상공업을 인민 생활 향상에 복무시키는 방향에서 그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를 장려하는 시종 일관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하도록 보장하여 왔다.

우리 당과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의하여 벌써 一九四七년에는 二、三〇〇여개의 개인 기업소들과 三二、〇〇〇 여 개의 개인 점포들이 복구 운영되게 되였던 것이다. 만약에 一九四六년도의 개인 공업 총생산액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에는 一一〇%、一九四八년도에는 一一七%로 해마다 그 생산고가 장성되였다. 一九四六년도에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에서 개인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二三·一%였으며 상품류통 분야에서 개인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九六·五%로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一九四六년도 우리 나라 총예산의 五五·五%가 거의 개인 상공업 및 수공업 부문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거하였다.

개인 상공업이 전쟁전 시기에 이와 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때에 국가 및 협동 단체 경제 부문이 아직 장성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것이며 따라서 국가 및 협동 단체의 경제 부문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개인 상공업의 비중이 점차 저하되였고 또 저하되여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하튼 개인 상공업이 국가 및 협동 단체 경제 부문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차 저하되여 가기는 하였으나 국가 및 협동 단체의 경공업과 상업이 아직 발전 초기에 있었던 전쟁전 인민 경제의 부흥 시기는 물론 오늘에 있어서도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에 적지 않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

은 개인 상공업자들의 자유로운 경리 활동을 보장하며 그를 장려하고 있는 바 이것은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상공업자들만 아니라 공화국 남반부에 아직 남아 있는 량심적인 상공업자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집결시키며 그들을 우리 혁명 수행에 적극 인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자기들의 경리가 파산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남반부의 상공업자들은 우리 당의 개인 상공업에 대한 정책을 환영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접근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 제三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가일층의 확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당 당원들과 종교인、중소 상공업자、자유 직업자 등 광범한 계층과의 단결을 도모하며 그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방조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만일 우리들이 개인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로부터 그를 배격하거나 경시한다면 우리의 혁명 승리를 위해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는 통일 전선의 강화에 저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에도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만 실시하였다거나 또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오일 것이다。

우리 당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그를 지지 리용하는 한편 부정적 경향에 대하여서는 그를 용허하지 않았으며 그가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에 유해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왜 반드시 리용하면서 동시에 제한하여야 하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 경리 상공업은 그 본질에 있어서 리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리 형태인 것이다。 때문에 개인 기업자들에게는 리윤 추구에 대한 무제한한 욕망이 있으며 특히 모리배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타인을 기만하며 공공 리익까지 침해하려는 투기적 근성이 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일면적으로 그의 긍정적 측면만을 보고 그의 부정적 측면을 일시라도 방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코 자기 발전의 법칙을 따라 국가와 인민에게 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것은 아무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아무리 소규모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이라 하여도 그는 리윤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시장을 혼란시키며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그것이 아무리 소규모의 것이며 또한 그가 국가와 인민 생활에 아무리 유익한 필수품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부문이라 할지라도 그의 착취적 본성은 의연히 보존되여 있기 때문에 크나 적으나간에 자본주의적인 부정적 측면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은 그것이 소규모의 것이라 하여 리용만 하고 대규모의 것이라 하여서 반드시 제한하자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일정한 시기까지는 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한하자는 그러한 정책도 아니다。

개인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그를 리용하면서 동시에 제한한다는 것은 통일된 한 개의 정책의 분리할 수 없는 상이한 두 측면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익하고 소규모의 상공업 부문이라 하여도 일방으로 그를 리용하면서 동시에 타방으로는 그의 부정적 측면을 반드시 제한하는 정책을 호상 옳게 결합시키는 데서만이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국가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긍정적으로 복무하도록 인도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점차로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왜 반드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종국적 목적은 사회주의의 실현이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이다。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발생 발전하는 한편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점차 해결되여야 할 상용할 수 없는 일련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 모순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만이 점차 해결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종국적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사회주의적 경제 성분의 급속한 확대 장성으로 말미암아 개인 상공업의 비중은 현저히 저하되였다。 개인 기업으로서는 소규모의 정미소、타면소 및 사소한 일용품과 견채 생산 등이며 또 개인 상업도 소규모의 식료、일용 잡화상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 상공업의 처지가 현재 이와 같이 빈약하다 할찌라도 우리가 옳게 그것을 지도 및 통제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리로운 결과는 주지않을 수 있다。

지금 매우 빈약은 하나 일부 상공업자들은 고용 로동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로동에 의거하여 경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로동자들의 로동의 일부는 기업주들에게 착취 당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때때로 소 기업주와 로동자들 간에는 일련의 모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찌라도 개인 상공업자들의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점유되는 사회적 생산

물의 몫이 직접 국가경제의 확대 재생산、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전채 인민을 위한 소비에 충당될 것은 의심할바 없다。

또한 오늘 우리 나라의 국영 경제와 협동 단체 부문에서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그의 요구에 따르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작용하고 있으나 개인 상공업 부문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낡은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이 유일하게 전면적으로 작용할 수 없게 한다。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아무리 빈약하다 하더라도 크나 적으나간에 이상과 같은 제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항상 우리의 인민 경제에 부정적인 작용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요구한다。

그러면 장차 공화국 북반부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될 것인가?

과도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는 과정은 실로 다양하다。

레닌은 일찌기 모든 민족들이 꼭 한 모양으로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며 매개 민족은 이러 저러한 변종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로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러 저러한 템포로서 각자의 독자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수탈과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은 각이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쏘련과 오늘 중국에 있어서의 경험이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 에서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국가 자본주의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북반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길을 택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우리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자 일반이 가지는 공통성과 함께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특수성은 과도기의 현 계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구체적 방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문제는 필경 일정한 계급적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급들의 호상 력량 관계를 옳게 타산하여야만 우리는 문제의 정당한 해결 방도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실태와 그들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성격과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제 요구를 과소 평가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어데까지나 이와 긴밀한 호상 련관 속에서 우리 나라 상공업자들의 형편을 정확히 리해하는 데서만이 우리는 그에 대한 정당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고유한 제 특징으로부터 떠나서 자본주의적 상공업 일반에 대한 인식만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옳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정확한 실천 방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형편을 력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인 것이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우리 나라의 민족 산업은 그의 략탈 정책에 의하여 극도로 령락되였다。 우리 조국을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중요 생산 수단을 수탈당한 조선의 값싼 로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대상으로 식민지 공업을 창설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아세아 대륙침략에 필요한 군수 공업을 확장하였다。

이리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독점 자본의 침입과 그 지배하에 우리 나라 민족 부르죠아지는 그가 발생하기 시작하던 요람기에 벌써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무력한 형편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 자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건하에서 그들은 완전히 일본 독점 자본가들의 산업、은행 금융 체계에 예속 당하고 말았으며 해마다 파산되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직후인 一九一一년도에 조선내의 총공업 자본중에서 순 조선인 자본이 一八·七%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의 지위는 그후 해마다 쇠퇴하여 一九一七년에 와서는 一五%、 一九二五년도에는 六·九%、 강점 말기에 이르러서는 단 五%에 불과한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였던 것이다。

더우기 이 보잘 것 없는 정도의 민족 자본까지도 그의 절대 다수는 상업에 종사하게 되였으며 산업에서의 민족 자본은 락후한 기술적 토대우에서 다만 정미、양조、 고무신、 양말、 인쇄、 메리야스 류과 약간의 방직 공업 정도에 국한되여 있었다。 여기로부터 우리 나라 상공 계층의 력사적 취약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처지에서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게 되였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개혁을 통하여 일본 독점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자 인민 경제에서 개인 상공업의 비중은 거의 보잘것 없는 형편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개인 상공업은 이미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

부의 옳은 정책에 의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三년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혹심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개인 상공업의 경제적 처지는 심히 령락되였으며 전후 시기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一九五五년도 개인 공업 생산액은 전쟁전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현저한 축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一九五五년말 현재로 등록된 개인 공업 가수는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七○% 상인수는 三○% 미만에 불과하다.

이들 개인 공업의 대다수는 정미, 제분, 타면업이 八八·一%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제조 공업은 극히 빈약하다. 이렇게 보잘것 없는 제조 공업조차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 설비, 생산 규모 및 로동자 고용 정도 등 모든 면으로 보아 그의 대부분은 수공업의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개인 상업의 처지도 거의 같은 형편에 있다. 개인 상업은 개인 공업에 비하면 어느 정도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의 다대수는 식료, 일용 잡화상, 행상 기타 소 상인들이며 도매상과 점포상 등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공화국 북반부의 개인 상공업자들의 형편은 기업의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분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현존 개인 상공업자들 중에는 원래에 근로자적 성분을 가진 계층들이 적지않게 포함되여 있다. 그것은 지난 전쟁 기간에 조성되였던 제반 특수한 사정과 관련하여 설명 될수 있다.

불완전 하나마 평양시의 七四五명의 상공업자들을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면 그들의 성분 구성에 있어서 해방전의 로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四五%를 차지하며 일제 시대로부터 상공업에 종사하여온 자는 겨우 八%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는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로 되여 있다. 그들의 기업 개시 직전의 직업별 구성도 거의 같은 형편에 있다.

이상과 같은 현존 개인 상공업자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적 성분 구성은 바로 개인 상공업자들의 동향에서 반영되고 있다. 一九五五년 一년 동안에 폐업한 개인 상공업자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총 폐업자수의 一○%는 국가 기관의 로동자, 사무원으로, 一二%는 생산 협동 조합원으로, 一三%는 농업 협동 조합원으로, 一六%는 개인 농민등으로 그의 다대수는 근로자로 각각 전환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나라 상공업자들은 량적으로나 그들의 경영 활동의 규모로 보나 매우 빈약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도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성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구체적 방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제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그들의 지망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 수단과 자금, 생산적 경험 및 기술에 기초하여 협동 경리의 길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협동 조합은 자기의 일정한 생산 수단을 소유하면서 자기 로력으로 일하는 소생산 경리자들을 그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처한 상술한 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이 생산 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다는 것은 리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공화국 북반부에 현존하는 일부 상공업자들이 이 길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로 전환하였으며 당당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변되고 있는 제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一九五五년에만 하더라도 생산 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경리에로 전환한 상공업자수는 약 一、○○○명에 달하고 있는바 이들은 근로를 통하여 자신을 사회주의의 의식적인 건설자로 개조 하고 있다.

실례로 선반 四대를 포함한 三○○여 만원에 해당하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생산 협동 조합에 가입한 리옥순 조합원은 기술 습득에 노력함으로써 불과 二년밖에 안되는 기간에 기능공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생산 협동 조합의 강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상공업자들은 최초에는 낮은 형태의 조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거의 높은 형태의 조합으로 전환하였으며 계속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 발전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꼭 한 가지 형태의 협동 조합을 통하여서만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희망과 경제적 형편과 소유한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생산 협동 조합, 수산 협동 조합, 농업 협동 조합 등 이러저러한 형태의 협동 조합을 통하여 개조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경우에는 희망 여하에 따라 국영 경제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으로 혹은 근로 농민으로 전환하는 등 그의 개조 과정에서는 실로 다양한 이러 저러한 개별적 현상들이 동반될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기에 부언할것은 개인 상인들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현존하는 개인 상인들 중에는 종전에 생산적 경험과 기술을 소유한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희망만 한다면 직접 생산 협동 조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도시 농촌의 지방적 원료 원천에 기초하여 그를 생산, 판매하는 반생산, 반판매 형태의 협동 조합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일정한 력사적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로 대체될 것이며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그리하여 그들은 어젯날의 기업가나 상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전체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의 일원으로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호상 동지적 협조와 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단란한 대가정 속에서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 길만이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접수하여야 할 광명한 대로인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여서 아무러한 곤난도 없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도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며 이 투쟁 행정은 필연코 크나 적으나간에 일정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조국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매국 도당들이 계속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정은 혹은 우리가 조급해 한다고 하여서 일조 일석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과정도 아닌 것이다。왜냐하면 한개의 사회 경제 형태가 존재한다거나 교체된다는 것은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경제 발전의 필연적 법칙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및 국가 기관의 일부 일군들은 현 계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또한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구체적 형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적지 않은 결함들을 발로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순조로운 진행은 우리의 사업 여하에 달려있다。그러므로 당 및 국가 기관 일꾼들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과의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구속 제한하려는 경향을 시정하고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리용 제한 및 개조의 정당한 정책을 정확하게 해설 선전하며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필연성과 오직 그 길만이 개인 상공업자들이 접수하고 나가야할 광명한 대로이라는 것을 인내성있게 교양 침투함으로써 그들이 자각적으로 개조의 길로 나서도록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당 및 국가 기관 일꾼들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현 계단에 있어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라 하여서 덮어놓고 조급하게 할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자금、기술 및 생산 설비 등 모든 생산 예비와 창발성을 국가 경제 건설에 유익하도록 리용하면서 점차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 및 국가 기관 일꾼들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그것이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동일하게 생산 협동 조합의 형식을 취한다 하여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덮어놓고 일률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우리는 반드시 상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이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의식이 강할 수 있는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서서히 최초에는 그들의 출자의 몫에 의한 분배를 상당한 정도로 허용하는 낮은 형태로부터 점차로 높은 형태로 지향하여야 한다。그리하여 출자에 의한 분배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그들의 준비된 정도와 조합의 경제적 토대의 공고화에 따라 물질적 리해 관계를 정당히 자극하도록 조응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지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대한 옳은 지도와 방조를 주는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 상인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평양시를 비롯한 각 중소 도시들에서는 피복、식료、잡화 상인들이 자원적으로 협동 경리에로 진출하고 있다。이를 옳게 조직 지도하며 점차 생산적인 협동 조합으로 발전시키도록 지도 방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 및 국가 기관 일꾼들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및 개조 정책의 본질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의 정확한 실천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에 인입하여 그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력사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강 지 원

력사적 유물론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생산의 변화와 발전은 항상 생산력의 변화와 발전에 기초하며 생산력의 변화와 발전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 도구의 변화와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공업은 바로 이러한 생산 도구를 비롯한 생산 수단과 인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분야로서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바 여기에서 중공업은 골간으로 되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공업은 경공업、식료품 공업 등 일련의 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과 농촌 경리 부문에 기계、기대、설비품、자재 등 생산 수단을 공급함으로써 이 부문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그의 규모를 확대하여 생산의 확장을 촉진시킨다。즉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의 발전은 사회적 재생산의 규모와 템포를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데로 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해방후 농촌 경리를 포함한 인민 경제를 기술적으로 재 장비할 수 있는 중공업、기계 공업의 복구 건설에 많은 력량을 기울였다。특히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공장들과 화학 비료 공장들을 다수 복구 또는 확장함으로써 각종 개량 농기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하며 관개 하천 시설을 확장하며 화학 비료의 공급을 증대하며 농기계 임경소를 대대적으로 증설하며 선진적 농업 과학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민들에게 농업 증산을 위한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농민들의 영농 사업의 보장을 위한 온갖 방조와 지도를 주고 있다。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모든 시책들은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가 지나간 二년간에 전쟁의 피해를 급속히 복구하고 확고한 발전의 길에 들어

설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농민 생활 향상에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었다。그러나 농촌 경리 부문에서 이와 같은 성과가 달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업 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공업 생산량은 벌써 一九五四년에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릉가하였는데 알곡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농업 생산은 아직 전쟁전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농촌 경리가 공업 생산의 발전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지고 있으며 공업의 발전과 농업의 발전간에 약간의 불균형이 조성되여 농업이 량곡、원료 등에 대한 공업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에 대하여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립증하여 준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 경제 앞에는 알곡을 비롯하여 전체 농업 생산물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가 전 인민적 투쟁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알곡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전체 농업 생산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인바 그를 위하여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더욱 제고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이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중요 측면의 하나이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이것은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요구되는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공고화하며 농민들의 정치 의식、문화 수준의 제고를 촉진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비적 및 생산적 방조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의 강화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공업이 수행하는 주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근로 농민들을 로동 계급에 더욱 접근시키는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업의 방조는 우리 나라 과도기에 있어서 우선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소비적 련계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공업이 농업에 주는 생산적、소비적 방조 대책의 본질、그 객관적인 필연성 및 그 의의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나라 과도기의 인민 경제 체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전일적인 경제 형태로 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로동자와、농민 즉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련계는 주로 교환、상품 류통을 통한、시장적 련결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의 경제적 련계가 아직도 주로 상품 류통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국영 기업의 생산물은 전 인민적 소유로 되나 소농민 경리에서 얻은 수확물은 농민들 자신의 소유로 되는 데 농민들은 자기 생산물을 매매에 의해서 도시에 내 놓을 수 밖에 없으며 농업 협동 조합들의 생산물은 집단적, 조합적 소유로 되며 그것 역시 시장적 련계를 통하여서만이 도시 공업 제품들과 교류되기 때문이다.

브·이·레닌은 만일 도시와 농촌간에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 없다면 「농민과 로동자간, 즉 농업과 공업간의 교환, 상업 외에 다른 경제적 련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레닌전집」 三三권 一三二페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 류통을 통한 경제적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사회주의적 류통 령역에로 인입하며 농업 생산의 장성을 자극하는 방향에서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 기간에 혹심하게 파괴된 영농 시설들을 복구 확장하며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에 대한 생산적 및 소비적 방조를 주기 위한 제반 시책을 실시하여 왔다.

공업이 농업에 주는 방조가 주로 상품 류통의 형태를 띠게 되는 조건하에서 우리 당은 가치 법칙의 정확한 인식과 리용에 기초한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련계 강화를 로농 동맹 강화의 경제적 기초로 삼았다.

그런데 로농 동맹이란 어떤 도의적인 련계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산에 의한 동맹, 두 계급의 리해 관계의 동맹, 상호 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급적 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 생산물의 가격 정책을 옳게 실시함이 없이는 로동자와 농민간의 원만한 경제적 련계는 보장될 수 없다.

공업 생산물의 가격 인하 정책은 농민들에게 일용 필수품과 생산 수단을 저렴하게 획득하게끔 하며 농민의 생활 조건과 생산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기본 농민 대중이 사회주의적 공업 발전에 직접적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국영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가는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과업의 해결을 고려하여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영 공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상품 품종들은 주로 국가적 부문의 기업에서 공급받는 원료로써 생산되나 다른 일부는 생산 협동 조합 또는 소상품 생산자들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들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는 공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사회주의적 공업에 필요한 원료와 식량을 위하여 농업 생산물을 국가 수매 형태를 통하여 국가 계획 경제에 인입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련계는 소상품 생산의 개인농 경리를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사회주의 공업과 련계를 맺게 하며 그의 지도적 방조를 받게 한다.

그런데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농민 경리에 있어서는 상품 운동의 법칙인 가치 법칙이 생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가치 법칙이 제한된 범위에 있어서이지만 그가 노는 생산의 조절자적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 농민 경리에서는 농민들의 농산물의 일부가 상품화되며 그들이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의 일부를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화폐 수입을 고려하게 되는만큼 농작물의 종별과 그 파종 면적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농작물의 종별과 파종 면적을 공업의 발전 방향과 그 요구에 수응시키기 위하여서는 가치 법칙을 잘 연구한 기초 우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게 하며 그 부문에 적극 관심을 가지게 하는 수매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가치 법칙의 옳바른 리용에 기초한 농산물 가격과 공업 제품 가격에 대한 옳바른 가격 정책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 교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더욱 강화 발전시킨다. 그것은 농촌과의 교역—공급, 판매 및 수매에 있어서 국가가 더욱 더 많은 제품을 농촌에 공급하고 타방 더욱 더 많은 농업 생산물을 자가의 수중에 장악할 수 있게 하며 농업 생산과 농민 생활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따라서 도시 근로자들에게는 식량을, 공업에게는 원료를 더욱 더 풍부하게 공급할 가능성을 주며 나아가서는 농촌에 공급하는 공업 상품 원천을 증대시킨다. 이리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역을 통하여 공업이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제공하는 방조는 더욱 증대되게 된다.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농촌에 공급되는 공업 제품의 계통적인 물가 인하, 육류 의무 수매제의 폐지, 화학 비료 교역 비률의 인하, 수매 가격의 조절, 고공품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 감소 등 일련의 중요 대책들을 실시하였는 바 이것은 농촌의 류통 범위내에서 사회주의적 상업(국영 상업과 소비 조합 상업) 및 신용 사업이 차지하는 진지를 확대 공고화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촌 류통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이 확대 강화되면 될수록 개인농 경리의 비조직 시장과의 관계는 더욱 축소되며 그들이 상업적 투기와 고리대적 착취를 제거할 가능성을 얻게 되며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 공업과 더욱 밀접히 련결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농촌에서의 국가 수매 사업이 잘 되여 주고 있다.

농산물 수매 사업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투기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리익과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 교류를 촉진시킨다。

지금 도시와 농촌간에 진행되는 상품 련계 형태에서 가장 선진적인 형태로서의 예약 수매제는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더욱 확고하게 계획적으로 보장 받게 하며 개인농、 협동 조합원들은 특히 예약금에 의하여 그들의 생산적 및 경영적 필요와 개인적 수요를 더욱 유효하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류통이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주는 소비적 련계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생산적 련계를 통한 로동계급으로부터의 방조에 의하여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취한 농업에 대한 국가적 방조 대책은 농촌 경리 분야에서의 전쟁 피해를 단시일내에 상당한 정도로 복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농업 생산을 현저히 개선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전쟁 기간에 입은 농촌 경리의 피해가 너무나 혹심하였으며 또 일부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상 결함이 그와 결부되여 농촌 경리 부문은、 상대적으로는 락후한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전후 시기에 와서 공업에서 달성된 성과는 농업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빠르고 컸으며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은 농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게 되였다。

즉 공업의 급격한 복구 발전과 또 그에 따르는 도시 인구의 장성은 원료와 식량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바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촌 경리를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서 본격적으로 재 정비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로부터 상업적 련계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촌 경리가 공업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급속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공업에 더욱 밀접히 접근시키며 상품 형태를 취하지 않는 생산적 련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킬 것이 요구 된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의 강화는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을 사회주의적 공업의 지도하에 둠으로써 이량자를 하나의 전일적인 경리에로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며 로동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는 자본주의하에서의 그들 사이의 경제적 련계와는 그의 내용에 있어서나、 그의 형식에 있어서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물의 호상 교환은 오로지 상품 형태、소위 『협상 가격』에 의한 도시의 농촌에 대한 착취로써 실현된다면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 교류가 그 자체의 사회 경제적 성격에 있어 전자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상품 형태를 취하지 않는 생산적 련계가 발생하며 발전한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그것과도 구별되며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가 소유의 두 개의 상이한 형태간의 련계이라면 인민 민주주의 조건하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공업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농업 협동 경리 뿐만 아니라 농민적 토지 소유에 립각한 개인농 경리의 소상품 생산과도 접촉하게 된다。

이리하여 인민 민주주의 조건하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의 목적은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의 가일층의 강화、 농민들의 복리의 향상과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의 구축、 농촌 경리의 협동화의 기초 우에서의 그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도기 경제의 사회주의적 경제에로의 전환인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간의 상품 형태를 취하지 않는 생산적 련계의 령역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토지 복구 및 보호、 관개 하천 시설의 확장、 농업의 기계화、 자연 재해와의 투쟁 등 각종 거대한 사업이 속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으로 인하여 농촌 경리가 혹심한 상처를 입은 실정에 대처하여 우선 파괴된 농업 생산 시설들을 복구하며 농업 생산의 급격한 앙양에 있어서 막대한 의의를 가지는 관개 하천 부문 기본 건설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결과 평남 관개 제二계단 공사를 비롯하여 승호 및 강남 지구 등 一四五개소의 관개 공사와 함경북도 두만강、 함경남도 덕지강、 황해북도 매상천 등 七二개소의 하천 공사를 합하여 총계 三一七개에 달하는 방대한 관개 하천 공사들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거대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무원、 학생、 내무원、 인민 군대、 중국 인민 지원군 및 농민들의 사회적 동원 로력 八〇〇 여 만 공수를 포함한 一천七백 여 만 공수의 로력이 투하되였으며 一〇 여 만톤의 쎄멘트、 八만 二천 여 립방메터의 목재와 막대한 량의 강재가 투입되였다。 결과에 우리 나라에는 방대한 지역을 관개할 수 있는 八개소의 저수지가 새로이 건설되였으며 금년도에만 하여도 三만 七천 여 정보의 관개 몽리 면적을 확장하는 동시에 一만 七천 여 정보의 농

경지를 홍수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되였다。 관개 하천 공사의 이와 같은 성과적 수행은 금년도만 하여도 근 八만톤의 미곡을 더 증수할 수 있게 하며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가일층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관개 하천 공사는 더욱 새로운 규모에서 확대되고 있는바 一九五四년 이후 현재까지 九만 정보의 관개 몽리 면적이 국가 기본 건설 투자에 의하여 증가되였으며 一〇만 정보 이상의 농토를 수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천 제방 공사들이 실시되였다。

이것은 오늘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알곡 생산을 백방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는 알곡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킬 데 대한 긴급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경지를 계속 쟁취하고 척박한 토지를 개량하는 동시에 관개 시설을 확장하여 밭을 논으로、수리 불안전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하며 휴경지 복구 사업과 황무지 및 하천 부지 등 개간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대한 구체적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민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이 요구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강력한 방조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나라 농촌에는 관개 시설의 확장으로 지목 변경 또는 수리 조건을 개선한다면 벼 수확을 일시에 二─三배로 제고시킬 수 있는 지대들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업이 농촌 경리에 주는 생산적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관개 하천 건설 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그 력량을 많이 경주할 필요가 있다。

공업 부문에서 관개 하천 공사에 필요한 양수기、변압기를 비롯한 각종 관개 시설용 기계 및 기자재 생산 공급의 성과적 보장은 알곡 증산을 위한 가장 큰 예비의 하나인 벼 재배 면적의 확장을 보장하는 중요 조건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에 우리 나라 공업은 이를 위한 방조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서는 물론이어니와 개인 농민、농업 협동 조합 자체의 력량으로 되는 중 소 규모의 관개 공사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그에 소요되는 모터、발동기、양수기、펌프、쎄멘트、목재 등 건설 자재와 설비를 많이 생산 공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이것은 우리 기계 공업과 건재 공업이 농업에 대한 방조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다。

경지 면적의 확장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토지의 비옥도 제고와 단위당 수확고의 제고를 위한 선진 영농 기술의 도입 발전과 화학 비료의 생산 공급의 증대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의 중요 요소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에서 파괴된 화학 비료 공장들과 농기구、농기계 공장들을 단시일내에 복구함으로써 화학 비료 및 농기구、농기계의 공급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이 부면에서 공업이 농업에 주는 생산적 방조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화학 비료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순천 및 본궁 화학 공장들을 복구하여 六만 五천 여 톤의 석회 질소 비료를 농촌에 생산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흥남 비료 공장 류안 직장이 복구되여 년산 一〇만톤 이상의 류안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一九五八년에 가서는 년산 三五만톤、五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년산 四〇만톤 이상의 화학 비료를 농촌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로동 계급이 농촌에 주는 생산적 방조는 농기계들의 생산 공급에 있어서도 실현되고 있다。

一九五五년 三월에 조업을 시작한 대규모의 기양 기계 공장을 비롯하여 전후 짧은 기간내에 복구 정비된 각지 지방 산업 농기계 공장들에서는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는 기간에 약 二만대의 논、밭 축력 제초기를 비롯하여 파종기、탈곡기、선풍기、작조기 등 능률적인 농기구들과 청초의 압착 및 절단기、사료 분쇄기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적 농기계들을 생산 공급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 공업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는 개량 농기계들과 선진적 농기구들은 수공업적이며 원시적인 우리 나라의 재래식 농기구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 부문에서의 중로동을 경로동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품이 많이 들던 전야 작업에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 주고 있다。 기양 농기계 공장에서 생산되는 축력 알곡 파종기、축력 제초기는 과거 순전히 인력에 의존하던 파종 및 제초 작업을 축력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매초 절단기에 의하여 과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옥수수、조、콩 등의 곡초짚과 청초를 써는 데 주로 작두를 사용하던 힘든 작업을 기계화하였다。 매초 절단기는 한 시간에 약 六톤의 곡초와 청초를 절단할 수 있는 데 가축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업 협동 조합、혹은 목장들에서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북중 기계 공장에서는 하루에 二천 九백 공수의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수로 굴착기를 비롯하여 관개 공사에 필요한 다량의 기계들을 생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선진 농기계의 생산 공급 및 선진 영농 기술、농업 기계화 수준의 제고는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업의 방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 수입으로 막

대한 량의 농기구、농기계와 수만톤의 화학 비료와 막대한 량의 농약을 공급하여 주고 있는바 一九五六년에는 국내 생산 및 국외 수입으로 약 一五만톤의 화학 비료가 농촌에 공급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인민 경제의 두 부문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상품 형태를 취하지 않은 생산적 련계에는 또한 국가가 근로 농민에게 주는 거액의 융자적 방조、종곡、량곡、비료、가축들의 대여 및 종축의 무상 분여、농기계 임경소의 설치、농촌 지대에서의 학교 및 각종 문화 시설의 확장 등도 포함되여 있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전쟁 시기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전후 시기에도 현물세 및 국가 대여곡의 미납량과 기타 일체 미납곡 등 수만톤의 량곡과 수십억원의 농민 은행 대부금을 면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만톤의 화학 비료를 대여하여 주었다。 一九五五년에는 자연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약 一九만톤에 달하는 종곡 및 식량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一九五四—一九五五년 二년간에만 하여도 농업 협동 조합들과 개인 농민들에게 二五억 九백만원에 달하는 융자적 방조를 주었다。

농촌에 로력이 부족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수만명의 제대 군인들을 농촌에 보내는 한편 매년 영농 기간에 군대、내무원、정무원 및 학생들로써 광범한 로력 협조 사업을 조직하였는바 一九五五년 한 해만 하여도 연 七백 만명의 로력적 방조를 농촌에 주었다。 이것은 농촌의 로력 부족을 타개하고 모든 영농 작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농민들의 물질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그들의 증산 의욕을 강력히 고무할 목적으로 一九五六년부터 현행 농업 현물세제의 일부를 수정하여 현물세 의 부과 비률을 현저히 인하시키는 동시에 그의 부과 액을 일정한 기간 고정시키는 중요한 대책을 취하였다。

또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결정에는 영농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들 자체의 힘으로 되는 관개 하천 공사를 방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도와 기자재 및 자금의 공급、카바이트 재의 무상 분배、병충해의 구제 약품들의 무상 공급、가축 자금、종축 및 축사 용재 등의 공급 및 가축 사양 기술상 방조、그리고 상전 관리용으로 적지 않은 화학 비료의 무상 공급 등 조치들이 예견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시—공업으로부터의 농촌 경리에 대한 위력한 방조는 농촌 경리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농업에서 개인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로 개조하기 위한 도시—로동 계급의 방조이다。 여기에 있어서 국영 농기계 임경소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 그는 우리 나라 농업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 주는 물질적 토대로서 국가 측으로부터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서의 축력 및 로력의 부족과 농기구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농업을 점차적으로 기계화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력량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후 시기에 농기계 임경소들을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그의 물질 기술적 장비를 현저히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一九五五년에는 一九五三년도에 비하여 농기계 임경소수는 一四개소로부터 四五개소、즉 三·二배로、뜨락또르 대수는 五二〇대(一五마력 환산)로부터 一、三八二대、즉 四·三배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그러한 결과 一九五五년 영농 기간에 각지 농기계 임경소들은 五천 四〇五개소의 농업 협동 조합과 一二만 三천 여 호의 개별적 농민들의 토지 三七만 여 정보를 기계로써 기경 및 파종하였다。

농기계 임경소는 선진 농업 기술과 현대적 농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는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군들이 있다。 그들은 농업 협동 조합 및 농민들의 영농 사업을 도와 주며 지도하기 위하여 농촌에 파견된 로동자 부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농기계 임경소는 생산 과정에서 로동자와 농민이 직접 결합되는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 련계의 기본 형태이다。

그러므로 농기계 임경소를 통하여 공업이 농민들에 주는 방조는 농촌 경리의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한 농촌의 기술적 장비를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주요 공간으로 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농기계 임경소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경리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생산 관계의 장성 발전을 촉진시키며 또는 그의 확대 공고화를 돕고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생산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생산력의 변화 발전에 수응한다。 사실 전쟁 기간에 우리 농촌 경리는 혹심하게 파괴를 당한 것만큼 그 피해의 회복은 분산적이며 고립적인 개인 농민 경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은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급속한 장성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으로부터의 농민에게 주는 방조와 지도를 더욱 중대시키게 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농기계 임경소는 생산력의 개진과 발전을 촉진 및 지도함으로써 새로운 생산 관계의 발생 및 발전을 촉진시키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대한 작용을 놀았으며 또한 놀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다각적인 방조는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업의 위력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이는 또한 우리 나라 농촌 경리가 공업으로부터의 방조에 의하여 그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그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능성들이 조성되여 가고 있다는 것은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 경리에 방조를 줄 책임을 지니고 있는 공업 부문의 일부 일꾼들은 모든 일을 다.잘 한 것은 아니다。우선 관개 하천 건설 사업 부문에서 지난 기간에 발로된 결함은 이 부문 지도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기계 설비품들을 제때에 질 좋은 것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완공될 공사장에서 통수가 늦어 지지 않도록 보장할 데 대한 투쟁이 미약하게 전개되였고 한편 건설장들에서는 정확한 시공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며 기술적 조건에 엄격히 립각하여 공사를 질적으로 보장할 데 대하여 력량이 적게 돌려졌다는 데 있다。 그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오작 공사를 내였으며 매 공사 단위들에 대하여 로동자들에게 정확한 정량에 의한 도급제를 실시하지 못하며 로력의 랑비를 발생케 하는 용납할 수 없는 현상들을 로출시켰다。 이러한 결함들은 앞으로 시정되여야 할 것이다。

화학 비료 공업 부문에 있어서도 기본 건설과 생산 활동에서 비록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할 일에 비하여 볼 때 이 부문 일꾼들에게도 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투쟁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이 부문에서도 결함들이 적지 않게 발로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생산된 제품의 질이 아직 선진 국가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 품종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내부 원천을 옳게 탐구 리용하며 설비 능력을 옳게 활용하며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 작업에서의 표준 조작법들을 엄수케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앙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업이 농업에 주는 방조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각종 개량 농기구의 생산을 확장하며 그의 보급 사업을 철저히 조직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대적 농기계들의 대량적 도입과 새로운 농기구들의 창안 보급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기구의 생산 기업소들과 선진 기술을 실지 생산에 도입 적용하는 선진적 농민들의 목소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그들이 요구하는 품종과 사용하기 편리한 규격의 농기계들을 영농 시기에 맞게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기간에 농기구 생산 분야에서 중요한 결함은 농기구의 생산을 지방적 조건과 농민들의 수요를 고려함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진행한 그것이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그의 협동화、 선진 영농

방법 도입에 대한 농민들의 앙양되는 지향은 새롭고 다양한 설비들과 선진적인 농기계들을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기계의 그리 많지 못한 품종과 그의 생산량으로써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부단히 발전하는 농촌 경리가 어떠한 품종과 규격의 농기계들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포착하고 제품의 품종과 규격을 계속 확장하며 이를 생산하는 기술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부문의 일부 지도 일꾼들은 예견성 있게 사업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품종과 규격을 시달하고 그에 필요한 설계 도면과 자재 및 기타 기술적 조건들을 보장함이 없이 생산을 독촉함으로써 생산 조직과 기술 관리상 혼란을 초래케 하였으며 또한 농촌 경리의 수요를 시기적、 수량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농기계 제작 부문을 담당한 일꾼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더욱 구체적이며 분석적인 연구를 거듭하여 우리 나라 농촌 실정에 알맞는 개량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 제三차 대회에서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농기계 제작을 담당한 공업 부문 일꾼들은 이 사업을 시급히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에 가장 적당한 농기구들의 품종 및 규격을 결정하며 농기구의 생산과 보급을 락후한 영농 방법에 추종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률적인 농기구에 순응하여 영농 방법을 개선 적응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진행할 것과 농기구의 생산 수량을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민들의 주문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실천을 통하여 확인되고 설종된 개량 농기구의 우월성을 철저히 선전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로동 도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 경험、 로동 관습 및 제반 기술 기능을 가진 사람과 결합되지 않으면 생산력으로 전변될 수는 없는 것이다。

농기계 임경소 사업에서도 일련의 결합이 내포되여 있다。 농기계 임경소들은 그의 량적 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농업 협동 경리의 생산적 요구에 수응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농업의 협동화、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농기계 임경소 사업에서 중요한 결함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귀중한 기계들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며 또한 그가 수행한 작업의 질이 부분적으로 낮은 그것이다。 두 가지의 사정이 이러한 결함을 산생케 한 기본 원인으로 되고 있다。 즉 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정리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과 일부

기계 기술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그것이다. 그래서 금년부터 농기계 임경소들은 국내 생산으로 포전 정리용 불도젤을 공급받게 된다. 이것이 최대한으로 리용되여 기계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포전 정리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농민들 자체의 힘으로 포전 정리 사업을 적극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농기계 임경소 일꾼들의 책임성과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고 기계화 작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작업반에 작업 구역을 분담시키고 지대 조건에 적합한 작업 정량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급제를 실시하며 그들이 수행한 작업 결과(수확고)에 대하여 일정한 물질적 리해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 요구된다.

그 밖에 고장과 파손으로 인한 기계 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국내 생산과 농기계 일꾼들과 뜨락또르 운전수들의 기술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현유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며 기계화 작업 구역을 확장하며 그 작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앙양을 위하여 도시—공업으로부터의 농업에 대한 실제적 방조는 다만 농기계나 화학비료나 관개 설비 및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공업 부문이나 직접 생산적 방조를 주는 부문들에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다.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과 기업소들은 호상 의존하고 있다. 매개 부문들이 광범히 전문화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례컨대 비료를 제조하는 기업소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소에 직접 의존하며 제철 기업소는 탄광 기업소 등등에 의존한다. 만일 비료 공장에서 원료인 류화 광석을 비롯하여 기타 자재들의 원만한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생산 계획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방조는 이 부문과 관련된 인민 경제 각 부문이 옳게 보조를 맞추며 광범한 근로 대중이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라야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이것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앙양을 촉진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 동맹(카프) (하)

신 구 현

『카프』의 창건은 전체 진보적 작가들의 창조 사업을 고무 추동하였다. 그러나 『카프』는 창건 첫 날부터 안팎의 원쑤들과 투쟁하잖으면 아니되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가 가하여졌으며 그의 비호하에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카프』에 대한 중상이 로골화되였으며 『카프』 내에 잠입하였던 일련의 소부르죠아적 기회주의 분자들의 동요가 표면화되였다.

리 광수는 『계급 문학 시비론』(一九二五년)에서 『나는 계급 문학에 대하여 흥미조차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계급을 초월한 예술을 믿어 마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철저와 중용』(一九二六년)에서 『혁명은 병이다. …홍역이나 마마와 같이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면서 『카프』를 중상하여 나섰다. 김 동인도 같은 립장에서 『카프』를 비난하여 『예술은 인생을 위하여서도 아니요……예술가 자신의 금치 못할 예술욕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부르죠아 반동 작가 렴 상섭은 一九二七년 『신민』 二월호에서 『문학의 자본가 사회에서의 완성』을 잠꼬대와 같이 떠벌리면서 『카프』에 대하여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작가들이 조선 문학의 수련(修練) 기반(基盤)을 확립할 때까지 프로병에 걸리지 않았드면 여간 좋지 않았을 것이다. 백일도 못된 간난 아해가 태독에 걸려서 헐떡인다』(『신민』 二월호 一九二七년). 『조선 문학의 수련 기반의 확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곧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의 영원한 존속에 대한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

반동 시인 김 억은 一九二七년 二월 六일부 『동아일보』지면을 리용하여 마치도 『카프』 문학이 『작가의 개성이나 예술적 량심』을 무시하는듯이 외곡하고 『초

계급적 문학』을 설교하였다。

『「부르」니 「프로」니 하는 쓸데 없는 우상같은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목표를 숭배하는 것은……작가의 개성이나 예술적 량심으로 보아 잘못이 아닐까?』。

현대 부르죠아 미학은 상투적으로 예술가들의 의사와 개성의 절대 자유、예술의 현실과의 무관계、예술의 객관적 법칙과의 무관계를 선언한다。그들은 상투적으로 떠벌리기를 『작가들의 독립적 개성』이 작품을 창작하며 그들은 현실로부터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정서 어떠한 제약도 받잖는 자유 분방한 환타지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부르죠아 미학은 갖은 수단과 힘을 다하여 작가들의 『자유』를 고창한다。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다 허위적인 것이며 부르죠아적 무정부주의적 세계관의 표현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김억의 『작가의 개성、예술적 량심』도 결국 『카프』문학을 반대하기 위하여 고안하여 낸 부르죠아적 립장의 표현인 것이다。

아나키스트 권 구현、김 화산 등등은 『조선 문단』『별건곤』지면을 리용하여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예술은 인간 혹은 인간성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사회로부터、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사회와 계급에 예속되거나 허리를 굽혀서는 아니된다고 떠벌리면서 『프로 문학의 자유』를 주장하고 실지로는 『카프』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 앞에서 『카프』를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고 발악하였다。一九二七년에 들어 서면서 『카프』에 잠입한 일부 소부르죠아 기회주의 분자들은、『카프』는 예술 단체이지 정치 단체는 아니라고 요란스럽게 주장하면서 실지로는 반일 문학 예술 단체인 『카프』의 성격을 외곡하고 예술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성、일제 앞에서 『카프』의 굴복을 기도하였다。

『카프』안팎의 원쑤들의 이상과 같은 발악적 시도는 일반적으로 계급 투쟁의 발전의 결과며 동시에 『카프』진영내에서의 사상 투쟁의 발전의 결과다。『카프』문학의 고상한 사상성을 위한 조 명희、한 설야、리기영、송 영 등등 일련의 선진 작가들의 역할은 자못 컸다。

반일 문학 예술 단체로서의 『카프』의 목적과 프로레타리아 문학 예술의 필연성을 천명하는 일은 자못 의의있는 일이였다。한 설야는 일찌기 『프로레타리아 예술 선언』(一九二六・一・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계급 투쟁은 현대의 특징이요 미래 신 사회의 산과다。프로레타리아 예술도 이 과정의 필연적인 소산으로 다분히 투쟁적 요소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한 설야는 여기서 프로레타리아 예술이 현대 계급 투쟁 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과 그 예술은 혁명적이요 전투적인 예술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그러면 이 프로레타리아 예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한 설야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고 있다。

『예술은 이미 상아탑을 나서서 무장을 갖추고 전선으로 행진하는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일부대이여야 할 것이다。「사회를 위한 예술」——이것은 우리 프로레타리아 작가의 기치에 새겨져 있는 선언이며 강령이다』。

한 설야는 한편으로 『카프』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일부대이라는 것과 프로레타리아 예술이 『사회를 위한 예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딴편으로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의 『예술을 위한 예술』의 위선을 폭로하였다。

조 명희는 一九二七년 『조선지광』三월호 『생활 기록의 단편』에서 『타골류의 신 랑만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고리끼류의 신 현실주의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고리끼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현실주의다! 현실에 부닥치자。뚫고 나가자…이때껏 나는 생활 사실이 사상을 낳는지를 모르고 사상이 생활을 낳는 줄만 알았다…그러면 여기서 현실을 해부하고 비판하여 체험과 지식 우에다가 사상의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 아닐까!』。

조 명희의 『생활 기록의 단편』은 사실주의 문학을 원쑤들의 외곡 중상으로부터 옹호하는 선언서며 고•리•끼•류의 신•현•실•주•의、즉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선언서다。조 명희의 『생활 기록의 단편』은 『카프』작가들의 세계관의 발전 면모를 생동하게 뵈여 주고 있다。

조 명희의 『생활 기록의 단편』과 함께 주목할 것은 역시 같은 지상에 발표된 한 설야의 『계급 대립과 계급 문학』이라는 론문이다。한 설야는 조선 문학의 동향을 분석하고 계급 투쟁의 날카로운 반영으로서 프로레타리아 문학 발생、발전의 력사적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문학은 무엇보다도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량도체(良導体)다。금일의 계급적 동요、계급 대립을 반영하는 가운데서 프로 문학은 발생된 것이며 프로 계급의 발달을 따라 더욱 대두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카프』와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카프』 내외의 원쑤들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는 것으로 된다。

한 설야는 이 론문에서 이미 자신이 사용하였던 『사회를 위한 예술』의 개념상 불철저성을 비판하고 『인민 대중을 위한 예술』을 들고 나섰으며 이 문학은 계급 교양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원쑤들을 반대하는 예리한 투쟁 무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고상한 사상성을 위하여 작가들은 투쟁하여야 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르(부르죠아——필자 주)를 그렸다고 부르 작품이나 부르 작가가 아닌 것같이 단순히 프로(프로레타리아——필자 주)를 그렸다고 프로 작품이나 프로 작가가 아니다. 적어도 프로 의식, 계급 의식이 작가라는 개인을 통하여 그 작품에 번득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의식 여하에 있는 것이요. 취재 여하에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의식——이는 곧 맑스—레닌주의 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한 작가는 프로레타리아 작가로 될 수 없다. 오직 맑스—레닌주의 사상만이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 근로자들의 리해 관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오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만이 작가들로 하여 생활 현상을 심오하게 해명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것을 리해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내용이 충실하고 형식이 고상하고 예술적인, 아주 인민적인 작품을 창작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설야의 리론은 과학적이다. 한설야의 리론은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지론인 무엇에도 제약당하잖는 『개성의 절대성』의 위선에 대한 폭로로도 되는 것이다.

또한 리기영은 자기 문학을 『인류의 해방 운동을 무시하고 소위 예술 지상주의니 상아탑이니 예술에는 계급을 초월하느니』(조선지광 六三호)하는 부르죠아 학문과 대립시켰다.

조명희, 한설야, 리기영 등등의 론문들은 『카프』 내의 원쑤들의 정체를 드러 내는 도화선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작가들에게 주었으며 『카프』로 하여 목적 의식적 문학 예술에로의 방향 전환과 그를 위한 조직적 대책을 강구케 하였다.

이러한 조직—사상상 준비에 기초하여 一九二七년 九월에 『카프』는 재조직되였다.

『카프』는 맑스—레닌주의적 새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기관지 『예술 운동』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카프』는 일련의 불순 분자들을 축출하고 중앙을 정비 강화하는 한편 그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해내 해외의 중요 도시에 지부를 조직하였다. 강령에는 『우리는 무산 계급 운동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력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무산 계급 운동의 일부문인 무산 계급 예술 운동에 의하여 봉건적 자본주의 관념을 철저적으로 배격하고 전제적 정치에 항거하여 계급 의식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이 강령은 작가, 예술가들이 프로레타리아 운동의 력사적 필연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운동의 일익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 예술 운동의 당면 임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 강령은 프로레타리아 예술이 봉건주의와 부르죠아 반동 사상을 배격하고 팟쑈적 일제 통치에 항거하여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수행하는 인민의 계급 교양의 예리한 무기로 될 것

을 당면 임무로 제기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직 개편을 계기로 『카프』는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카프』는 그 맹원만 하더라도 급작이 장성하여 二○○여 명으로 되였으며 작가들의 창작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목적 의식적인 예술 문학에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기치하에 진행된 창작 활동에서 중요한 것만 들기로 하자. 一九二七——一九三○년 기간에 산문 분야에서는 조명희 작 『락동강』(一九二七), 한설야 작 『과도기』(一九二九), 『씨름』(一九二九), 리기영 작 『원보』(一九二八), 『제지 공장촌』(一九三○), 희곡에서는 송영 작 『인도 병사』(一九二七),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一九三○), 시 분야에 있어서는 박팔양 작 『데모』(一九二七), 박세영 작 『야습』(一九三○)…

이상 문학 작품들은 기왕의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면모들을 뵈여 주고 있다. 예술적 숙련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극문학의 대두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시기 문학의 특징으로서 첫째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다양한 주제 선택의 진실성이며 둘째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다.

다양한 주제 선택의 진실성은 발전된 력사적 현실 및 작가들의 선진적 세계관과 관련된다. 발전된 력사적 현실은 작가의 주제 선택에 있어서 풍부한 원천으로 되였으며 작가들의 선진적인 맑스—레닌주의의 세계관은 그들로 하여 생활 현상을 심오하게 분석하고 본질적인 것을 가리여 내고 아주 인민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인도 병사』, 『원보』 『과도기』 등 작품에서 봉건적,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로 피폐하고 계급 분화가 격심하여 가는 조선 농촌의 다양한 화폭,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반대하여 궐기한 농민들의 다양한 투쟁 형태를 뵈여 주었다면 『씨름』, 『제지 공장촌』,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야습』, 『데모』 등 작품에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와 그와 야합한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로동자들의 모습, 그들의 단결력과 희생 정신, 승리에 대한 신심이 묘사되고 있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이들 작품에는 일관하여 로농 동맹의 사상이 반영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상 사실은 『신 경향파』 문학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 문학 작품의 등장 인물은 『신 경향파』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인간 초상들이다. 물론 『신 경향파』 문학 작품의 긍정적 인물이 보유하고 있는 낡은 사회에 대한 격렬한 반항 정신, 개성에 대한 불타는 해방 사상은 이 시기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량자간 차이는 현저하다. 『신 경향파』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이 대개는 새 사회, 새 생활을 위한 투쟁을 지향하는 데 그쳤다면 이 시기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은 그 실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행동하는 인간들이다. 물론 『신 경향파』 시기의 리 기영 작 『쥐의 이야기』의 곽쥐도 탈피하면 곧 행동하는 인간의 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곽쥐는 공개적인 투쟁을 전개도 조직도 못한다.

『카프』 문학 작품의 긍정적 주인공들의 대개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적극적인 투사들이다. 『락동강』의 박 성운, 『원보』의 석봉, 『씨름』의 명호 등등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다.

새로운 인물의 형상 창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한 설야의 자매편이라 할 『과도기』의 창선과 『씨름』의 명호다. 한 설야는 이 두 인물 형상을 통하여 계급적으로 장성하여 가는 로동자들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로동자 명호는 어젯날의 농민인 『과도기』의 창선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인물을 조선 문학은 일찌기 가지여 본 적이 없었다. 이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로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뵈여 주었다. 그들은 애국자며 투사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열성적이고 락천적이며 결단성이 강하고 전투적인 인물이 바로 『씨름』의 주인공인 명호다. 『카프』 문학 작품은 이러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이러한 선진 투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 과정을 뵈여 주는 한편 근로 대중의 단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국심, 고상한 국제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리 기영은 단편 소설 『원보』에서 파업 투쟁에 참가하여 해고 당한 선진 로동자 석봉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농민 원보가 운명하는 장면 묘사를 통하여 무산 계급 운동에서 로동 계급의 선봉적 역할, 근로 대중의 단결, 로농 동맹 사상을 다음과 같이 뵈여 주고 있다.

『당신은 내 죽은 뒤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가서 그런 소리나 알려 주오』.

『락동강』에서 조 명희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과 그에게 령도되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필승의 신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력사는 한바퀴 굴렀었다. 놀고 먹는 계급이 생기고 일하여 먹여 주는 계급이 생기였다. …그 뒤에, 이 땅에는, 아니 이 반도에는 한 괴물이 배회한다. 마치 나래치고 다니는 독수리같이. 그 괴물은 곧 ○○○다. 그것이 지나치는 곳마다 기여가는 암나비 궁둥이에 수 없는 알이 쏟아지는 셈으로 또한 알을 쏟아 놓고 간다. …그 비 뒤에는 어떠한 날씨가 올 것은 뻔히 알 노릇이다』.

조 명희는 『공산당 선언』의 관점에서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묘사하려 하고 있다.

박 팔양은 五·一절을 노래한 그의 시 『데모』에서

납덩어리같이 무겁던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은 어째서 이처럼 가볍고 유쾌하냐

라고 읊으면서 벅차 오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고취하였다.

단결하라 만국의 로동자들이여!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一九二〇년대 후반기 『카프』 문학 작품은 주제의 진실성, 사회주의 리상으로 불타 오르는 새 형의 인간 형상 창조, 프로레타리아 혁명 관점에서의 생활 묘사로써 특징질 수 있다. 『카프』 문학은 『신 경향파』 문학의 면모를 발전된 력사적 현실에서 일신하고 있으며 자기 강령 실천에 수응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길을 발전시켰다.

짧은 기간에 『카프』가 거둔 빛나는 성과는 일제의 폭압과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중상과 『카프』 진영 내의 우연 분자, 이색 분자들의 파괴 음모와 일체 자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의 고귀한 산물이였다. 이미 강령에도 명시된 바 이 투쟁은 곧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위한 투쟁이며 문학 예술의 계급성, 인민성을 위한 투쟁이였다.

일제의 폭압하에 『카프』는 사실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 비호하에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발악적인 도발도 극심하여 왔다. 내부에서는 박 영희, 김 기진, 림화, 백 철 등등 일련의 배신자들의 파괴 음모가 은연중에 진행되였다.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은 한결같이 『예술을 위한 예술』, 『민족 문학』이라는 구호 밑에 문학 예술의 무계급성, 무사상성, 정치적 무관심성을 되씹어 던지며 『카프』 문학에 대하여 갖은 악질적인 비방을 감행하였다. 박 종화는 『대전 이후의 조선 문예 운동』(一九二七년 七월)에서 전체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카프』 문학을 『아직 참다운 작품이 없다』, 『그 존재 여부까지도 아는 사람이 적다』라고 허위적인 중상을 퍼부었으며 정 로풍은 『조선 문학 건설의 리론적 기초』(一九二九년)에서 소위 『민족 문학』이라는 기치 밑에 『카프』를 반대하고 문학 예술의 무계급성, 정치적 무관심성을 주장하여 나섰다.

『조선 문학의 건설은 결코 실제 운동으로 관철될 것이 아니라, 작가 활동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실제 운동』이란 정치 운동으로, 문학은 정치 밖에 있어야 하며 초계급적인 것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 로풍은 문학의 정치적 무관심성을 주장함으로써 반일 문학 예술 단체로서의 『카프』와 그 문학을 반대하고,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고 있다. 양 주동은 『국민 문학과 무산 문학의 제 문제를 검토 비판함』

(一九二九년)이라는 데서 『조선주의』, 『민족 의식』이란 가면을 쓰고 『카프』에 적대하여 나섰다. 『카프파 비평가들은 문학상의 **조선주의**를 배격하고 **민족 문학**을 반대한다. **롱담인가? 고의인가?** 계급 문학을 선양하기에만 급급하며 **민족 의식**을 고의로 방기코저 하는 가증한 시대 변환자들이여!』(방점은 필자의 것).

렴 상섭도 『조선 문학의 현재와 장래』(一九二九년)라는 데서 『신 문예 운동의 리상은 국민 문학에 있다』라고 떠벌리면서 결국은 전자들과 같은 소리를 되씹고 있다.

부르죠아 제도하에서 『민족 문학』의 표어를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그 민족적 형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죠아적 내용을 공격한다는 프로레타리아 문화의 정당한 립장을 이들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은 외곡하고 중상하는 것이다.

이들 반동 작가들의 『조선주의』, 『조선 문학』, 『국민 문학』의 표어는 조국도 인민도 모르는 이들의 반동적, 반인민적 립장을 은폐하기 위한 수작인 데 불과하다.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의 도전과 함께 『카프』 진영내에 잠입한 이색 분자들도 사상상 혼란을 조성시키고 『카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부하린적 아나키즘적 문예 리론을 극복하고 맑스주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카프』의 투쟁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아나키스트 김 화산, 권 구현, 리 량 등의 정체는 폭로되였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박 영희, 김 기진, 림 화 등등 배신자들은 『카프』의 지도부내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리용하여 『프로레타리아 문학 예술의 시기 상조』(박 영희), 『변증적 사실주의』(김 기진), 『사회적 사실주의』(림 화) 등등 표어를 공공연히 내걸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반대하고 문학에서 투항주의를 설교하여 나섰다. 이들 량면주의자들은 자연주의 문학을 반대하는 듯 하면서 김 동인, 렴 상섭 등의 작품을 진정한 사실주의적 문학으로 찬양하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옹호하는 듯 가장하고 『카프』 문학을 반대하여 나섰다. 한 마디로 말하여 『시기 상조론』, 『변증적 사실주의』, 『사회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를 반대하는 기치며 자연주의와 부르죠아 반동 문학을 지지하는 기치다.

김 기진은 자기의 『변증적 사실주의』(一九二九년)에서 일제의 폭압이 로골화되여 가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변증적으로** 순응하여 『문학은 그 정도를 수그려야 한다』라고 떠벌리였다. 『정도를 수그려야 한다』함은 『카프』 문학의 사상성을 거세하라는 것이며 적앞에 투항하라는 것이다. 김 기진은 계속하여 자연주의 문학을 『엄숙하게 사물에 대하고 인생을 있는 그대

로 객관적으로 해부하고 리상을 동경하지 않고 랭정, 염정, 진취의 태도를 보인』 진정한 문학이라고 외곡하면서 『렴 상섭, 김 동인 량씨의 작품이 조선에 있어서 대표적 레알리즘의 작품이였다』라고 고아댔으며 리·광수의 『철저와 중용』의 반동 리론을 지지하여 나섰다.

김 기진의 이러한 립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퇴폐적인 『백조』 동인 시대는 물론, 그의 『탈퇴』를 선언하고 사실주의 문학에로 방향 전환을 『맹세』한 후에도 그는 반동적 립장을 버리지 않았다. 실례로 一九二七년 『조선지광』 三월호 『문예 시평』에서 렴 상섭, 김 동인을 『그 립각점을 사실주의에 두고 따라서 그 표현이 자연주의적인 문예관, 인생관』을 가진 탁월한 작가로 떠받들었던 것이다.

김 기진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론단을 리용하여 악의에 가득찬 수다한 론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카프』 작가들이 정도를 수그리여 렴 상섭, 김 동인을 따르라는 데 돌려져 있다. 『카프』 문학에 대한 이러한 중상은 김 기진으로 하여 『카프』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의식적으로 중상하는 데로 그 필봉을 돌리게 하였다. 례를 들어 김 기진은 『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一九二九년 一二월)에서 『카프』의 고귀한 성과를 부정하였으며 조선 문학사에서 고귀한 성과인 『과도기』, 『씨름』을 중상하여 『첫째, 대중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둘째, 대중은 그것을 본다 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를 반대하는 표어로서의 『사회적 사실주의』의 『창안자』는 바로 악명 높은 림 화다. 림 화는 『탁류를 향하여』(一九二九년 六월)에서 김 기진의 『변증적 사실주의』를 『반대』하는 것같이 가장하고 실지로는 김 기진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다. 림 화는 벌써 이 때에 일제의 밀정으로 『카프』를 파괴하려 기도하였던 것이다.

『변증적』이라는 말과 『사회적』이란 말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변증적』이 고개를 숙이라고 설교하고 있다면 『사회적』은 계급적 내용을 버리라고 설교하고 있으며 완전히 이음 동의어(異音 同意語)로서 투항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이것은 일제와 부르죠아 반동 문학이 추구하는 길로서, 김 기진, 림 화는 이 길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이상, 조선 문학의 온갖 원쑤들의 암해 공작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였다. 이는 나라에 혁명적 위기가 조성되며 있다는 것, 계급 투쟁이 첨예화되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카프』가 문학의 계급성, 당성을 위하여 『볼쉐비즘론』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투항주의, 문학의 반혁명적 표현을 반대하여, 딴편으로는 고상한 당성을 위하여 투쟁하여 나선 것은 정당한 일이였다.

「카프」는 반일 투쟁에서 자기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학 계층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하였으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리하여 一九三〇년대에 들어 와서 많은 동반 작가들이 배출되였다。

一九三〇년대에 들어 와서 일제 식민지 정책은 팟쇼적 폭압과 략탈의 성질을 띠고 보다 한층 강화되였다。 일제는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 말살하여 나섰다。 일제는 또한 조선인 지주、예속 자본가、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로부터 민족을 분렬하고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여 나섰다。 일제는 유일한 반일 문학 예술 단체인 「카프」에 대하여 폭압을 가하는 한편、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을 매수 발동시키여 「카프」를 중상 공격케 하고 「카프」내의 온갖 기회주의 분자들을 공갈과 회유로 매수하여 가지고 내부로부터 와해 공작을 진행시키였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적응하여 「카프」는 조직—창작상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였다。 조직적 대책으로 「카프」는 문학、연극、미술 등 부문별 동맹체로 개편되고 각 부문의 독자적 활동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아울러 「카프」는 기관지로 「문학 창조」、「연극 운동」、「집단」을 발행하는 한편、극단으로 「신 건설」을 운영하였다。 「카프」는、딴편으로는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비 양성에 주의를 돌리여 문학 청년들의 예술적 수완을 지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직 사업과 병행하여 창작의 사상적、예술적 수준 제고에 대한 사업도 진행되였다。 창작 방법상 문제로 과거 문학 활동에서 박 영희、김 기진 등의 루나챨쓰키적 편향주의、도식주의가 엄격히 비판되였으며 김 기진의 「변증적 사실주의」、림 화의 「사회적 사실주의」 등 반사실주의적、반동적 문학 리론이 비판되였다。 딴편으로 주제의 적극성、형상화 문제、예술적 숙련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문학 예술 창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일제 경찰은 제一차(一九三一년)、제二차(一九三四년)에 걸치여 「카프」 산하 진보적 작가들을 체포하고 투옥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리 태준을 중심으로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 그루빠인 「九인회」가 조직되였다。 이 집단은 일제의 직접적인 배려에 의하여 조직된 일제 어용 문학 단체이였다。 일제는 이 단체를 통하여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였다。

첫째는 「카프」와 그 문학을 중상하고 말살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자는 것이며、둘째는 「내선 일체」、「황민화」 사상을 선전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민족 의식을 마비시키고 노예 사상을 그들에게 부식하자는 것이다。 이 단체는 조직된 첫날부터 이를 실천하기에 광분하였다。

「카프」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이상과 같이 폭압을 가하는 동시에 박 영희、김 기진、백 철、림 화、김 남천 등 변절자、이색 분자들을 추동하여 내부로부터 「카프」를 중상하고 그의 해소를 주장케 하였다。 이들 변절자들은 일제가 부과한 「임무」를 충실히 실천하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제의 폭압도、갖은 술책도 혁명 투쟁에서 견고하여 진 「카프」의 고상한 전통을 파괴할 수 없었다。 이 고상한 전통과 변경된 력사적 현실에 대치하여 베풀어진 「카프」의 일련의 조치들은 능히 반동적 공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카프」의 흉악한 원쑤인 백 철은 一九三三년 九월에 「인간 묘사 시대」라는 론문을 발표하였고、박 영희는 一九三四년 一월에 「최근 문예 리론의 신 전개와 그 경향」이라는 론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론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같은 것이다。 즉 이 론문의 목적은 박 영희의 말을 빌면 「「카프」의 재 인식」 곧 「카프」와 그 문학을 부정하는 데 있다。 이들은 「카프」 문학이 마치 개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듯이 외곡하면서 생활과 집단을 부정하는 그들의 반사실주의적 립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박 영희는 같은 론문에서 「카프」 문학을 중상하여 「다만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며、상실한 것은 예술 자신이다」、「동결만 남은 나무가지 모양으로 골자만 남은 이데올로기의 예술적 가장」이라고 떠벌리였다。 여기서도 박 영희는 「카프」 문학이 그 예술성을 도외시한듯이 외곡하면서 사상성을 부정하는 반동적 형식주의 립장을 변호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도적이 제 발이 저리고」 「불 지른 놈이 불야」하는 격으로 문학에서 개성을 무시하고 예술성을 도외시하고 그를 선동한 자가 바로 이 자들이라는 것이다。 례를 들어 문학의 내용과 형식 문제를 가지고 리론 투쟁이 전개되던 一九二七년에 박 영희는 「프로레타리아 문예는 문예적 표현 방식의 제 요구를 요구치 않는다」라는 내용 편중의 극좌적 오유를 범하였고 그렇게 작품(「사냥개」、「지옥」、「순례」、「전투」)을 써서 그의 자연주의적 립장과 더불어 랭혹한 비판을 받았던 자다。 자기 자신이 저질은 과오를 전체에다 즉、「카프」에다 전가시키면서 박 영희는 형식주의를 설교하는 것이다。 이는 항상 기회주의자들의 상투 수단으로 되여 있다。

「카프」의 변절자들과 맞장구를 치면서、부르죠아 반동 작가들도 요란스럽게 「카프」를 중상하여 나섰다。 「해외 문학파」의 정 인섭은 「조선 문단의 현 단계적 수준」(一九三五년 一월)에서 「카프」의 소위 「一七개조 오유」를 날조하여 냈으며 박 영희의 상기 립장을 지지하면서 「그 (박 영희)의 성실한 고백에는 많은 고려와 연구의 자취가 보이며 세계 문단의 현단계적 동향에 일맥 통하는 적당한 자기의 참회문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였다。

내외의 원쑤들의 『카프』에 대한 중상과 그들에 의하여 요란스럽게 론의되였던 『카프』 해소론은 창작 실천과 제一차 쏘베트 작가 대회 문헌 연구、특히 一九三二——一九三四년에 걸치여 진행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 연구 과정에서 폭로되였으며 박 영희 등 일련의 변절자들의 축출과 관련된 조직상 대책으로 『카프』는 조직 사상적으로 오히려 강화되였으며 창작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제는 드디여 강압적으로 『카프』에 대하여 강제 해산을 선언하였으며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과 『카프』 변절자들에게 계속 『카프』를 공격할 것과 『내선 일체』사상을 고취하고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인민들 속에 퇴폐와 타락、자족과 굴종의 노예 사상을 부식하는 작품을 쓰라고 추동하였다。리 태준이 『령도』하는 『九人會』(구인회)는 『狗人會』(구인회)로 일제의 주구(走狗)의 사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었다。

박 영희는 『카프』가 강제 해산 당한 후 일제의 충직한 주구로서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조금도 꺼리잖았다。一九三六년 一월 『비애와 성사』에서 그는 『모든 문학자는 맑스주의를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웨치여댔다。『권태에 지친 최근 평단』(一九三六년 七월)에서 그는 『문단은 군대가 아니며』 따라서 『각자는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다』라고 짖어대면서 개인주의、신비주의、퇴폐주의를 찬양하여 나섰다。『변증적 사실주의』의 창안자 김 기진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반대하여 로써야의 『라프』가 범한 『변증법적 유물론적 창작 방법』을 들고 나섰으며、림 화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반대하고 『카프』해산을 정당화하는 론문『랑만 정신의 현실적 기초』(一九三六년)와 『사실주의의 재인식』(一九三七년)을 공개하였다。림 화는 첫째 론문에서 로만찌까를 위하는듯 하면서 사실주의를 부정하고、둘째 론문에서 사실주의를 위한듯 하면서 로만찌까를 부정하고 결국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시집 『현해탄』은 바로 이러한 립장에서 씌여진 것이다。림 화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헛소리를 치면서 『공식주의에 얽매여 알지도 못하는 령역의 생활을 추상적으로 엮어 놓』은 것이 『카프』 문학이였다 라고 로골적으로 『카프』를 중상하였다。그가 맑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공식주의로 선언하였다는 데서 『문학가는 맑스주의를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웨친 박 영희의 립장과 일치하고 있다。이상 『카프』 변절자들의 장단에 발을 맞추어 부르죠아 반동 문학가들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하여 더욱 군소리를 늘어 놓았다。『극단 진흥책』(一九三七년 六월)에서 『해외 문학파』의 한 사람이며 반동적 극작가인 류 치진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에 그치지 로만찌까를 모르는 불완전한 창작 방법이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외곡 부정하고 있다。일제 주구 최 재서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계급의 주관이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실주의가 될 수 없다』라고 수선을 떨었다。『카프』의 흉악한 원쑤들은 한결같이 소위 『완전한 사실주의』라는 구호 밑에서 사실주의를 반대하고 자연주의를 례찬하고 있다。이 기간에 리 광수、리 태준、김 동인、방 인근、림 화、김 남천 등등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과 『카프』 변절자들이 역시 『창작 활동』으로 일제에 충실히 복무하였다。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고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하여 리 광수는 『흙』을 썼다。일제의 중국 침략을 합리화하고 조중 인민의 국제주의 친선을 파괴하기 위하여 리 태준은 『농군』을 썼으며 패덕과 에로찌즘으로 조선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기 위하여 『청춘 무성』、『딸 삼형제』를 썼다。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며 적들 앞에서의 투항과 굴종을 설교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애수와 비관、절망과 타락으로 매혹케 함으로써 인민을 부르죠아 반동 사상의 심연에다 몰아 넣기 위하여 리 태준은 『제二의 운명』、리 광수는 『사랑』、림 화는 시편 『현해탄』을 엮었다。원쑤들의 반역적 행동은 一九四〇년대에 일제가 만든 『문인 보국회』를 통하여 더 악랄하게 진행되였다。그러나 원쑤들의 발악도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조선 인민을 진압하기에 무능하였던 것처럼 『카프』의 전통을 말살하기에도 무능하였다。

원쑤들의 온갖 박해를 반대하는 힘에 겨운 투쟁 속에서 선진적 『카프』 작가들은 『카프』의 고상한 전통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창작 활동에서 그 전통을 발전시키고 불후의 명작들을 창작하였다。

一九三〇——一九四五년 기간에 산문 분야에서 리 기영은 중편 소설 『서화』(一九三二년)、장편 소설 『고향』(一九三三년)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명작들을 썼으며、한 설야는 장편 소설 『황혼』(一九三六년)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명작들을 창작하였다。『카프』의 영향하에 강 경애도 장편 소설 『인간 문제』를 창작하였다。시 분야에서 안 룡만은 『강동의 품』(一九三四년)、『생활의 꽃포기』(一九三七년)를 비롯하여 많은 시편들을 창작하였으며、박 세영은 『산제비』(一九三六년)를、박 팔양은 『승리의 봄』을 창작하였으며、희곡 분야에서 송 영은 『황금산』(一九三七년)、『김 삿갓』(一九三八년)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 『카프』 문학은 계속 발전의 길을 걸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특징들을 뵈여 주고 있다。그것은 첫째로 작가들이 실지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튼튼히 립각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모든 작품이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근로자들의 리해 관계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생활 현

상이 심오하게 해명되여 있으며 새로운 것, 사회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놓지지 않고 정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되며 묘사된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일정한 측면들과 특질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조선 근로 인민의 사상, 미학적 견지에 비추어 작품에다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례를 들어 리 기영은 『고향』에서 원터 마을의 농민 생활의 제반 특징을 보존하고 이를 형상화함으로써 一九二〇년대의 조선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소작 쟁의와 로동자들의 파업을 유기적으로 련결된 상태에서 형상화함으로써 그 시기 새로운 현상, 즉 사회 발전의 새로운 추세로서의 로동 운동의 장성, 로농 동맹의 강화를 놓지잖고 있으며 농민 운동외 진정한 지도자로서 공산주의자들의 풍모를 주인공 김 희준을 통하여 뵈여 주고 있다.

한 설야는 『황혼』에서 일제에 의한 『산업 합리화 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이를 형상화함으로써 一九三〇년대 조선의 로동 계급의 투쟁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유기적으로 련결된 상태에서 형상화함으로써 그 시기 새로운 현상, 사회 발전의 새로운 추세로서의 계급 투쟁의 첨예화 과정을 놓지 잖고 있으며 투쟁에서 단련된 투사로서 준식이란 초상을 만들었다. 김 희준이 선진적인 인테리 출신이라면 준식은 혁명적인 로동자 출신의 투사다. 이들 투사들의 영향하에 인민들이 계급적으로, 사상적으로 장성하여 가는 면모를 『고향』은 인순, 방개와 같은 녀성을 통하여, 『황혼』은 주인공 려순의 형상을 통하여 정당하게 뵈여 주였다. 이는 一九二〇—一九三〇년대 로동 운동의 발전 수준과 모순되지 않는다. 우에서 렬거한 안 룡만, 박 팔양, 박 세영의 시편들에서도 로동 운동의 장성, 그들의 벅차오르는 투쟁 정신이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이 관통하고 있다.

둘째 특징은 현실 생활의 급격한 발전에 상응하여 산문 분야에서 장편 소설 양식이 발전 개화된 사실이다. 이것도 작가들의 세계관의 발전, 그들의 예술적 솜씨의 발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주제의 진실성과 다양성이다. 로동과 투쟁에 관한 주제와 더불어 력사적 주제도 광범히 선택되였다.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이 력사적 주제에 의하여 인민들에게 복고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려 하였다면 (리 광수의 『단종 애사』, 김 동인의 『운현궁의 봄』) 『카프』 작가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성격의 긍정적 측면을 천명함으로써 조선 인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주의 사상을 배양할 목적으로 이 주제를 광범히 리용하였다. (한 설야 『탑』, 리 기영 『봄』, 송 영 『김 삿갓』…).

마지막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작가들이 객관적 현실을 혁명적 발전 행정에서 자기의 성격과 재능에 따라 정당하게 묘사하면서 예술적 형식에 있어서 일정한 독자적인 경지들을 개척하고 있는 점이다. 『카프』의 원쑤들은 『카프』 문학을 중상하여 개성을 무시하고 있다느니 모두가 천편 일률식으로 『한쪽의 신문 보도』에 의하여 씌여진 『동결만 남은 나무 가지』와 같다고 하였으며 『개성의 탈환』을 웨치여 댔다. 이들 부르죠아 반동 작가들은 작가와 그 작품의 독자성을 『개성의 탈환』으로 설명하려 한다. 사실은 그와는 반대다. 독자성이란 객관적 진리를 외곡하지 않고 각자의 성격과 재능에 따라 묘사하려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제반 특징을 분간할 수 있게 하며 작품에서 그것들을 정당하게 형상화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작가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제약된다. 『고향』과 『황혼』을 같다고 볼 수 없다. 김 희준과 준식을 같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스찔에 있어서도 『고향』과 『황혼』은 각각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모든 점으로 보아 一九三〇—一九四五년에 조선의 사실주의 문학은 그 사상성에 있어서나 예술성에 있어서 한 시기를 획할 정도로 크나 큰 발전을 하였다.

그러면 온갖 원쑤들이 있는 힘을 한데 련합하여 가지고 도전하던 극히 곤난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작가들을 고무 추동하였는가? 그것은 인민 대중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았으며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 구호를 결부시키면서 장성되는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된 김 일성 동지의 항일 빨찌산 운동이였다. 『카프』 산하 작가들은 빨찌산 투쟁에 고무되면서 선행한 고귀한 유산을 계승하고 선진적 로씨야 및 쏘베트 문학의 제 성과를 계속 연구하고 섭취하여 창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부르죠아 반동 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카프』의 승리는 또한 사회주의의 길의 승리였다. 『카프』 문학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서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절실한 리해 관계를 반영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새 날을 뵈여 주었으며 그를 위하여 투쟁하는 길을 형상화하였다. 이것이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인민으로부터 절대 지지와 사랑을 받게 하였다. 일제는 『카프』 조직을 강제 해산하고 부르죠아 반동 문학은 『카프』를 백방으로 중상하기에 광분하여 나섰으나 인민들의 피와 살속에 침투되여 있는 『카프』의 고상한 전통은 그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

* * *

이상에서 우리 문학의 고상한 혁명적 전통인 『카프』 문학이 일제의 팟쇼적 폭압과 그와 야합한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을 반대하여 전개한 투쟁 과정과 그의 고

귀한 업적을 개괄하였다。이 개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요약하여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카프』는 첫째로 첫날부터 반일 문학 예술 단체로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관점에서 로동 운동、계급의 리해 관계와 조선 인민들의 리해 관계를 정당하게 반영하면서 투쟁에 궐기한 인민의 계급 교양의 친근한 교사로 복무하였다。

다음으로 『카프』는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고무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목적 의식적인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카프』 문학의 발전 과정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 발전 과정과 유기적 련관성을 가지고 있다。

세째로 『카프』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적 예술 방법에 립각하여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온갖 반사실주의적 경향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였다。

마지막으로 『카프』는 각 쟌르에 걸치여 사상성에 있어서나 예술성에 있어서 고상한 문학 유산과 전통을 남기여 놓았다。문학 작품의 고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위하여서 『카프』와 그 작가들은 지나간 고귀한 사실주의적 전통과 로씨야 및 쏘련과 기타 나라들의 고전 작가들과 작품들을 중요시하였으며 실지 창작에 리용하여 불후의 많은 걸작을 남기여 놓았다。

이상과 같이 『카프』가 남긴 업적은 거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도 림 화、김 남천、리 태준은 그의 반역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카프』의 전통을 계속 외곡 중상하였다。

림 화는 허위와 기만과 중상으로 가득찬 위조 문헌인 『조선 문학』에서 『카프』 문학을 공격하여 『카프』가 『그 문학 리론에 있어 쏘련 랍프가 범한 사상적 창작적 오유를 범하였으며 일체 애국주의적 작가들을 민족 해방 운동에 궐기시키고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예술의 계급성과 정치성을 강조하면서 예술성을 등한시하는 등 오유를 범하였다』고 쓰고 있다。이것이 모두 악의에 찬 허위 날조라는 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다。이 잡패대는 림 화도 포함하여 박 영희、김 기진、백 철、리 태준 또배들이 일찌기 해방 전부터 『카프』를 중상할 때 상용하던 말이다。리 태준도 『카프』 전통에 대하여 악의로써 계속 대하였는 바 그 실례로서는 그의 『신 문장 강화』를 들 수 있다。

『카프』의 전통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듯이 문제는 엄중하다。오늘날 림 화、리 태준、김 남천의 반동적 본질은 폭로되였다。그러나 문제는 장시간에 걸치여 그들이 끼쳐 놓은 악영향인 것이다。이 악영향은 일조 일석에 청산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여기에는 꾸준한 투쟁이 필요하다。우리 당 제三차 대회의 정신을 받들어 이미 금년 一월 一八일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에 제기된 과업을 자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당 생활 경험

설비 리용률 제고와 로력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의 당 단체들의 역할

홍남시 당 위원장 김 증 삼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우리 당 제三차 대회는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륭성 발전과 우리 혁명 승리의 전망을 밝혀 주었다。

홍남 지구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은 전체 조선 인민과 더불어 우리 당 제三차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창조적 로력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에 의하여 홍남 지구의 기업소들은 三개년 계획을 금년 四월말에 이미 一〇二·七%로 완수하였으며 년말까지에는 그를 一八三%로 초과 완수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을 받들고 창조적 로력 투쟁에 궐기한 홍남 지구 로동자들이 로력을 절약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 과업은 로력을 절약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서에는 『현 시기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근본적 조건으로 되며 우리 공화국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초적 조건으로 된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특히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에 필요한 화학 비료의 증산을 위하여 홍남 비료 공장의 류산 암모니야 공장을 완전히 복구하며 질안 암모니야 공장을 신설하며

본궁 화학 공장을 완전히 복구하여 석회 질소 비료 생산을 증대하며 염안 및 린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一九六一년도에 가서는 화학 비료 년산 四〇만톤 이상을 생산 보장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건설과 생산을 병행시키면서 생산의 내부 예비들을 되도록 완전히 동원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소들의 현존 설비 리용률을 더욱 제고하며 기대당 생산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그것이다.

현존 생산 능력의 효과적 리용은 추가적인 기본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생산 제고의 물질적 토대이다.

만일 흥남시 당 관하의 기업소들에서 기대당 생산 능력을 높이며 설비 리용률을 보다 제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보다 많은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의 전체 부문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또는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일찌기 레닌은 로동 생산 능률—이것이 새로운 사회제도의 승리를 위한 가장 주되는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이 교시는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밟아야 할 길을 정확히 규정지어 주는 것이다.

인민 경제에서의 기술적 진보, 보다 합리적인 사회적 로동 조직, 보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 —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의 생산 발전의 승리적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기술의 가일층의 진보와 이에 기초한 로동 생산 능률의 체계적 장성을 위한 투쟁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 토대로 되는 것이다.

지난 기간에 흥남시 당 위원회는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기초하여 관하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의 발전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 오늘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기업소들의 설비는 완전히 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로동의 기계화, 합리화, 선진적인 작업 기준량의 도입, 기술 관리 사업의 제고, 엄격한 생산 질서의 확립 등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방대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천들의 리용은 아주 불만족한 상태에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은 우선 생산의 부단한 기술적 장성, 보다 새로운 생산적인 기계의 체계적 도입, 로동의 기술적 장비의 강화 등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흥남 지구의 생산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는 당과 정부의 옳바른 시책과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들의 기술 경제적 원조에 의하여 이러한 원천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생산 기업소 및 건설장의 지도 일군들은 목전의 생산 일면에만 치중하면서 이 원천을 동원 리용하는 데 주의를 적게 돌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서는 방대한 수의 기계와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 능력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계 설비에 대한 정기적 보수 점검을 하지 않고 설비를 혹사 파손하며 예견성 있는 기능공 양성 대책과 로동자들에 대한 표준 조작법 교양 사업을 차요시하고 계획적인 생산 준비도 없이 돌격식으로 생산을 지도함으로써 설비를 혹사하거나 로력의 랑비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로동 생산의 이와 같은 랑비를 묵과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러한 현상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로동 생산 능률의 본격적인 장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방대한 장성에 로동력을 수응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공업과 건설 규모의 급속한 장성은 막대한 로동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로동력을 공급해 주어야 할 농촌의 형편을 본다면 공업 부문에 농촌 로력을 인입하기는 고사하고 농촌 자체에서도 로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생산과 건설의 많은 부문은 앞으로 로동력의 절대적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달성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며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작업 규준량을 정확히 규정하며 로임 지불에서의 평균주의를 퇴치함으로써 로력을 절약하는 동시에 기술 기재를 합리적으로 또 능숙하게 리용하는 문제는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서의 일상적인 과업이다.

그런데 이 과업 수행에서 많은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발로하고 있다. 일부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서는 로력의 랑비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배정된 수다한 기계들과 수입 기계들이 충분히 리용되지 않고 일부 기계들은 창고에서 묵고 있는 현상들도 있다. 생산 조직의 불합리와 기술상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기계와 설비들이 현저한 정도로 작업에 리용되지 못하고 있다.

설비 리용률 제고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일군들의 옳바른 사상 관점, 국가 경제 일군다운 책임성이 미약하며 사업에서의 비조직성, 관리의 미숙 및 비경제적 행위의 결과에 발생된 것이다.

생산과 건설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당 관하의 각급 당 단체들은 이를 낳게 한 원인과 일군들의 사상적 약점을 극복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상 사업과 조직 정치 사업을 옳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결과에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에서 침체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선진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제의들과 창

발적 의견들이 다수 경우에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기업소들은 선진 경험의 보급 사업을 계통적으로 추진시키지 못하고 이 사업에서 방관적 태도를 취하였다。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 경험 보급 사업에는 아직도 많은 허식과 형식주의가 있다。 례컨대 기업소의 현실과 잘 결부되지 못한 기술 강연、 선진 경험을 보급하기 위한 경험 교환회、 기술 전습회 등이 많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서 로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계층과 수준을 가리지 않고 로동자들의 사상 동태를 고려함이 없이 일반적인 제강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으로부터는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리익을 얻어 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설치된 기계 설비들은 우리 나라의 가장 고귀한 물질적 재산이며 이는 인민 경제 발전、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 밑천이다。 우리의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서의 생산 활동은 이 기계 설비들에 의하여 진행되는만큼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는 곧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의 절대량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서 생산 예비 동원의 주되는 관심과 력량도 이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존한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여 설비의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 지도에서의 기관 본위주의、 공명주의、 사업에서의 무책임성과 안일성을 극복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 투쟁이 동반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당 단체들과 경제 기관의 일부 일군들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경제 지도에서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지도 작풍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소의 매개 설비들의 가동 상태가 어떠하며 그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연구 분석하지 않고 당면한 생산 일면에만 치중하면서 목전에 부닥친 일들을 림시적 조치로써 해결하는 데만 만족하였다。 이러한 일꾼들은 기계 가동률이 나쁘며 귀중한 기계 설비들이 사장되고 있어도 이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며 응당한 책임 추궁과 적절한 지도 방조를 주기 위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자기의 담당 작업과 능력에 있어서 각이한 매개 기계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생산 행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될 수 없으며 기술 관리 사업과 엄격한 생산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홍남시 당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관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에서 전망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 계획 밑에 설비 리용률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 지도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우선 홍남 지구내의 기업소 건설장들이 처하고 있는 특수성에 기초하여 매개 기업소들의 호상 유기적 련계를 강화하며 매개 공정 기대간의 능

력 발란스를 옳게 분석 검토한 기초 우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추켜 세우기 위한 집중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업소내의 모든 설비들이 정상적、 균형적으로 가동되도록 기업소들이 경제 기술적 력량을 조직 동원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집체적 지도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당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경제 사업과 정치 사업을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가장 요긴한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는 데 당의 지도 력량을 집중적으로 포치하고 생산 및 기술 부면에서 곤난한 문제를 대중 앞에 제기하여 그를 해결하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지도를 대중 속에 더욱 접근시켰다。

이와 함께 시당 위원회는 대중들에게 우리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와 四월 전원 회의 정신을 더욱 깊이 구체화시키며 생산 및 기술 발전에서 항상 새 것을 조장 발전시키며 낡은 것을 배제 극복하는 우리 당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정신으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였다。

결과에 기업소내 당 단체들은 일부 일군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생산과 건설 부면에서 낡은 경험을 고집함으로써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을 저해하는 현상을 퇴치함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당 단체들은 생산과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의 구체적 실정을 연구 파악함이 없이 일반적 호소로써 조직 정치 사업을 대치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상 결함을 적발하는 데만 치중하였다。

물론 사업상 결함을 적발 폭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또 필요한 방조 형식이다。 그러나 경제 지도에서 결함을 적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유일한 방조로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생산과 건설에서 결함을 낳게 한 원인을 구명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 실시함으로써 광범한 로동자들을 이에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당 단체들의 활동이 생산에 깊이 침투되여야 하며 그의 조직 정치 사업이 로동자들의 생활과 정서를 옳게 료해 파악한 기초 우에서 로동자들에게 방조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기업소내 당 단체들은 자기의 특성과 구체적 조건하에서 국가 계획 과제를 지표별로 완수하며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중을 발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홍남시 당 위원회 산하의 많은 당 단체들은 지난 기간 당의 조직 사업을 생산에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로력 절약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그를 호상 일반화함으로써 생산 지도에서 적지 않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 시당 위원회의 고귀한 경험이며 시당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경제 지도에서 시당 위원회가 견지한 이상과 같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기업소내에 존재하는 결함을 시정하고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소내 당 단체들의 조직 정치 사업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당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옳게 가지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흥남 지구에는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본궁 화학 공장、룡성 기계 공장、요업 공장 등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화학、건재、기계 공업 기업소들과 기타 건설 사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시당 위원회는 중공업의 우위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기초하여 룡성 기계 공장 당 단체들의 사업을 연구 분석하고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강화 할데 대한 구체적 지도 사업을 진행하였다。

룡성 기계 공장은 비료 공장의 복구 건설에 필요한 기계 부속품들을 제작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복구 발전에 필요한 기계 부속품들을 제작 공급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의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공업 시설들을 강화하며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흥남시 당 위원회는 이 공장 사업에 존재하는 결함을 퇴치 시정하고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초급 당 단체의 조직 정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이 공장 당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지도부 및 직맹、민청 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광범한 로동자들을 동원하며 설비 리용률의 제고를 저해하는 기본 원인과 그를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였다。

공장 초급 당 단체들은 선진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과의 개별적 담화를 통하여、또는 대중적 협의회를 조직하여 일련의 공정들이 때때로 정지 상태를 초래하며 절삭 부문의 설비 리용률이 六九%에 불과한 원인이 어데 있는가를 밝혀 내였다。

그것은 이 공장의 절삭 가공 부문의 기계 설비들은 형제적 제 국가들의 물질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 그의 기술적 장비가 현저히 개선 강화되고 있는데 주물 주강 동 단조 부문은 일제 시대의 낡은 기술적 토대에 기초함으로써 이 부문들 간의 공정 발란스가 조절되지 못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그리고 일부 락후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보수주의와 낡은 고집으로 말미암아 기술 규준과 표준 조작법이 엄수되지 못하고 작업 질서가 해이되였으며 일부 일군들이 초보적인 성과에 자만 자족하면서 생산의 락후한 원인을 자기의 사업상 결함에서 찾을 대신에 객관적 조건에 빙자하면서 기술 관리 사업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이 폭로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이러한 결함을 시급히 퇴치 시정하고 설비 리용률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하여 초급 당 단

체들과 핵심 당원들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생산 조직을 합리화하고 기계 설비들의 관리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며 주물 단조 부문을 절삭 가공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사업을 지도하였다。 례를 들어 각 직장들에 계획 과제를 엄격히 규정하여 주며 표준 조작법 준수에 대한 검열 제도를 실시하며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에 핵심 당원과 선진 로동자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계획 시달에서 일부 일군들이 일하기 쉽고 금액상 높은 제품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각 공정의 설비 능력을 조절한 기초 우에서 반제품 생산 계획의 선차성을 보장하며 그 계획 실행을 검열 통제케 하였다。

그리고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선진 로동자들이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매 공정별 세분 공정을 포함한 기술 공정표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작업에서의 무질서와 비능률적인 현상을 퇴치하며 제품 생산 일정표에 기초하여 생산 지도에서의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직종별 표준 조작법을 설정하여 그의 내용과 집행 방법을 로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침투시키는 동시에 그의 준수 정형을 검열 지도케 하였다。

기대 설비들의 가동 상태를 장악하고 그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당 단체들은 매개 기대별로 실지 작업 시간、작업 준비 정형、기술적 조건으로 인한 휴전 사고 등을 기입하는 기대별 작업 일지와 또 기대들의 일반적 상태를 기록케 함으로써 기대들의 생산 능력을 제고하며 기계들의 인계 인수、정기적 점검 보수 사업을 강화하여 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당 단체들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개 기술자들과 선진 로동자들에게 무기능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일데 대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그들에게 개별적 방조를 주는 한편 무기능자들을 일정한 기대에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기술 전습을 진행케 하였다。

기술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기술자들과 선진 로동자들로 하여금 그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연구케 한 다음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실지 생산에서 얻은 경험과 과학 기술을 배합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 단체들은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기술적、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과 아울러 광범한 일군들을 이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당 단체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해설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들에게 표준 조작법의 준수가 제품 생산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져오는가를 해설해 주었으며 또 설

비리용률 제고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가 로동자들의 임금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 주었다。

결과에 이 공장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설비 리용률을 현저히 제고시켰으며 종전의 락후한 생산을 선진적 수준에로 발전시켰다。

흥남시 당 위원회는 룡성 기계 공장 당 단체들의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지도한 경험에 기초하여 그를 다른 기업소내 당 단체들에게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투쟁을 지도하는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애로 되는 것은 일부 지도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생산에 대한 보수주의와 일부 로동자들이 낡은 작업방법을 고집하는 데로부터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을 저애하고 표준 조작법을 잘 지키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것은 시당 관하의 공장、 기업소들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경향이였다。

여기에서 시당 위원회는 이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소 호상간의 기술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일꾼들 속에서 발로된 안일성과 보수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 사업과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였다。

흥남 지구의 많은 기업소들은 쏘련 기술자들의 직접적 방조하에 새로운 기계 설비들이 장비됨으로써 설비 능력은 훨씬 제고되였으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일부 일꾼들은 이러한 변동된 조건들을 고려함이 없이 설비 능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선진 로동자들의 창발적 제의들을 억제하고 생산에서의 침체성과 보수주의를 발로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관하 각 기업소들의 기술자 및 선진 로동자들과의 개별적 담화를 조직하여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광범한 기술자、 로동자들의 협의회를 통하여 실지 생산 행정에서 얻은 선진적 경험들을 교환케 하였다。 그리하여 개별 담화 및 협의회에서 얻은 생생한 재료를 종합 분석한 기초우에서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고 낡은 것을 철저히 근절하는 방향에서 보수주의에 빠진 일부 일꾼들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또한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의들이 일부 낡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고집으로 인하여 생산에 도입되지 않은 경향을 퇴치하기 위하여 화학、 기계、 주물、 공무 등 부문별 또는 계층별로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에서 얻은 재료들을 해당 공장 당 단체들에 통보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간의 호상 견학 조직과 또 직접적인 생산 기술적 방조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매기대 설비에 대한 옳바른 조사 료해、 기업소 제호 간의 기대 설비의 조절、 매개 기대 설비에 대한 관리 및 조작、 규률의 확립 등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 가능성을 동원 리용케 하였다。

당 단체들의 이상과 같은 조직적 대책과 꾸준한 해설 사업에 의하여 낡은 것을 고집하고 새로운 작업 방법의 도입을 반대하던 일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선진 작업 방법을 지지하여 나서게 되였다。

례를 들어 흥남 비료 공장의 류안 비료 직장의 복구 사업은 쏘련 기술자들의 방조하에 적지 않은 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개조되고 그 성능은 일제 시대에 비하여 훨씬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술자、 기능자들은 과거 일제 시대의 낡은 설비와 작업 방법에 의한 생산 실적을 표준하면서 류안 합성탑 당 一일 八—九톤밖에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나섰다。 이것은 이 공장의 생산 장성에 적지 않은 장애로 되였다。

흥남시 당 위원회는 비료 공장내 당 단체들의 사업을 방조하여 선진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제의를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부 락후한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설비 능력 장성의 현실적 조건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도록 지도하였다。

공장내 당 단체들은 쏘련 기술자들의 방조하에 합성탑의 성능이 종전보다 훨씬 제고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 수준이 제고된 조건하에서 四五〇—四〇〇기압으로써 능히 一일 탑당 一三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지 생산 공정을 통하여 일부 락후한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당 단체들의 선봉적 역할에 의하여 광범한 로동자들이 이 투쟁에 인입되였다。 당 단체들은 일부 일꾼들의 보수주의와 안일성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해설 사업과 함께 쏘련 기술자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작업방법을 생산에 도입하고 그를 적극 지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낡은 것을 고집하던 일부 일꾼들은 자기들의 보수주의적 경향이 생산 발전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비료 공장 합성 직장 암모니야 탑은 과거에 고압 七〇〇으로써 탑당 一일 一三톤씩 생산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四〇〇기압으로써 一일 탑당 一四톤씩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만큼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그의 생산을 장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계의 마모률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당 위원회는 매개 기업소의 동일 직종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능자들과 선진 로동자들의 견학 및 경험 교환회들을 조직하여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경험들을 호상 교환하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흥남 비료 공장과 본궁 화학 공장 합성 직장에서 작업하는 기능자、 선진 로동자들의 견학 및 경험 교환을 통하여 비료 공장 합성 탑의 생산 능력 제고의 경험을 본궁 화학 공장 합성 직장에 일반화하여 암모니야 탑당 생산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것을 지도하면서 기술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표준 조작법을 엄수케 합으로써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당 단체들의 사업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하였다。

오늘 홍남 지구의 공업 설비들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여 가고 있으며 공장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도 이에 따라 현저히 제고되고 있다。 특히 화학 공업 기업소들에는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 및 설비를 포함한 특수 설비들이 다종 다양하게 설치되여 있다。 이러한 생산 기술적 공정은 높은 기술 관리 사업과 그에 따르는 표준 조작법의 엄수를 요구한다。 더우기 화학 제품 생산 설비의 기술적 개조와 관련하여 표준 조작법은 이에 상응하게 변동되여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이와 같은 생산 발전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낡은 기능과 생산 실적에 매달리면서 제품 생산에서 낡은 작업 방법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낡은식으로 생산하고 자기들의 손에 익은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하다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기술 공정의 엄수、새로운 작업 방법에로의 이행、설비 능력의 완전한 리용은 면밀한 조직 사업과 곤난을 극복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종전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 지도에서 전망을 상실하였거나 평온한 생활에 물젖어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은 일부 일꾼들은 이 사업에서 물러서거나 또는 이에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

시당 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를 묵과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당 위원회는 본궁 화학 공장내 당 단체들의 사업을 연구 분석하고 적지 않은 일꾼들이 표준 조작법을 지키지 않은 원인과 그를 퇴치하기 위한 방조 사업을 조직 지도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초급 당 단체의 사업을 방조하여 표준 조작법을 지지 실천하는 기능자들과 선진 로동자들의 작업 정형을 료해하고 그에서 얻은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표준 조작법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로동자들에게 해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 단체들은 실지 생산 공정에서 표준 조작법의 내용과 그 조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사업과 아울러 표준 조작법에 의한 제품과 낡은 작업 방법에 의한 제품과를 대비하여 광범한 로동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결과에 카바이트 생산 부문에서 전극 중절 사고가 금년 一월에 三八건이였다면 五월말 현재에는 一三건으로 저하되였으며 석회 질소 비료 생산에서도 카바이트 생산 원료의 분말도를 규격대로 보장하고 류진 작업과 하하 작업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一九五五년도에 석질 로당 평균 四톤 三七五키로였다면 금년도에 와서는 평균 四톤 七〇五키로로서 그 성능이 약 一一〇%로 제고되였으며 그 품질에 있어서도 一五·三—一六·九%로 제고되였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기술적、실무적 문제들의 옳바른 해결과 아울러 이를 실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것은 생산 질서를 확립하고 유일 관리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한 협의제와 결정된 문제를 강력히 집행하기 위한 개인 책임제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시당 위원회는 관하에 많은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기업소내의 생산 질서를 확립하고 유일 관리제를 강화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로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 부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본궁 화학 공장 당 단체의 생산 질서 확립을 위한 투쟁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우선 지배인、기사장、당 위원장들과 또는 기술자、기능자、생산 혁신자 등 계층별로 견학을 조직하여 호상 기업소간의 우점과 우수한 경험을 교환케 함으로써 그를 자기들의 기업소 실정에 알맞게 섭취 도입하도록 방조를 주었다。

이 방조 사업을 통하여 지난 기간에 생산 질서의 미약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오작품을 내였으며 빈번한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설비 리용률이 아주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던 요업 공장은 현재에 와서는 생산 질서의 확립과 유일 관리제를 강화함으로써 종전의 三·二%에 달하는 오작품 생산을 二·九%로 저하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시당 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견학 조직과 또 광범한 로동자들을 포함한 협의회 등을 조직함으로써 설비 리용률 제고와 로력 절약을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부시켰다。 시당 위원회는 로력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도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성과를 얻었다。

시당 위원회는 힘든 작업을 기계화하며 생산 공정을 합리화함으로써 로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의 창의 고안、발명、합리화 제의를 지지하며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시적으로 되는 창의 고안 꼬미샤를 조직하고 이에 우수한 기술자、선진 로동자들을 인입함으로써 일부 지도 일꾼들의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한편 로동자들이 실지 생산 행정에서 얻은 경험과 제의들을 제때에 심의 검토하여 그를 생산에 적극 도입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창안된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며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로 창의 고안 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로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직 추동하고 있다。

결과 유 일용 동무가 지도하는 공장의 로동자、기술자들은 본궁 화학 공장의 견구 생산(창문 짜기)의 기계화 정형을 견학한 다음 구멍 뚫으는 끌을 개조하고 기타 부문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본궁 공장에서 一인당 四매씩 생산하는 것을 一인당 七매씩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설 부문에서는 적지않은 작업들이 기계화되고 있는 바 이것은 로력을 절약하고 건설 속도를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시 당 위원회는 로력 기준량 설정 에서의 로력 랑비를 초래하는 제 원인과 로임 지불에서의 평균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시당 관하 일부 기업소의 지도 일꾼들은 로동자들을 위한다

는 명목하에 생산 능력보다도 작업 정량을 적게 주려 하며 일부 락후한 로동자들은 이를 적게 받으려는 현상을 발로하였다。 더우기 작업 정량원들 가운데는 국가 노루마를 규준으로 하여 이를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대신에 생산 장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낡은 기준에 맞추어 작업 정량을 주는 현상도 발로되였다。 이것은 작업 정량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력 랑비를 초래하여 생산 예비를 묻어 두는 것으로 된다。

작업 정량은 어데까지나 과학적으로 정확히 측정되여야 하며 같은 직종에 있어서 그는 통일적이여야 한다。 우리 시당 관하의 기업소들에는 동일 직종에서 작업 정량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이한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시당 위원회는 작업 정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업소들에서 제정된 작업 정량을 매개 기업소들에게 통보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기술적 가능성에 기초한 작업 정량을 설정 실시케 함으로써 적지 않은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 가운데서 로력 절약을 위한 광범한 경쟁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각 기업소들 간에 로력 절약을 위한 경쟁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매개 기업소 및 건설장들의 로력 절약을 위한 경쟁 실적에 기초하여 경쟁 대비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로력 절약 투쟁에서 선진적인 기업소와 락후한 기업소들의 사업 정형을 대비 분석하는 강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로력 절약에 대한 일상적인 자극을 주었다。

결과에 적지 않은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서는 로력의 류동성을 근절하며 로력 기준량 설정에 있어서의 결함을 시정함으로써 로력을 절약하고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여 생산에서의 파동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의 발전과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시당 위원회가 초급 당 단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 방조함으로써 광범한 로동자들을 설비 리용률 제고와 로력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동원하였으며 기업소 내 사업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도를 대중에 접근시킨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광범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기업소의 경제—기술적 력량을 집중적으로 조직 동원하기 위해서는 당 단체들의 능숙한 지도와 당 일꾼들이 옳은 군중 관점을 가지는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시당 위원회는 생산을 지도함에 있어서 초급 당 단체들의 지도 작풍을 개선하고 당 핵심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지도를 대중에 접근시키도록 방조를 주었다。 이러한 조직 지도 사업을 통하여 당 단체들의 자립적 활동은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생산 행정에서 능숙하게 결합시킴으로써 깜빠니야식 사업 방법과 형식주의적、관료주의적 지도 작풍을 퇴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는 흥남 비료 공장의 질안 직

장의 신설을 비롯하여 공업 시설들의 복구 확장과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달성한 성과와 축적한 경험은 극히 초보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결함과 부족점들도 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 설비 리용률 제고와 로력 절약을 위한 투쟁을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상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부문별 당 단체들의 자립성을 제고하고 핵심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도를 원만히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간부들 속에 생산 및 건설 속도를 촉진할데 대한 당적、국가적 요구성을 제고하며 그들에게 자기 비판적 견지에서 사업상 결함을 적발 시정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부시키고 하부 실정을 연구 파악한 기초 우에서 지도를 로동자들 속에 접근시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경제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당면한 생산 일면에만 치중하면서 우리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전망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도를 미약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이러한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시급히 퇴치 시정하고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인 바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주물、단조 제품들을 절삭 가공 공정에 적어도 一개월 이상 선행시키며 특히 룡성 기계 공장의 기계 회전 속도를 체계적으로 높이고 현재의 一・七교대제를 二・五교대제로 전변시키는 투쟁을 지도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능자의 양성 및 확보 사업을 강화하며 교대 작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매개 공정、기대의 생산 능력 발란스를 조절하며 약한 고리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설비의 정상적、균형적 가동을 보장하도록 당 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생산 및 건설에서의 일체 침체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생산 설비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투쟁에로 로동자、기술자들을 조직 동원하도록 정치 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소들에서 생산 면적과 생산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향에서 로력과 물자와 재정이 지출되도록 당적 통제를 강화하며 생산과 건설 부면에 잠재하는 거대한 예비와 가능성을 실지 생산에 구체화하며 이를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시키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당 단체들이 이상과 같은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설비 리용률 제고와 로력 절약을 보장하며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우리 당 제三차 대회가 흥남시 당 앞에 제기한 경제적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있는 조직적、동원적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방도

예·마리네쓰꾸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착취 계급들의 압박을 반대하여, 토지와 자유와 그리고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하여 싸운 루마니야 농민들의 세기적인 투쟁을 완성한다.

루마니야 인민의 력사는 수 많은 농민 쟁의들과 폭동들로써 충만되여 있는바 그 중에서도 一四三七년의 보빌나 폭동, 一五一四년의 게오르게 도자의 폭동, 호리야, 클로슈까 및 크리샨의 지도하에 일어났던 一七八四년의 트란실바니야 폭동, 一八二一년 문테니야와 올테니야에서 일어난 뚜도르 울라지미레쓰꼬의 폭동은 가장 큰 폭동들이였다. 이 폭동들에는 농노제적 기반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한 수만의 농노적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지배 계급들은 몸서리치는 잔인성으로써 폭동들을 진압하였었다. 농노적 농민들(이들의 폭동에 대하여 엥겔스는 자기의 로작 『독일 농민 전쟁』에서 언급하였다)의 탁월한 지도자 게오르게 도쟈를 샛발갛게 달군 무쇠 의자 우에서 산채로 태워 죽였다. 호리야와 클로슈까를 꺼꾸로 매달아 죽였으며 뚜도르 울라지미레쓰꼬를 비렬하게도 기만적인 방법으로 암살하여 그 시체를 비밀리에 우물 속에 처 넣었다. 수 많은 농민들이 고문 학살당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심각한 불만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스러운 생활은 그들을 농노 제도를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에서의 새로운 진출에로 항상 추동하였다.

많은 사실들과 증거들이 농노 제도 시기에 있어서의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에 관하여 말하여 준다. 문테니야를 방문한 외국의 한 장군은 농민들의 빈한한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농가들에서 나는 아무런 가구나 그릇들도, 식량도 볼 수 없었다. 문테니야의 농민들은 칼, 대통, 담배를 가지고 다니며 집에는 배낭 이외엔 아무 것도 없다』.

착취가 점점 더 가혹해짐으로 농민들은 지주의 령지를 버리고 산중으로 도피하였다. 一七四五년의 통계에 의하면 문테니야의 총 농가 호수는 七만호였는데 一一년 후에는 三만 五천호밖에 남지 않았다.

루마니야에서 자본주의는 특히 一九세기 전반기에 강력히 발전하였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지주들은 농노적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였다.

농민들을 계속 탄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발전에 리해 관계를 가진 착취 계급들의 일부 계층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요구를 비록 부분적으로라도 충족시켜 줌이 없이는 농민 폭동들을 도저히 진압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一八六四년에는 무엇보다도 농민 폭동의 압력으로 인하여 아·이·꾸즈 후작이 련합 통치하고 있던 문테니야와 몰도바의 루마니야 공국들에서는 미하일 꼬갈리니차누 시대에 소위 『농업 법령』이라고 불리우는 토지 개혁이 실시되였다.

브·이·레닌은, 농노 제도의 잔재들은 대토지 소유를 개조하거나 그것을 소멸하는 것으로써, 즉 혹은 개혁의 방법으로도, 혹은 혁명의 방법으로도 제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一八六四년의 법령은 토지의 분배와 농노 제도의 잔재들을 숙청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바로 개혁의 방법이였다. 이 법령은 농노 제도의 심한 잔재들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으며 라찌훈지야를 대규모적인 자본주의적 경리로 개조하였고 농민 대중들 속에 소수의 부유한 농민들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수 많은 농민 대중은 계속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四六만 七、八四〇호의 농가 중에서 다만 七만 一、九一二호의 부유한 농민들만이 평균 五·七四 헥타의 토지를 받았을 뿐이다. 토지 분배시에 가장 나쁜 땅을 받은 농민들은 계속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땅을 비싼 값으로 사야만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자들의 형편은 더욱 강화되였다.

一八六四년의 개혁후에도 대다수 농민들의 처지는 계속 비참하였다. 이제는 다만 지주들만이 농민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농촌 상인들과 부농들로 형성된 농촌 부르죠아 들도 그들을 착취하였다.

二〇세기 초에 자본주의의 발전, 특히 외국 자본의 루마니야 침투는 암흑적인 빈궁 속에서 헤매이던 불행한 농민들에 대한 지주와 임대인들의 가혹한 착취와 밀접히 결합되였다. 이러한 계급적 모순들과 一九〇五년의 로씨야 혁명의 영향은 一九〇七년에 전체 루마니야를 휩쓴 대규모적인 농민 폭동을 초래하였다. 이는 『땅을 달라!』라는 구호 밑에 진행된 루마니야 농민들의 가장 대규모적인 대중적 폭동이였다. 이 농민 폭동 앞에서 착취 계급들――자본가들과 지주들은 자기들의 력량을 련합하였으며 또 부르죠아―지주 국가의 탄압 기관을 리용하여 전대 미문의 잔인성으로써 폭동을 진압하였다. 부르죠아―지주 정부 자체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一만 一천명의 폭동 농민들이 학살당하였다. 놈들은 포화로써 촌락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 수천의 농민들이 부르죠아―지주 제도의 감옥에 투옥되였는바 그중 많은 농민들은 감옥내에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사들을 알게 되였다.

제一차 세계 대전은 농민들의 처지를 더욱 더 악화시켰다. 농민 대중의 압력과 一九一七년의 로씨야 혁명의 영향하에 지주들과 부르죠아지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토지 개혁을 약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 개혁의 초안에 의하면 농민들, 그중에서도 병사로 근무했던 농민들은 우선적으로 지주의 소유지에서 二〇〇만 헥타를 받도록 되여 있였으며 지주의 소유지는 장차 一〇〇 헥타로 제한하도록 되였었다.

토지 개혁 실시에 대한 약속은 루마니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이 강력히 앙양되던 때에 주어졌다. 혁명 운동의 앙양에 있어서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그런데 토지 개혁에 대한 약속은 대중의 혁명적 앙양을 진압

할 목적으로써 로동 계급으로부터 근로 농민들을 떼여 낼 것을 타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토지 개혁의 약속은 수년간 질질 끌다가 혁명적 앙양의 쇠퇴기에야 집행되였다。 一九二一년에 一三〇만 八、九二一호의 농가가 토지를 받을 대상으로서 등록되였는데 토지 개혁 실시 후 一三년후인 一九三四년 一월까지에 분여받은 농가는 실지에 一四七만八 六六三호 뿐이였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온 것이였다。 징수한 토지 총면적 중에서 다만 五六%만이 농민들에게 분여되였고 그 나머지는 이러 저러한 형태로 계속 지주들이 소유하였다。

농민들은 토지를 받은 댓가로서 소작료의 형식으로 지주들에게 속금을 지불하였다。 농민들에게 분배되였어야 할 토지의 댓가로 지주들은 벌써 一九一九년에 금화로 四억 六、五〇〇만 레야(루마니야의 화페 단위인 데 一레야는 약 三七교뻬이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五〇억 레야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대토지 소유자들은 분여한 토지의 값을 二중으로 받아 먹었다。 토지 값은 내놓고도 농민들은 또 필요한 농구와 역축을 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지주들과 자본가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은 이 자금을 농민들에게서 분여받은 토지를 도로 찾아 내는 데 리용하였다。 례컨대 一九二七년에 토지를 분여 받을 권리를 가진 농민들은 사실상 그들의 손에 들어 오지 않는 토지 값은 내놓고도 고리대금업자들、은행가들과 대지주들에게 一〇四억 레야의 빚을 지고 있었다。 빚을 진 그들은 대지주들에게 계속 예속되여 있었으며 봉건적인 소작 관계에 기초하여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토지 개혁에 대하여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스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一九二一년의 토지 개혁은、 대지주적인 토지 소유는 보존되고 압도적 다수의 토지 없는 혹은 토지 적은 농민들은 토지를 받지 못하고 한편 분여받는 토지는 조만간에 부농과 지주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채택되고 실시되였다』。

一九二一년의 토지 개혁 후에도 농민들의 처지는 계속 비참하였다。 전체 농민 경리중에서 三九·六%가 역축을 갖지 못하였으며 三二·五%가 암소를 못가졌고 一四·四%는 아무런 가축도 없었다。 一헥터 미만의 농가 一〇호 중에서 다만 한 집만이 보섭을 가지고 있었으며 三헥터 미만의 농가 一〇호 중에서 다만 세 집만이 보섭을 가지고 있었다。

一九二一년 토지 개혁의 최초의 예견에 의하면 분여 받은 토지는 매매할 수 없었다。 그후 一〇년간에 토지를 분여 받은 농민들은 六〇%, 심지어는 一〇〇%까지 달하는 고률의 리자를 무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一九三二년에 농민들의 부채는 一二〇—一五〇억 레야에 달하였다。 비록 농민들이 처음에 차용한 자금을 二회 내지 三회에 걸쳐 리자로써 다 물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一〇헥터 미만의 토지들중 五九%이상이 저당으로 잡혀졌다。 대다수 경우에 빚은 소유지의 가격을 릉가하였다。 조성된 이러한 조건하에서 부르죠아—지주 정부는 一九二九년에 농민들의 분여지의 자유 매매를 허락하였다。

심지어 一九三〇년의 공식 조사까지도 토지 없는 농민이 六〇만, 토지 적은 농민이 四六만 四천, 고용농이 一二만 二천, 기타 二만 五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六〇만명의 농민이 三〇만 헥터, 즉 식구 一인당 반 헥터씩 가지고 있었다。 이 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토지 개혁 이후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지주 정부의 제 시책은 지주들의 수중에 토지를 집중시켰다。 벌써 一九三〇년에만 하여도 전체 농촌 경리의 겨우 〇·四%를 이루는 一만 二천명의 지주들이 五四七만 헥터를 소유했는데 한편 전체 농촌 경리의 七四·九%를 차지하는 五헥터 미만의 토지를 가진 二四六만명의 농민들은 도합 五五三만 五천 헥터를 소유함에 불과하였다。 이 계산에 의하면 一만 二천명의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가 二四六만명의 농민 및 그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량과 같은 셈이다。

농민들의 처지는 착취 계급들이 범죄적인 반쏘베트 전쟁에 나라를 몰아 넣은 제二차 세계 대전 시기에 더욱 더 악화되였다。 안또네스꾸의 통치는 쏘베트 련맹을 반대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농산물들을 농민들로부터 강탈하였으며 히틀러 팟쇼배들로 하여금 수 많은 농산물을 아주 헐 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업 제품과 농산물 가격간의 심한 격차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 쏘베트 련맹을 반대하는 전쟁을 진행하며 또 루마니야를 히틀러 독일에 내맡김으로써 대자본가、 지주 및 부농들의 정치、 경제적 력량은 공고화되고 빈농들과 중농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강화되였다。

근로 농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 투쟁한 오직 유일한 정당은 루마니야 공산당이였다。

벌써 一九三二년 지하에서 열렸던 루마니야 공산당 제五차 대회에서는、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서의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전투적인 동맹을 창건하며 근로 농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위한、『농민 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위한 농민 대중의 투쟁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팟쇼배들에 대한 쏘베트 군대의 승리로써 조성된 정세하에서 루마니야 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전체 민주 력량은 안또네스꾸의 팟쇼 독재를 격멸하고 一九四四년 八월 二三일부 법령을 실현하였다。 영웅적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루마니야의 령토가 해방된 후에 로동 계급의 선두에 선 공산당은 제五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과업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착수하였다。 가장 광범한 전체 근로 농민 대중은 민주주의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시급히 봉건—지주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혁명적 투쟁에 총 궐기하였다。 착취 계급들의 당들은 토지 개혁의 실현을 지연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주 소유를 보존할 목적으로 그들이 과거 제一차 세계 대전 후에 써 먹던 흉책을 반복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의 선두에 선 공산당은 수 많은 로동자 소조를 조직 파견하여 토지를 위한 투쟁에로 농촌들을 궐기시켰으며 농촌 위원회들을 조직하였으며 왕과 카톨리크 당들의 의사를 반대하여 혁명적 투쟁의 방법으로써 농민들에게 지주들의 토지를 분배하였다。 토지 개혁을 위한 투쟁은 반동적인 부르죠아—지주 다수파로써 구성된 정부를 격파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일부분이였다。 로동자들에 의하여 궐기된 근로 농민들은 다만 지주들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만으로써는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반동적인 팟쇼 정권 기관들을 내쫓고 민주주의적인 지방 정권 기관을 수립하였다。 一九四五년 三월 六일 국내의 모든 도시들로부터 모인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시위가 있은 후에는 이 투쟁은 민주주의적인 정부의 수립으로써 완성되였다。 새 정부는 우선 자기 사업의 첫 날에 토지 개혁을 법령으로써 선포하였는

바 이렇게 함으로써 몇주일 전부터 사실상 혁명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였던 토지의 분배를 법적으로 확인하였다.

선행한 모든 토지 개혁과는 달리 一九四五년의 개혁은 루마니야 반동의 지주(支柱)의 하나인 계급으로서의 지주들을 청산하였고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의 발전 도상에 놓인 하나의 중요한 장애를 제거하였다. 지주들의 토지는 무상 몰수되였다. 九一만 八천명의 빈농민들이 一一〇만 九천 헥터를 분여받았다. 몰수한 토지중 나머지 부분인 三五만 九천 헥터는 국유지로 넘어갔다. 一九四五년에 토지 개혁이 실시된 결과 四〇만 이상의 새로운 농가가 창설되였다. 기타 五〇만의 나머지는 그들이 분여받은 지주의 토지로써 자기의 소유를 증가 공고화하였다. 토지 개혁을 위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인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이 형성되였다. 一九四五년의 토지 개혁 후에도 근로 농민들은 국가 예비 중에서 五〇만 헥터를 더 받았다.

토지 개혁후 근로 농민들의 형편의 개선은 一九四五년과 一九四七년의 二년간 련이어 있은 혹심한 한발과 역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심한 통화 팽창으로 인하여 저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조차 근로 농민들은 그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아 내려는 부농들의 기도를 물리쳤으며 자기 경리의 발전과 농업 생산의 전반적 앙양을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방조를 받았다. 근로 농민들에 대한 이 방조는 경제적 및 재정적 혼란을 청산한 一九四七년 여름의 화폐 개혁이 실시된 후 더욱 강화되였다.

빈농들과 중농들을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착취로부터 옹호하는 정책은 최후의 부르죠아 대표자들을 정부로부터 축출하고 군주제를 철폐한 후에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 측이 농민들에게 방조를 줄 가능성들은 중요 산업 기업소들, 광업, 은행, 운수 및 보험 기업소들의 국유화의 결과에 더욱 증대되였다.

농민들이 로동 계급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것, 어려운 한발 기간에 농산 깜빠니야를 전개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준 끊임없는 방조, 부농의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지지——이 모든 것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와 로동 계급에 대한 농민들의 신임을 부단히 강화하였고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을 공고화하였다.

산업, 광업, 운수, 은행 및 보험 기업소들의 생산 수단이 국유화된 결과, 정권이 근로 농민들과 동맹을 맺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는 조건하에서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역할을 놀 강력한 사회주의적 쎅또르가 창건되였다. 국유화된 후 산업 생산은 점차적으로 급속히 앙양되기 시작하였다.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굳게 들어섰다.

사회주의는 오직 도시에서만 건설할 수는 없으며 농촌에서는 개인 소농 경리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데로부터 생기는 모순들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레닌의 교시로부터 출발하여 一九四九년 三월 三일부터 五일까지에 진행된 루마니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회의는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스 동지의 보고를 청취하고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의 강화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당의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를 사회주의의 길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민 민주주의 국가

는 우선 농기계들도 포함한 생산 수단들을 생산하는 대산업, 금융 기관들, 국영 농장들,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 소비조합망, 국영 상업 및 운수 기관들을 경제적 공간으로서 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령도적 력량인 프로레타리아트는 농민들에 대하여 레닌이 교시한 삼위 일체적인 구호:『빈농층에 의거하여 중농과의 튼튼한 동맹을 맺고 일분간이라도 부농과의 투쟁을 멈추지 말라!』를 지침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강력한 경제적 공간들이 리용되였다.

지금 루마니야 공업의 총생산고는 一九三八년의 수준을 三배 이상 릉가하였다. 一九五〇——一九五四년간에만 하여도 사회주의 산업의 총 생산고는 九二%로 장성하였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공업의 앙양에 있어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가지는 의의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학설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례컨대 一九五〇——一九五四년간에 있어서 생산 수단의 생산은 一〇一·四%, 소비품 생산은 八二·一%가 각각 장성하였다. 루마니야에는 기계 제작 공업, 전기 공업, 화학 합성 공업 등 새로운 공업 부문들이 나타났다.

지난날 낡은 루마니야는 그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들의 九九%를 수입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루마니야의 여러 공장들이 인민 경제에 수요되는 전체 기계의 九〇%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 사실은 국내 공업 기지의 발전에서 획기를 이룬 거대한 진보의 실례로 된다. 부르죠아—지주 통치 시기의 수입 상품 목록을 보면 거기에는 마인 보섭까지 있었다. 진초 압착기 이외에는 국내에서 그 어떤 농기계도 생산되지 않았다.

루마니야 인민 경제에서 차지한 농촌 경리의 중요성, 농업 생산을 제고할 필요성과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경리에로 넘어갈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과 정부는 농기계들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의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一六개의 대공장들을 특별히 농기계 및 농기구 제작으로 돌렸다. 이러한 공장들 속에는 쓰딸린시에 있는 에른스트 텔만 명칭 뜨락또르 공장, 부카레스트시에 있는 탈곡기 및 콤바인을 생산하는 와셀리 로아이트 공장과 뚜도르 울라지미레스꾸 공장, 애초기(刈束機)를 제작하는 부카레스트의『파종』공장, 로만시에 있는 국영 야금 공장 및 기타가 들어 있다.

토지 개혁의 실시 직후 쓰딸린시의 로동자들이 루마니야의 첫 뜨락또르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경험 및 기계의 부족과 전쟁에 의한 공장의 파괴와 관련된 난관들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에 필요한 기계들을 제작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임을 로동자들 속에 전파하려고 기도한 국내외의 적대적 요소들의 조소와 관련된 난관들에도 부닥쳤다. 서방측이 지정해 준 방송국을 통하여 정권에서 축출된 착취 계급의 대표자들은『너희들에게는 기술상 경험이 없다』느니『너희들은 기계를 가지지 못한다』느니 하고 짖어댔던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떤 자는 심지어 만약 공장 문 밖으로 뜨락또르가 나오게 될 때에는 그 바퀴밑으로 뛰여 들어 갈 준비가 다 되여 있다고까지 장담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독설적인 예언은 그들의 말대로 되지는 않았다. 쓰딸린시의 금속공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훌륭히 집행하였으며 착취로부터 해방된 로동자들의 힘과 창조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쓰딸린시에 있는 공장에서는 여섯 가

지 형의 뜨락또르를 만들어 냈다。 근로를 사랑하는 루마니야의 최초의 뜨락또르 제작자들은 제一차 五개년 계획 과제를 八개월 전에 완수하였다。 금년에 루마니야 해방의 민족적 명절인 八월 二三일을 더욱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쓰딸린시 뜨락또르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년간 계획 과제를 초과하여 五〇〇대의 뜨락또르와 一三〇만 레야의 추가적인 사회주의적 축적을 국가에 줄 것을 약속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 경리들에서는 거의 三만대의 뜨락또르(표준 마력 환산)、二만 四、二〇〇대의 뜨락또르 보섭、기계로 끄는 一만 二、〇六六대의 파종기、六、一一二대의 애초기、一만 五、一三五대의 타곡기、一、五三八대의 자행식 꼼바인 및 기타 많은 기계들이 작업하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더 나아가 루마니야제 뜨락또르들을 다른 나라들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바 례컨대 덴마크、인도、애급 등등에 수출하고 있다。 기계 일꾼들은 지금 무궤도형 뜨락또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경 및 파종용 뜨락또르 КД—三五와 주로 작물 비배 관리에 쓰는 뜨락또르 КДII와 МД3를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농기계들과 농기구들의 생산도 또한 급격히 발전하였다。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一九五四년에는 기계 경운기의 생산이 一八一%、기계 파종기의 생산이 二六一%에 달하였다。 一九五四년에 농기계 및 농기구들의 생산품은 전체로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四〇% 장성하였는 바 이것은 금속 가공 공업의 년 생산고의 二一%였다。

화학 공업을 위한 거대한 원료 원천에 기초하여 루마니야에서는 광물성 비료、박테리야 비료、게르비찌드、동、식물의 해충 구제 약품들의 생산이 조직되였다。 대화학 꼼비나트의 부속으로서 농촌 경리에 수요되는 자료들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공장들도 건설되였다。

금년에 화학 공업은 린 비료를 一九五一년보다 五八四·四%、질소 비료는 一九五三년보다 一、二〇〇% 더 생산하였다。 이와 함께 화학 공업은 해충 구제용 화학 물자들을 농촌 경리에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一、七一四%、게르비찌드는 一二〇% 더 많이 공급하였다。

작년(一九五四년——역자 주)에 새로운 네 가지 종류의 파종기、해충 구제 약품이 생산되였다。

농촌 경리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적 공업이 주는 기계들과 뜨락또르들을 더욱 더 능률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을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이 보장하고 있다。 一九四八년 一〇월에 처음으로 七六개의 정류소들이 설치되였다。 위대한 쏘베트 련맹의 모범에 따라 그리고 그의 방조에 의하여 창설된 정류소들은 농촌 경리에서 로동 생산성을 높이며 로농 동맹을 공고화하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로동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공간이다。

一九四九년 三월 三——五일의 루마니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자기 보고에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스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은 우리의 락후한 농촌 경리에 선진적인 기술을 고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들은 빈농들과 중농들이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써 질적으로 높은 전야 작업을 진행함에 근로 농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의 거대한 의의는 빈농들과 중농들로 하여금 기계화된 로동의 우월성을 실지 작업에서 확신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빈농들과 중농들로 하여금 밭고랑 앞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밭고랑들을 갈아 없앰으로써만 가장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위대한 쏘베트 련맹의 형제적 방조와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 발전은 해마다 정류소들을 증가시켰으며 성능이 높은 농기계와 뜨락또르들로써 보다 더 완전히 장비시켰다。

오늘날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자기 관할하에 一만 七천대 이상의 뜨락또르(一五마력 환산)와 기타 그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가진 二二二개의 정류소들이 사업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그들은 五〇〇대의 자행식 꼼바인을 가지고 있다。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금년도(一九五五년——역자 주)의 정류소들의 작업 능력은 四·五배로 장성하였다。 창설된 후 최초의 몇년 동안에는 주로 기경 작업과 탈곡 작업을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추수후의 탈곡、기경과 그에 따르는 파종 작업、애초기와 꼼바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수 작업 등 그의 작업 범위가 매우 확대되였다。 一九五三년부터 정류소 일꾼들은 기경 작업 및 관개 작업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은 상술한 제반 사업과 함께 협동 경리들에서 생산의 조직자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작업 조직과 계획 수립、생산 계획의 작성、작업의 적시적인 수행、그리고 다수확을 내기 위한 선진적인 영농 방법의 도입 및 고착 등 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을 돕고 있다。 정류소들이 완비된 기계들로 장비된 결과에 농산 작업의 기계화 수준이 해마다 제고되였다。 최근 작업의 기계화 정도는 협동 경리들에서는 경작에서 전체 경지 면적의 七六·四%、춘기 파종에 있어서는 四五·六%로 제고되였다。 정류소들에서는 개인 근로 농민들에 대한 방조도 강화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는 가장 짧은 기간내에 그리고 가장 훌륭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뜨락또르들과 농기계들을 유리한 조건에서 리용할 수 있도록 근로 농민들에게 보장하여 주고 있다。 一九五四년 봄에 정류소들의 전체 작업량 중에서 一五% 이상이 개인농들의 토지에서 수행되였다。

정류소가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지불하는 보수의 유리한 조건은 근로 농민들의 뜨락또르、농기계들의 리용을 쉽게 하고 있다。 작업 보수는 정류소가 작업한 경작지들에서 거둔 수확 중에서 추수후에 현물로써 지불된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보수 체계가 설정되였는바 이것은 집단 농장、토지 공동 경작 조합、그리고 근로 농민들의 개인 경리에게 특전을 주고 있다。 현물 지불의 새로운 제정 비률의 근본적 차이는 그것이 헥타당 수확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바 다만 토지가 비옥한 지대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고정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확의 증가분은 모두 생산자의 것으로 되게 되였다。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의 사업의 발전은 그에 상응하는 기술 간부들이 현저한 정도로 있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최근 각급 학교들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소유했고 농업 기술 과학의 성과들을 대담하게 도입 고착시킬 줄 아는 수 많은 지배인들、기사들、기수들、농학 기사들、기계 부속품 제작자들、작업반장들과 뜨락또르 운전수들을 양성해 냈다。

많은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에서는 농기계 및 뜨락또르의 성능이 매우 정확하게、그리고 합리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기

계 일꾼들은 아그레카트를 설치하였는바 이렇게 함으로써 뜨락또르의 가동력을 전부 리용하고 있다。 뜨락또르 브리가다의 작업은 협동 경리의 농산 브리가다와 긴밀한 련계 밑에서 진행된다。 례컨대 고뜰로브가 지도하는 정류소는 매년 자기의 생산 계획을 현저히 초과 달성하고 있는 데 작년에 一七三%로 보장하였다。 금년 여름 깜빠니야 때 이들은 두 대의 애초기、두 대의 타곡기、두 대의 조경기(粗耕機)로 구성된 아그레카트 혹은 애초기들과 기계화된 팍쟁이와 조경기들로 구성된 아그레카트를 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수 작업을 촉진할 수 있었다。

많은 뜨락또르 운전수들 속에서는 기계 설비들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운동이 강력히 촉진되였다。 一천 헥터의 면적에서 진행하는 一년간 작업을 매 뜨락또르마다 초과 완수할 데 대한 사회주의 로력 영웅인 아라드 주 쓰인니플라우 마레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의 작업반장 와씨리 보이끼쯔의 발기는 이미 뜨락또르의 가동 일수를 증대시키며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있던 수 많은 기계 일꾼들 속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꼼바인 운전수들이 금년에는 하루에 최소한도로 알곡 二만키로그람을 낼 것을 약속하였다。

농산물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농산 작업을 기계화하며 사회주의에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근로 농민들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것이 루마니야 농촌 경리와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들의 기본 과업이다。 이 정류소들은 가장 가까운 장래에 비배 관리 수확과 파종 작업들과 또한 축산업 부문의 중 로동을 광범히 기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새로운 형의 뜨락또르들과 농기계들로써 장비될 것이다。 기계화 중심 지대들이 확대、강화될 것이며 정류소 부속으로 새로운 제작소들이 건설될 것이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토지、생산 도구、농산물들이 국가의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여 있는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농업 기업소인 국영 농장이 거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논다。 루마니야에서 국영 경리는 一九四五년 토지 개혁 당시 국가 소유로 된 일부 몰수 토지에 기초한 국영 농장들에서 조직되였다。 또한 一九四九년 三월에 몰수한 이전의 왕의 소유지들과 지주들의 땅의 마지막 부분들이 국영 농장으로 넘어갔음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一九四五년 三월 三—五일부 루마니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은 국영 농장의 역할이 기술적 및 농학적 견지에서 농촌 경리의 수준을 제고하며 자양분 있는 농산물들을 공급하며 공업에 원료들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국영 농장은 과학적인 영농법에 기초하고 대규모적인 토지에 있어서의 기계화된 로동이 가지는 우월성、분산된 사적 토지 소유에 비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우월성을 광범한 근로 농민 대중에게 증시하는 농촌 경리 발전의 위력있는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것은 집단 농장、공동 경작 조합 및 개인농 경리에 종곡들과 종축 및 종금들을 공급해 주며 각종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선진적인 농업 기술적 방법들을 보급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도 한다。

국영 농장의 조직 및 발전에 있어서 해마다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국영 농장의 토지들의 출처가 다양한 것이 이 토지들의 약간의 질적인 차이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바 이 토지들은 호상 二만 내지 三만키로메터나 떨어져 있는 수 많은 경작구들로 세분되여 있었다。 때문에 근로 농민들과의 자원적인 협의 및 동의에 기초하여 一九四九년과 一九五四년간에

토지 정리 사업을 진행하여 농업 생산의 강유력한 유일체를 창설하였다。 현재 국영 농장은 전국적으로 二六七개 있는 데 평균 소유 면적은 三천 헥터에 달한다。

국영 농장은 토지 정리 사업을 끝낸 다음 토지 건설의 과학적 조직과 합리적인 순환 파종의 도입에로 넘어갔다。

국영 농장은 八、〇二九대의 뜨락또르(一五마력 환산)、 지난날 우리 나라 전야들에서 전연 볼 수 없었던 파종기、꼼바인、애초기、면화 수확 꼼바인、마령서 꼼바인 및 기타 성능이 높은 농기계들로써 장비되였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국영 농장의 농기계 및 뜨락또르 빠르크들은 중로동을 현저하게 기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농기계 및 뜨락또르의 현 능력은 一九五四년에 곡식 밭의 기경과 파종에서 전체 작업량의 六五%를 기계화할 수 있었다。 국영 농장들에는 九〇六대의 자행식 꼼바인들이 있는바 이것들로써 화곡 총 면적의 거의 七〇%에서 추수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었다。

국영 농장들에서는 기본적인 농산 작업들의 부분적 기계화로부터 지어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손질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까지도 포함하여 작업 전 과정의 기계화에로 이행할 수 있게 되였다。 많은 국영 농장들에서는 공업용 농산물들과 소채의 재배 및 추수 작업들이 기계화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기계화는 응당 그에 따르는 높은 수확을 보장 하였다。 례컨대 끼르노쥐 국영 농장은 관개되지 않는 목화 밭의 기경、파종、추수의 모든 작업을 기계화한 바 작년에 전체 一五〇헥터의 토지에서 一헥터 당 목화 一、八一七 키로그람을 수확하는 국내 기록을 달성하였다。 우르랴쓰크 국영 농장에서는 옥수수 재배、쎄꾸옌 국영 농장에서는 마령서 재배、페쩨스찌 국영 농장에서는 사탕무 재배의 모든 작업들이 기계화되였다。 국영 농업들에서는 모든 농작물이 풍부한 수확을 내고 있는 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량의 농산물들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게 한다。 그라바쯔 국영 농장이 달성한 수확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바 四、〇〇五헥터의 면적에서 소맥을 헥터당 평균 二、三〇四키로그람을 냈다。 다만 一九五三년에만 하여도 국영 농장들은 계획 이외에 一만톤의 소맥을 국가에 더 주었다。 一九五三년의 춘파 및 추파 소맥의 년 생산량은 一九五〇년 수준의 二•五배、대맥과 라맥은 二배로 각각 제고되였다。 작년에 국영 농장은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목화를 三배 이상、벼는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二배 이상 생산하였다。

국영 농장들에서 축산 부문이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가축、특히 양과 돼지의 두수가 몇 십배나 장성하였다。

국영 농장들에 우량 종축 및 종금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一九五三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생산성 높은 가축의 종축장들이 신설되였다。 一九五四년에는 一九五三년에 생긴 첫 종축장들을 제외하고도 一六개의 국영 농장들에 부속으로서 三六개가 증설되였고 금년에는 二四개의 국영 농장에 三五개가 더 늘었다。 현재 국영 농장들에는 여러 가지 품종의 암소、一、二一六두를 가진 二四개의 종축장、一、四八〇두의 종돈을 갖고 있는 一五개의 종돈장、一만 一、六七九두의 각종 양들을 가진 一九개의 종양장、三、五〇〇마리를 가지고 있는 六개의 종금장、一七六두의 암말을 가진 五개의 종마장、三四〇군의 꿀벌을 가지고 있는

四개의 종봉장 등등이 있다。

국영 농장은 집단 농장、 토지 공동 경작 조합、 농업 생산 조합 및 근로 농민들의 개인 경리에 우량 종곡、 종축 및 종금、 그리고 또한 포도원과 과수원 등을 재로 이식 재배함에 소요되는 원예 자료의 많은 량을 공급해 주고 있다。 금년에 국영 농장은 품종 개량을 위하여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四二개의 국영 농장과 소채 종자 생산을 위하여 二六개의 국영 농장들이 설치되였다。 一九五三년에 국영 농장들은 우량 종곡 二一만톤 이상을 냈다。 현재 국영 농장들은 우리 나라의 전 농촌 경리에 대하여 파종용 종곡을 五〇% 이상을、 소채용 종자에 있어서는 거의 七〇%를 주고 있다。

국영 농장 축산장들에서는 다산적인 최우량종을 전국 각지에 보급하기 위하여 종축들을 많이 사육하고 있다。

一九五三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一·四분기 말까지 국영 농장은 모우 四、三二四、 모돈 一二、六五二、 빈돈 二一、八六四、 종마와 빈마는 二六六、 토끼는 三、四一九를 각각 내놓았다。

금년은 불리한 기후 조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농장들에서는 높은 수확을 보장하였다。 그중 몇 개를 실례로 들어 본다면 꾼쓰딴찌 주바라가누촌에서는 一헥터에서 소맥 三、六〇〇키로그람 이상을、 끄라이옵쓰주 라까리촌에서는 一헥터에서 소맥 三、五〇〇키로그람을 수확하였고 야쓰쓰주 빌제슈찌촌에서는 一헥터에서 추파 대맥 四、五六〇키로그람을、 끄라이옵쓰주 쎄갈차촌에서는 一헥터에서 추파 대맥 四、五〇〇키로그람 등을 수확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풍부한 수확은 전국 농업 경리의 많은 부면에서、 곡물 및 경작 식물 재배에서、 그리고 포도원、 과수원 등에서도 거둘 수 있었다。 다년간 옥수수 재배는 이해처럼 그렇게 광범하게 보급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풍부한 수확을 거둔 적도 없었다。 옥수수、 사탕무、 해바라기、 포도 수확은 루마니야 농촌 경리에서의 최근 二〇년의 전 수확들보다 많이 능가하였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농민을 교양함에 있어서 리용되는 다른 중요한 공간으로 되는 것은 협동 조합이다。 과거에는 협동 조합은 농민을 착취하고 있던 상인들과 부농들에 의하여 장악되여 있었다。 그때 협동 조합은 농촌에서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도구였으며 착취 계급의 리익에 복무하였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협동 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으로는 되지 않았다。

루마니야의 현 협동 조합은 종전의 협동 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근본적 전환의 기초는 협동 조합이 자기 활동을 인민 민주주의 제도(이 제도에 있어서는 인민 정권의 기초는 로동 계급의 지도하의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이다)하에서와 협동 조합도 그 한 부분으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적 우크라드가 인민 경제에서 창설、 발전하는 환경하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로동 계급은 근로 농민들에게 그들이 협동 조합을 지도하며 그들의 수위에서 있는 부농적 및 상인적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부단한 방조를 주었다。 이리하여 협동 조합은 처음에는 소비자들을、 그리고 그 후에는 생산자들을 통합한 근로자들의 대중적 조직체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협동 조합은 지금 농촌에서 기본적인 상업 기관으로 되였으며 농촌 인구 중에서 약 五백만명을 망라하고 있다。 협동 조합 상점

수는 二만 二천을 넘는다。 一九五四년 八월부터 一九五五년 八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벌써 一三〇개의 농촌 종합 상점을 포함한 九七一개의 소매점이 개업하였다。 협동 조합을 통하여 로동 계급은 근로 농민들에게 더욱 더 값싼 공업 상품의 많은 량을 공급한다。 이 량은 해마다 장성하고 있다。 一九四八년과 一九五二년 사이에만 하여도 협동 조합을 거쳐 공급된 공업 상품량은 一〇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농촌에 공급되는 상품량의 부단한 장성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뚜렷이 말해 주는 것이다。 一九五三년에 와서는 농촌에서 면직물과 기성복은 三배로、 피화는 三배 이상으로 판매되였다。 이 해 一·四분기에는 一九五四년 一·四 분기에 비하여 피화는 二七% 이상、 가공 철제품 및 철제 반제품은 六三% 이상、 가정용 금속 제품은 五四% 이상、 가구는 三〇〇% 이상、 농산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도구와 제품들은 一九% 이상 더 판매되였다。 협동 조합은 도시와 농촌 간의 류통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더욱 더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협동 조합은 도시와 공업 지대의 근로 주민들에게 수요되는 다량의 농촌 곡물을 공급했다。 一九四八년과 一九五二년 사이에 협동 조합을 거쳐서 농촌 생산물이 판매된 총액은 一〇〇%로 증가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협동 조합의 주요한 의의는 그가 근로 농민들을 사회주의의 길로 용의하게 전환시키는 데 전제를 조성하면서 수백만 중소 농민 경리의 개인적 리해를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리해와 잘 결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라는 데 있었다。 협동 조합은 그에 인입된 수백만 근로 농민들에게 처음에는 공급과 판매 분야에서、 그 다음에는 생산 분야에서 공동 작업의 원칙을 깊이 인식케 한다。

근로 농민들에게 전야 작업을 도와 줄 목적으로 농기계 임대소들이 협동 조합들이 있는 근방에서 일한다。 금년에 三、八〇〇개에 달한 이 임대소들은 자기 관리하에 三、五二五대의 곡물 선별기、 一、八七八대의 종자 정선기、 七三대의 종자 선조기、 八一대의 자동 제초기、 八三〇대의 쇠스랑、 一六、五三四개의 보섭、 一六、九一九개의 써레와 기타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근로 개인 농민들에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공동 로동을 가르쳐줄 목적으로 협동 조합들에서 협동 목양을 조직하였다。 이 해에 一二五、〇〇〇 여 호의 근로 농민들을 망라한 협동 목양 三、〇〇〇개소가 조직되였다。 지난 해에 비하여 협동 목양 참가자 수는 四%나 장성되고 인입된 면양 수는 八%나 장성되였다。

근로 농민들을 공동 작업의 정신으로 교양할 목적으로 공예 식물、 야채 및 청채들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근로 농민 조합들이 조직되였고 또 발전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조합들의 수는 二、七六五개를 헬 수 있다。 근로 농민들은 이 조합을 거쳐서 공예 식물、 야채 및 청채 재배、 국가 기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있어서 정부는 크레지트로 원조하고 있는 바 이 원조는 생산물、 기계、 농업 기술적 지시 등등을 실현함에 필요한 계약에 의한 전불의 형태를 취한다。 국가는 인수한 농산물 댓가를 조합에 망라된 농민들에게는 개인 농들에게 주는 것보다 五%를 더 지불한다。

근로 농민들의 개인 경리를 백방으로 지지하면서 농업 생산물 증가 및 농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루마니야 로동당은 항상 농민들이 빈궁과 착취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단 농촌 경리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농업 생산물과 개인 경리의 제고를 목적으로 근로 농민들

은 우량 종자 및 농업 기술적 지도들을 받는다。이 방면에서 벌써 거대한 성과를 보았다。당은 당 및 국가 기관들에게 농업 생산물 제고를 위하여 개인 농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가능성들을 리용할 것을 호소하였다。이 시책의 결과 一九五四년 알곡 총 생산고는 거의 九백만 톤에 달했으며 이 해에 옥수수를 포함한 곡초에 대한 一九五五년 五개년 계획 과제가 현저히 초과 실행되였으며 그리하여 알곡 생산고는 천백만 톤을 릉가했다。

근로 농민의 개인 경리는 농업 생산물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자기 자체의 구조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一九四九년 四월 三——五일 루마니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전 경작 면적 九、七五一、〇〇〇헥터 가운데서 九五·七%가 개인 경리에게 속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농촌 경리의 구분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과의 호상 관계에 관하여 말한다면、그것은 다음 도표와 같이 된다。

경지면적(헥터)	농 호	%		
〇·五 이하	二三二、〇〇〇	七·六	一七·二	五三·二
〇·五로부터 一까지	二九五、〇〇〇	九·六		
一" 三"	一、一〇三、〇〇〇	三六·〇		
三" 五"	七〇四、〇〇〇	二二·九	四〇·七	
五" 一〇"	五四六、〇〇〇	一七·八		
一〇" 二〇"	一五〇、〇〇〇	四·九		
二〇" 五〇"	三二、〇〇〇	一·〇		
五〇 이상	五、〇〇〇	〇·二		
계	三、〇六七、〇〇〇	一〇〇·〇		

이 도표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농민 경리의 五三·二%가 토지 三헥터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며 七六·一%는 五헥터 이하를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압도적 다수 경우에 근로 농민들의 경작지는 매 一、〇〇〇——二、〇〇〇 평방 메터의 땅이 넷、다섯、지어는 열 이상의 경구로 분할되여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파가라슈쓰크군에서는 농가가 四〇개의 경구로 분할된 것을 보게 된다。이러한 세분된 상태는 민족적인 그리고 높은 생산을 위한 농촌 경리의 길에 엄중한 장애로 되였다。두 밭 사이의 경계지는 우리 나라 경작지의 약 五〇만 헥터를 차지하는바 (이 면적을 가령 경작지로 사용한다면 대략 소맥 六만 차량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경에 해독으로 되며 주로는 전야 개간에 기계를 리용함에 장해로 된다。

다른 방면으로 농민 경리는 지금 농촌 경리의 확대 재생산을 실현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그러나 사회주의적 산업은 확대 재생산의 성격을 띤다。공업과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은 농촌 경리의 급격한 앙양이 조건지워 주게 된다。농촌 경리의 이러한 앙양을 위하여서는 소방 경작으로부터 집약 경작에로 전환해야 하며 뜨락또르 및 농기계들、야쟁 및 화학 비료들을 리용함이 필요하며 선진적인 농업 기술 방법들을 도입함이 필요하다。이것은 다만 집단 농촌 경리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공업도、그리고 농촌 경리도 사회주의적 기초를 가져야 한다。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인민 정권은 오래 동안 두 개의 전연 다른 기초、즉 인민 경제에서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반대하여 싸우며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를 산생하는 개인 농민 경리에 의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는 토지도 포함한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의하여 조건지워진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루

마니야에서는 토지 국유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헌법에는 토지는 그를 경작하는 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토지의 사회적 소유에로의 전환은 농촌 경리 집단화의 진척에 따라 실현될 것이다。광범한 집단화의 기초 우에서만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완전히 숙청할 수 있으며 착취 계급 없는 사회、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一九四九년 四월 三——五일 전원 회의에서의 자기 보고에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 집단 경리의 발전과 그의 숫적 장성은 오로지 개량된 농 기계들로써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장비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집단 경리 사업을 지도할 능력을 가진 농업 기술 간부들의 준비에 따라、

집단 경리의 우월성과 필연성의 문제들에 대한 광범한 근로 농민 대중의 의식성의 장성에 따라서만 진행될 수 있으며 또 진행되여야 한다』。

농업 집단 경리 조직을 함에 있어서나、협동 로동의 다른、낮은 형태들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원적 기초 우에 근로 농민들을 결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된다。당은 집단 경리 및 토지 공동 경작 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강제적 조치나 행정적 방법도 엄중히 비난하였으며 당의 로선이 위반되거나 외곡되지 않도록 심심한 주의를 돌렸다。

이와 함께 당은 사회주의적 개조는 스스로 진행된다는 의견을 비난하였으며 근로 개인 농민들에게 기계의 도움을 받는 토지 공동 경작이 가지는 우월성을 확신시키며 그들을 토지 공동 경작 조합과 집단 경리에 통합되도록 향도하기 위한 계통적이고 꾸준한 정치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一九四九년 하반기에는 이미 四、〇〇〇호의 근로 농민들이 五六개의 농업 집단 경리를 조직하였다。이들은 집단 경리의 모범으로 되였는바 여기에서 개인 농들은 집단 경리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고 토지 경작에서의 이 높은 형태가 가지는 우월성을 명백하게 믿을 수 있게 되였다。

루마니야 농업 집단 경리 조직의 기초에는 쏘베트 콜호즈들을 모범으로 하는 아르쩰리 제도가 놓여 있다。

농업 집단 경리 조직 및 그들의 모든 활동은 농업 집단 경리 생활의 기본 법으로 되는 규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一九五三년 여름 집단 농장의 대표 회의로서 채택된 규약은 집단 농장이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이며 근로 농민들은 자유 의사에 의하여 그에 가입하며 자기의 땅과 기본 생산 수단을 통합한다는 것을 예견하였다。집단 농장의 기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집단적 로동 및 받은 생산물에 대한 완전 소유이다。

집단 농장에 가입함에 있어서 그의 성원들은 집단 경리의 공동 재산 속에 자기의 전 토지、모든 역축、기본적인 농구、집단 농장에 가입할 때 그들이 가지고 들어 간 지면에 필요한 종곡、가지고 들어 간 가축을 위한 사료、농산물 가공용 도구 및 농구를 제작하며 수리하는 공장 설비 등을 넣는다。

집단 농장 성원—농민들은 개인 재산으로서 주택、개인 소유로 그에게 남은 가축(젖소 혹은 암 수우로서 두 살까지의 어린 것을 두 마리、새끼를 가진 암퇘지 세 마리、열 마리의 면양과 염소) 등을 키우는 데 필요한 축사들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그 밖에 그들은 개인 소유로서 꿀벌 二〇통과 수에 제한 없는

가금과 토끼를 가질 수 있다。 집단 농장 성원들의 매 가정에는 개인적 리용으로 채마 밭 혹은 과수 밭 지면 二、〇〇〇——三、〇〇〇평방 메터의 면적이 허용된다。 집단 농장 성원들은 터밭 경작용 소농구들을 소유할 권리도 있다。

집단 농장 성원으로는 그들의 성별 및 국적에 관계 없이 빈농、중농、토지 없는 농민 및 기타 집단 농장에 필요한 一六세에 달한 기타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집단 농장에는 부농 및 기타 착취자들、그리고 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들은 가입할 수 없다。

집단 농장의 최고 지도 기관은 성원들의 총회인바 총회는 위원장과 지도 위원회를 선거하며 새 성원의 접수 및 구 성원 제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계획을 비준하며 각종 폰드액을 규정하며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와의 계약을 비준하며 생산물 분배 및 대차 체결과 생산물 매각 등을 비준한다。

농장에서의 로동은 계획에 의하여 조직된다。 농장 성원들은 상설 농산、가축 사양、포도 재배、 소체 재배 브리가다 등등으로 조직된다。 농장에서 매개인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로력일로 계산되는 기준량이 설정된다。

집단 농장에서 획득된 생산물 중에서 국가에 납부할 몫을 공제하고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에서 수행한 작업을 지불하고 공동 재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총회에서 설정한 량의 종곡과 사료를 남기고 흉작의 경우에 대한 예비 폰드 一五——二〇%와 호상 방조 폰드 二% 가량을 남긴다。 나머지 생산물은 집단 농장 성원들 사이에 매개인이 수행한 로력일에 따라 분배된다。

이런 방식으로 집단 농장의 현금 수입도 분배된다。

집단 농장의 매개 성원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 로동에 의하여 집단 경리로부터 받은 농산물과 금전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으며 터밭에서 나온 수확물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다。

당은 농촌 집단 경리의 조직적、경제적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렸으며 그들에게 많은 량의 상품 생산을 내도록 각 방면으로 되는 원조를 주었다。 정부는 농촌 집단 농장 성원들에게 대단한 특전을 주었다。 례컨대 그들은 공동 재산의 발전을 위하여서와 새 전축물 축성을 위하여 대단히 낮은 리자가 붙은 대부를 받을 특권을 가졌으며 조직된 날로부터 二년 동안 세금을 면제 받으며 대여 곡물에 대한 특권을 리용할 수 있으며 국가에 농산 식료품을 공납함에 있어서는 개인농보다 二〇% 더 높은 값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집단 농장에 우량 종곡 품종이 좋은 번식용 가축、과수원 자료 등을 구입함에 방조를 준다。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 농업 기사들은 그들에게 농업 기술적 방조를 주고 있다。 대규모적 집단 농장에는 국가 복무로 있는 농업 기사들이 항상 일하고 있다。

집단 농장 성원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협동 로동과 그들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기초로 되는 공동 재산의 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역할에 일차적인 주의를 돌린다。 이 협동 로동과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 기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집단 농장 성원들은 전야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개인농보다 훨씬 우월한 농산 및 축산 생산물들을 생산하여 전체 농민들에게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경리가 가지는 우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루마니야 농촌 집단 농장중 맨 처음에 조직된 것 가운데는 아라드쓰끄이주 레나우헤임촌에 있는 농장이 있다。

一九四九년 여름 조직 당시 레나우헤임촌의 농장 『워도리야』는 토지 二七四헥터를 가진 五七개의 농호로 시작하였다。

농장은 五년을 지나 오면서 토지 一、五〇〇헥터 이상을 가진 三三三 농호로 되였다。 공동 재산도 매우 장성하였다。 처음에 농장은 말 一八필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양은 六〇〇마리、말은 거의 三〇〇필、암소는 八〇두、 개량종 빈돈 八〇、 성돈과 자돈 八〇〇、 꿀벌 一〇〇、 천 마리의 각종 가금들이 있다。

농장은 곡물의 높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 一九五三년에 십자형으로 파종한 소맥 전 경작지에서 평균 헥터 당 四、二〇〇키로그람씩을 거두었다。 一九五四년에는 수확이 더 많았다。 옥수수에서는 정방형 파종법을 파종한 지면에서 평균 한 헥터로부터 三、五〇〇키로 그람을 거두었다。 지어 한 경구에서는 한 헥터로부터 七、二〇〇키로 그람을 내였다。

이 농장 성원들은 一九五四년에 일한 로력일에 대하여 소맥 六九차량、 대맥 九차량、 연맥 一四차량、 옥수수 一四九차량을 자기들끼리 분배하였다 。그중의 한 사람인 이온 페르베르는 그의 가족과 함께 일한 로력일 一、〇三五에 대한 댓가로 소맥 二、〇七〇키로그람、옥수수 八、二八〇키로그람、 해바라기 五一八키로그람、 마령서 五一八키로그람、 연맥 四一五키로그람、대맥 三一一키로그람、원두 二〇八키로그람、 사탕 一〇三키로 그람、기타 각종 생산물과 현금 四、一四〇레야를 받았다。

그 주에 있는 나들라끄촌의 다른 집단 농장에서는 一九五四년 수입 분배에서 매 로력일에 대하여 옥수수 一〇•七〇키로그람、 소맥 二•〇七八키로그람、 대맥과 연맥 五〇〇 그람、다우지자 사로 四키로그람、짚 六키로그람、사탕 一三〇그람、그 밖에 여러 가지 생산물로 포도주、사탕물에 담근 과실、포도 감자、대두 배추들、또한 九레야씩의 현금이 차려졌다。 바로 이해에 농장의 축산 부분에서는 말 七、암소 一八、돼지 一二五、양 四〇、그 밖에 많은 가금들을 증가시켰다。 집단 농장의 현금 수입은 총액 一、四二二、〇〇〇레야를 돌파했다。 이 현금으로 농장은 한 대의 화물 자동차、두 대의 수확기、두 대의 풀베기 기계、삼을 베는 기계、 각종 농구들을 얻었으며 큰 전물도 세웠다。

一九四九년 여름에 처음으로 창건되며 그후 백만장자—농장으로 된 집단 농장의 하나는 부카레스트주 차꾸촌의 게오르기 지미뜨로브의 이름을 떤 집단 농장이다。 차꾸에서 나온 이 농장에서 달성한 성과는 루마니야에서 최근 六년간에 조직된 농촌 집단 농장 대다수가 달성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一九四九년에 몇개의 농호로써 조직된 이 농장은 지금 약 四〇〇호로 되였다。 최근 또 一〇호가 로력 애호적 조합원으로 되였다。

근년에 차꾸촌 집단 농장 성원들은 광대한 벼 농장과 四五헥터에 달하는 면적의 채마밭을 만들었다。 그들은 거대한 면적에 공예 작물、주로 면화를 재배했다。 지난해에는 벼와 면화로 약 一백 五〇만 레야의 수입을 보았다。

차꾸 농장은 지금 큰 양축장을 가지고 있는바 보온 장치가 되여 있는 말우리와 분면실이 一五개 있으며 유각축 九〇마리、돼지 二〇〇마리 이상、양 一、〇〇〇여 마리와 八〇〇마리의 가금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 양축장과 소채원은 六五만 레야의 수입을 보았다。

지난해 수입 분배시 농장 성원들의 대다수는 소맥과 옥수수 七、〇〇〇키로그람、현금 一、〇〇〇 여 레야씩을 받았다。 받은 큰 수입은 집단 농장 성원들에게 새 집을 건축하며 라디오와 자전차、젖소 등등을 살 수 있게 하였다。

농촌 집단 농장들의 이와 같은 성과는 다른 주에서도 달성하
였다. 그중의 하나인 끈쓰딴찌주 빨라출 마르촌을 례로 들어
보자. 이 농장은 一九五〇년 여름에 六四개의 농호로 조직된
것인데, 그의 전 재산은 마차 一四대, 암소 七두, 양 一四마리
였다. 一九五四년에 농장은 벌써 젖소와 송아지 一〇〇두, 개량
종의 말 九〇필, 양은 약 一、〇〇〇두, 모돈 四三마리, 자돈
二七〇마리, 오리와 암닭 一、六〇〇마리를 가지게 되였다. 소
채 부분에서도 매우 발전하였다. 一九五四년에 농장은 소채와
축산물 판매로써만 백만 레야 이상의 수입을 얻었으며 三대의
화물 자동차를 샀다. 다섯 해 동안에 보온 장치가 되여 있는 현
대식 축사 三개, 창고 二개, 곡물 창고 四개, 옥수수 창고 二
개, 모돈 분면실 一동을 건축하였다. 집단 농장 성원들의 생
활 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였다. 一九五四년 농장 성원중 一五
명이 새 집을 지었고 三二명이 라디오를 설치했고 二四명은
개인용 젖소를 샀다. 집단 농장 성원들의 자제들로서 고급 및
중등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는 二〇명을 넘는다. 마을의
전 근로 농민들이 농장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五년간, 전 주에서 농촌 집단 농장의 수는 四개로부
터 二六一개로 장성했다. 이 농장들은 농호 二六、九七四, 토
지 二〇〇、〇〇〇헥터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집단 농장에서
거둔 다수확과 그 생산물들의 우수한 질은 가장 선진적인 농업
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전야 작업의 기계화가 가지는 거대한
역할을 시위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집단 농장 성원들에게 상품 곡물과 축산물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도와 주고 있다. 一九五四년과 一九五五년만
해도 집단 농장 성원들에게 건축, 기계 구입, 종축 등등에 대
한 신용 대부금으로 총액 三억 레야를 주었다. 많은 농촌 집
단 농장들은 새로운 분야, 례컨대 공예 작물의 재배, 소채 재
배, 과수 재배, 포도 재배 등을 발전시켰으며 양축장을 새로
시작하였다. 젬라크촌 집단 농장은 대다수를 인공적으로 관
개수리하는 소채 밭 三五헥터를 만들었으며 부카레스트주 왈
라로슈에촌 농장은 면적 一四〇헥터에 면화를 경작하였다.
공동 재산의 부단한 증가 및 강화는 생산을 발전시키며 집단
농장 성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에 복무한다. 집단 농장
의 공동 재산은 현재 一九五三년 수준에 비하면 三三・三%가
증가되였다. 최근에 와서도 一〇〇개 이상의 집단 농장들에
서 화물 자동차를 획득하였다.

생산의 부단한 장성은 집단 농장원들의 물질적 부를 체계적
으로 향상시키는 원천으로 된다. 그들의 수입은 년년 증가하
였는 바 그들이 빈농 또는 중농으로 있을 때의 수입을 훨씬
릉가했다. 가예스트지구 모슈젠촌 집단 농장 성원 마리나 끈
쓰딴찐의 가족들은 五六〇 로력일에 대한 댓가로 각종 생산물
一八、九〇〇키로그람을 받았다. 그 집단 농장의 성원 온 또쟈
는 생산물 중에서 단지 전불 형태로 받은 것만으로써 집 한채
를 세웠다. 수입 분배시 이온 또쟈는 그에게 차려진 생산물로
가족과 함께 『거의 二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근로 농민들을 사회주의 길로 인입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의
의를 가진 것은 중농의 현저한 부분이 집단 농장에로 쏠리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一九四九년과 一九五
〇년에 집단 농장에 인입된 농호의 총수에서 토지 없는 농민
五・六%, 빈농 六二・四%, 중농 三二%였다면, 一九五二년과 一
九五三년에 와서는 토지 없는 농민으로서 집단 농장에 들어 온

것이 七%, 빈농은 三五・二%였는 데 중농 비률은 五七・八%에
까지 올라갔다.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농촌 경리에서 협동 조합의 다른 형태
로 되는 것은 쏘베트 련맹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초
기에 존재하였던 또즈형으로 창건된 토지 공동 경작 조합이다.

토지 공동 경작 조합은 로력 협동 조합의 가장 낮은 형태로
되는 바 그의 사명은 근로 농민들을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길로 들어감을 용이케 해 주는 데 있다.

이 조합에서는 땅, 역축 및 기본적인 농구는 공동 재산이 아
니고 농민들의 사적 소유로 된다. 조합은 밭 고랑을 허물어뜨
리고 내 놓은 토지들을 공동 경작하기 위하여 근로 농민들이 자
원적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직된다. 조합은 근로 농민들에게
뜨락또르와 농기계를 보다 좋게 리용하며 수확을 높이기 위한
농업 기술 방법들을 적용하며 순환 파종을 실현할 가능성을 준
다. 조합에로의 련합은 전야 경작을 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기본적인 농업 작업, 례컨대 기경, 파종, 수확, 탈곡 등은 공
동으로 진행한다. 수입 분배는 그가 조합에 가지고 들어간 토
지 면적과 평균 수확고에 따라 진행한다. 지면이 적은 성원들
은 작업에서 그들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고 그
댓가로 조합원 총회 결정으로 설정된 보수를 받는다. 전반적
성격을 띠는 경제 문제들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당면 문
제들은 총회에서 선거된 지도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토지 공동 경작 조합원들은 농기계 뜨락또르 정류소와의 계약
체결에서 또한 량곡 수매시 국가에 납부하는 계약 체결에서 개
인농보다 큰 특전을 받는다. 그들은 생산 및 공동 재산, 즉
기계 등등과 같은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기 대부도 받는다.

많은 조합은 개인농보다 훨씬 우월한 다수확을 거두었다. 이러
한 례로 오라지야 지구 씨슈쩨라촌 一一월 七일 이라는 명칭을
띤 조합은 지난해에 한 헥터에서 평균 一、一六〇키로그람의
소맥을 거두었는 데 그때 개인농들은 一、五〇〇—一、六〇〇키
로그람을 수확했다. 이 조합은 한 헥터에서 라맥을 개인 경영
부문에서의 중간작보다 七〇〇—八〇〇키로그람 릉가한 二、
二八〇키로그람씩을 수확했다. 옥수수 평균작은 개인농 평균
작보다 헥터당 一、六〇〇키로그람을 릉가했다. 쁠로예쓰트주
울례쓰찌촌 토지 공동 경작 조합은 옥수수는 헥터당 평균 六、
三〇〇키로그람씩, 해바라기는 一、八五〇키로 그람씩을 수확
했다. 수입 분배에 있어서 쁠로예쓰트주 울례쓰찌촌 조합원 끈
쓰딴찐 안겔르 농민은 소맥 四、三〇五키로그람, 옥수수 四、五
〇〇키로그람을 받았다. 수확물을 판매한 부분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그는 말 한 쌍, 새로운 마구 二조, 돼지와 옥수수 타
곡기 등을 입수하였다. 그 마을 싸와 찌베리우는 생산물 분배시
그가 조합으로 들어 간 지면의 몫으로 소맥 二、二五〇키로그
람을 받았고 조합의 다른 성원을 위하여 일하여 준 댓가로 소
맥 九〇〇키로그람을 더 받았다.

금년에도 토지 공동 경작 조합들은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야
쓰끄주 이와네슈찌촌 조합원들은 한 헥터에서 소맥 三、五〇〇
키로그람씩을 수확했다. 부카레쓰트주 쁠로보드지야—미하일
레슈찌촌의 세 개의 조합들에서는 한 헥터에서 평균 八〇〇키로
그람 이상의 알곡을 거두었다. 갈라찌크주 세르바네슈찌촌
조합은 한 헥터에서 평균 소맥 二、三〇〇키로그람 이상을 수확
하였는 데 이것은 개인농보다 五〇〇키로그람 더 많은 것이다.
오라지야주 지오씨그촌 조합원들은 三五헥터 면적에 소맥을 파

종하여 헥터당 알곡 二、五〇〇키로그람씩을 거두었다。농민 파바르나 반치크는 조합에 토지 한 헥터 받을 가지고 가입하였는데 수확물 분배시 자기 토지 몫과 타 조합원을 도와 일한 댓가로 소맥 五、一二六키로그람을 받았다。조합에 망라된 농민들이 달성한 성과는 조합의 부단한 숫적 장성을 가져 오고 있다。례를 들면 끄라이옵쓰크주에서는 이해 여름 六〇일간에 五五개의 새 조합을 창설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것과 합쳐 계 六四一개로 되였고 그중 一九개는 가축을 사양함에 종사하였다。이리하여 이 주에서는 二三、六七六농호가 협동 경리 우에서 토지 一一六、一二二헥터를 경작하고 있다。갈라치크주에서는 二三四개의 조합이 조직되였다。지난해 비르드쓰크주에서는 六二개의 조합이 있었던 것이 금년 八월에 가서는 그 수가 二〇五로 장성되였다。

전국에 걸쳐 첫 농업 집단 경리가 시작된 때로부터 六년간 집단 농장과 토지 공동 경작 조합의 수는 五、七三五로 되였다。그것들은 근로 농민 三五〇、〇〇〇여 호를 망라하고 있으며 공동 경작지 약 一三〇만 헥터를 통합하고 있다。현재 농촌 집단 농장과 토지 공동 경작 조합에 망라된 농민은 전체 근로 농민 중 그리 많지 않는 부분이지만、그들은 장성하며 발전하며 승리하는 층이며 우리 농촌 경리의 미래를 담당하는 층이다。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쎅또르—그들은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농촌 경리에서 전국 경작지의 一二六%를 차지하고 있다。一九四九년 三월 루마니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스의 보고에는 집단 농장들은 자기의 적대되는 력량으로서 개인적인 빈농 및 중농 경리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높은 농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그들의 장성에 방조를 주며、기계 리용이 가지는 우월성과 근로적인 단합이 가지는 우월성을 보여 주는 모범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집단 농장과 토지 공동 경작 조합들은 우수한 결과들을 달성함으로써 근로 농민들에게 그들을 자기 대렬에 인입함에 있어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당은 우의 협조의 기초 우에서 새로운 집단 농장과 조합들을 조직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및 조직적 사업들을 광범히 전개할 것을 당 및 정권 기관들에게 호소하였다。루마니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은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사회주의적 공업의 발전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한 기반을 닦을 가능성을 주고 있다。인민 교육부는 농촌 경리의 기사 및 기술 인재들의 거대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농학부는 六년 동안에 七천 여 명의 졸업생들을 내였다。一九一八년부터 一九四八년까지의 졸업생 수는 三、六六七명이다。과거에는 그때 있던 三개의 중등 농업 학교에서 매년 평균 졸업생 六〇명을 내였다면——최근에 와서는 九八개의 중등 농업 학교에서 매년 졸업생 四、三〇〇——四、五〇〇명을 내고 있다。

당과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으며 물질 생활이 향상된 결과에 농민들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임은 날로 공고화되여 가고 있다。년년 개인농에 비하여 三〇——五〇%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는 농촌 집단 농장과 토지 공동 경작 조합들의 달성한 성과들은 전체 농민들에게 대규모적 경리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시위하고 있다。이것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력량들인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견고한 동맹에 기초하여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더욱 더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 리념의 승리

김 순 경

오늘 세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경제 및 사회 제도、즉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현 국제 정세 발전의 원칙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이 문제를 정확하게 리해하는 것은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리념은 전 세계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기본 명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리념을 지지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세계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우리의 리념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만 세계의 매개 나라들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반동적 제국주의자들이 허위 선전하는 것과 같은 방법、즉 혁명의 『수출』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산 방법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법에 대한 우월성을 더욱 더 뚜렷이 뵈여 주는 환경 속에서 매개 나라의 내부 조건이 발전되고 성숙되는 결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따라서 우리가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다는 사실로부터는 결코 이데올로기 기타 분야에서의 투쟁을 늦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이러한 투쟁은 다만 앞으로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될 것이다。왜냐 하면 날이 가면 갈 수록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여 갈 것이고 이 제도의 부패성과 반동성이 날로 더 뚜렷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한 사회 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로 교체되는 것은 자못 긴 력사적 시기에 걸쳐 진행되는 장구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다。현 세기는 바로 낡고 사멸하여 가는 자본주의 제도가 새로운 사회주의 제도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교체되는 위대한 세기이다。

오늘의 세계는 두 개의 대립되는 진영에로 분렬된 그런 정세에 처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이렇게 비교적 긴 력사적 시기에

결쳐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공존하게 된다는 객관적 불가피성을 론증하는 동시에 그들이 공존하는 전 시기에 결쳐 이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제 원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쏘련은 그가 발생한 첫날부터 평화 정책、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변함 없이 꾸준하게 고수하여 왔다。 이 원칙은 오늘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마치 전술상 고려와 정세의 고려로부터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들고 나오며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듯이 『론증』하려고 불합리한 비방들을 떠벌리고 있으나 이러한 『론증』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증명할 필요도 없다。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교 정책의 어떠한 우연적이며 림시적인 또는 시기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 나라들의 대외 정책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며 이 나라들의 사회 제도와 그의 경제적 및 정치적 기초의 성격에 의하여 조건지어져 있다。

사실에 있어서 어떤 인민들에게 이러 저러한 정권 형태나 사회 생활의 형태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는 것이다。 혁명을 상품과 같이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황당한 허위적 선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오직 이러한 중상으로써 새 전쟁 도발을 목적한 자기들의 침략적 정책을 정당화하여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마치 사회주의 국가들 측으로부터 발단된다는 듯이 추악한 거짓말을 류포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기만하려고 하는 바 그들의 허위성은 엄연한 현실 앞에서、또한 사회 발전의 력사적 합법칙성 앞에서 폭로 분쇄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제도가 공존하는 시기는 불가피적이다。

인류 사회 발전에 있어서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정치적 및 문화적인 세계적 련계가 확대 공고화되는 추향은 력사적 합법칙성이다。

생산 방식의 발전 력사와 이것과 련관되여 있는 교환의 발전 력사는 인민들 간의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세계적 련계가 확대 공고화되는 객관적 행정이 확고하게 수행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객관적 행정은 사람들의 의사와 희망과는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또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인민들 간의 이러한 모든 련계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시기에 특히 광범한 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더우기 자본주의의 최고 계단인 제국주의 시기에 와서는 이 국제적 련계가 더욱 확대되였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경제적、정치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전반적 성격을 띠게된 세계 자본

주의 경제 체제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이것이 수립되는 과정은 모든 인민들의 자원적、평등적 기초 우에서가 아니라 덜 발전된 인민들에 대한 략탈、폭력、전쟁 기타 각종 야수적 억압의 기초 우에서 실현되였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지들에 의하여 인민들 간의 국제적 련계가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실현된 결과는 인민들 간에 격심한 반목과 모순 대립을 조성하였다。 오직 현대 사회의 가장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유일한 세계 경제를 모든 인민들의 자원과 평등의 기초 우에서 조직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동지적 협력과 사회주의적 호상 원조를 기초로 한 그러한 사회를 창설하는 방법으로써 이 과업을 해결한다。

따라서 오직 사회주의의 혁명과 그의 전 세계적 승리만이 유일한 세계 경제에서의 인민들의 완전한 자주적이고 평등적인 련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포괄한 유일한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를 한꺼번에 수립할 수는 없다。

독점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 있어서 맑스와 엥겔스가 간주하였던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이 모든 또는 대다수의 문명한 나라들에서 동시적으로 승리하였다면 사회주의적 경제의 전 세계적 체계가 형성되는 행정은 대체로 동시적으로 진행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맑스의 서거 후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단계에로 이행하게 된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혁명이 모든 나라 또는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동시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였다。

위대한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심각한 분석의 기초 우에서 최초에는 어떤 한 나라、개별적인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제국주의 전선의 파렬이 가능하다는 것、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모든 또는 대다수의 문명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동시적인 승리는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과 따라서 또 이 나라들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제가 동일하지 않게 성숙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레닌의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유일한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수립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장구한 행정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점차적으로 그러나 부단히 탈락하여 계속 장성 강화되는 사회주의의 경제 체제로 련합하는 행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의 혁명에 관한 레닌적 리론은 二〇세기 전반기의 전 세계사적 행정에서 위대한 점열을 이겨냈다。 지구의 六분의 一의 령토 우에 사는 인류의 거대한 대렬을 자본의 지배로부터 구출한 로씨야에 있어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는 이 리론의 승리였으며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에 구라파 및 아세아에서 六억 인구를 가진 중국을 포함한 일련의 나라들이 자본

주의 체계로부터 리탈되여 사회주의 체계에 련합된 것이 이 리론의 정당성을 또 한번 훌륭하게 확인하였다.

오늘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리탈하여 사회주의의 발전의 길로 들어 선 나라들은 九억의 인구, 즉 전 세계 인구의 三분의 一 이상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단일한 사회주의 세계 경제 체제가 형성되는 행정에 있어서 력사의 무대로부터 영영 떠나가 버리는 자본주의와 계속 장성 강화되는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시기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의 원칙들은 어떤 것인가?

두 제도가 공존하는 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추향이 가능한바 그 첫째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무장적 투쟁의 추향이며 둘째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의 추향이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一○월 혁명이 승리하고 세계 최초의 프로레타리아 국가가 창건된 후 국제 부르죠아지는 프로레타리아 국가에 대한 증오와 적의를 가지고 쏘련을 궤멸 압살하려고 백방으로 기도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쏘련의 로동 계급의 모범을 따르려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이 더욱 더 혁명적으로 됨에 따라서 국제 부르죠아지들은 이를 가만이 방관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적의와 증오를 품고 사회주의 국가를 파괴하기 위하여 무장 간섭, 경제적 봉쇄 기타 각종 발악적 책동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로 一九一七년 一○월부터 시작된 세계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전 행정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자기 세대를 다 산 자본주의 제도와 장성하며 륭성하여가는 사회주의 제도간의 격렬한 투쟁으로써 충만되여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를 교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시도와 진격들은 이미 자유를 전취하였으며 자유로운 로동의 기쁨을 인식한 인민들의 타승할 수 없는 무비의 견인성 앞에서 걸음마다 분쇄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궤멸시키려고 한 제국주의자들의 최대의 시도의 하나였던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만을 상기하여 보아도 충분하다.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한 추악한 계획의 결과는 그들이 예기하였고 타산하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였던 것이다. 쏘련은 궤멸되지도 않았으며 약화되지도 않았다. 쏘련은 적들을 분쇄하고 더욱 강화되였으며 二차 대전의 결과 수다한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탈락하여 사회주의 진영에 련합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은 비할 바 없이 장성 강화되였다. 궤멸된 것은 몇개의 주요한 제국주의 강국들이였으며 약화된 것은 자본주의 체계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에 있어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 한 반동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할 목적으로 수다한 군사 기지들을 창설 확장하고 있으며 허다한 군사 블럭들을 조작하고 있으며 온갖 파괴적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격화시키고 있는 책동은 그들 간에 내재한 모순들이 더욱 심각하게 됨에 따라서 그 근저가 더욱 크게 뒤흔들리고 있으며 그의 약체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폭로되고 있다.

단독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으리만큼 약화된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자유 국가』들의 『련합』을 운운 하면서 온갖 획책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자유 국가』들의 『견고한 동맹』이니 『련합』이니 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며 더우기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함에 있어서 그들이 공동 진출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모순들 때문에 용이하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들 호상간의 모순들 중에서 가장 첨예한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장 문제 하나만을 보아도 이것은 명백하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자기의 경쟁자들을 침몰시키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바 이것은 그들의 『련합』을 곤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에 있어서 매개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수출을 더 한층 증대시키는 것은 경쟁자들에 대한 격렬한 투쟁의 결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형편은 서부 독일과 일본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게 된 후 사태가 특히 첨예화되였다. 오늘 서부 독일과 일본은 二차 대전 이전에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 지위를 거의 회복하였다. 영국은 서부 독일과 일본의 활동이 더욱 더 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서부 독일과 일본은 영국 시장에 자기들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영국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고 있다. 영국, 불란서, 서부 독일, 일본 등은 미국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고 있다. 오늘 미국은 자기 시장에 외국 상품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 대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금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투매 기타 타국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영국과 불란서의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지반을 탈취하고 있다. 미국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는 독일 독점체들의 급속한 장성은 영국과 불란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오늘 날로 장성하는 사회주의 세계 시장의 발전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경계선을 더욱 더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시장 문제를 극히 첨예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멍에를 벗어 던진 일련의 국

가들——인도、인도네시야、비르마 기타 국가들이 자기의 민족 공업을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선 결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업 제품 판매 시장은 더욱 축소되였다。 시장 문제 기타 일련의 모순들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련합』한다는 것은 아주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늘 많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에서 그들의 출로를 타개하려고 하는 지향이 날로 강화되여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밖에 또한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그들 자본주의 국가들 호상간의 전쟁에 있어서보다 자본주의의 운명에 대하여 비할바 없이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섣사리 나설 수도 없게 되였다。 특히 변동된 오늘의 정세하에서 그들은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까지도 곤난하게 되였다。 그것은 오늘의 세계가 제一차 및 제二차 세계 대전을 앞두었던 옛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력사적 조건하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직도 제국주의가 의연히 존재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제적 지반이 소멸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반동적인 독점가 계층이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위험성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정치적 력량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타산한 기초우에서 쏘련 공산당 二〇차 대회는 오늘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결론을 내렸다。

실로 오늘 력사상 처음으로 평화 사업은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계에 의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라파와 아세아에는 군사 쁠럭 정책과 인연을 끊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들이 존재하는 바 평화 사업은 이러한 국가들의 존재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여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투쟁에서 처음으로 위력한 평화 옹호 투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 오늘의 평화 옹호 투쟁의 특징은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기의 투쟁에서 비단 정치적 수단 뿐만 아니라 극히 효과적인 물질적 수단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물질적 수단이란 전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는 비사회주의 국가들도 포함한 일련의 강력한 국가들의 위력이다。

오늘날 이렇게 강력한 자기의 수단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단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평화 력량은 전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리만큼 강력하며 위대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분쟁을 조작하고 이를 리용하여 제三차 세계 대전을 도발하려던 미국 침략자들의 기도를

파탄시킨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늘 평화의 력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장성 발전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제국주의 지배층이 추구하는『힘의 립장에 선』정책은 이 나라들에게 조금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동시에 이 정책은 자본주의 체계의 인민 대중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그들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인류의 압도적 다수는「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모험적이며 반인민적인 것으로서 배격하고 있다』(흐루쑈브、제二〇차 당 대회에서의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업총결 보고)。

이 엄연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자본주의의 운명에 대하여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과 광범한 근로 대중은 만일 이 나라 지배층들이 감히 이러한 전쟁을 도발한다면 인민들을 추기적으로 전쟁의 피바다에 몰아 넣는 제도에 대하여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다。』(상동) 그러니 출로는 평화적 공존 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는 다만 호상 충돌로써만 규정될 수는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일류 력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산생된 모순——붕괴하여가는 자본주의와 장성하여가는 사회주의간의 모순은 반드시 그들 간의 무장 투쟁의 방법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간주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대립 및 호상 배제하는 두 개의 측면으로서 서로 항상 류혈적 투쟁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다만 평화의 원쑤들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제도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가능성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그것은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어떠한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절대적으로 고립되여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동일한 경제 체계의 국가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이한 경제 체계를 가진 국가들 호상간에 대하여서도 해당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일정한 경제적 련계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내 경제 상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의 설정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경제적 련계를 설정하는 것은 쌍방에 모두 필요하며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기초는 통상이다。

오늘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경제의 폭풍같은 앙양은 실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련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오직 미제가 고의적으로 조성하여 놓은 인공적 난관 때문에 이 가능성과 조건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미제의 압박 밑에 일련의 자

본주의 국가들도 미국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로선을 따랐다。

이러한 로선을 실천하면서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세계 경제 시장으로부터 절연시키고 그의 산업 발전을 제지 또는 방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정책은 그들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우선 자본주의 국가들 자신의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타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봉쇄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사회주의 세계 시장의 강화를 초래하였으며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생산적 가능성과 그 생산품의 판매의 가능성 간의 모순을 증대시켰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증대시켰으며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일반적 위기를 심각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곤난성에 두통을 앓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더욱 많은 자본가 계층들이 그들이 부닥치고 있는 경제적 난관、 막다른 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경제적 련계를 설정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통상은 다만 경제적 의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통상을 통하여 사람들 간에는 광범한 접촉이 실현되는 바 통상은 국가들 간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길을 열어 주고 그들을 더욱 접근시킨다。

다음으로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각이한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발전시키가 위하여 훌륭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치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력사적 경험은 각이한 체계를 가진 국가들 간에 호상 불가침에 관한、 중립에 관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호상 원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인도、 비르마、 아프가니스탄 기타 일련의 국가 간에 체결된 우호적인 정치적 협정이 이 나라들의 경제 및 문화적 련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든 국가들의 접촉과 련계를 백방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치가들의 직접적 접촉、 국회、 사회 및 기타 대표단들의 호상 교환、 관광 려행의 발전 기타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촉과 교환은 날과 더불어 확장되여 가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고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바 그의 원인은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서는 객관적 조건 이외에 주관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공존을 위하여 협조하려는 용이성과 평등

및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 평화적 공존을 장애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일부 제국주의 지배층들이 공존을 실현하려고 희망하지 않는 데 있다。 이들은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의 사상과 원칙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 대신에 전쟁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또는 인민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때때로 평화와 협조에 대하여 떠들어 대지만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제적 협조를 설정할 데 대한 구체적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그러한 협정의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지 각색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난번 쏘련 내각 수상 느·아·불가닌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서한을 보내여 우호 협조 조약을 체결할 데 대한 용의를 표명하였을 때 미국이 취한 립장에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평등 및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의 준수는 국가들 간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규정적인 것으로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평등의 원칙에서가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협조』할 때 그 내용에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을 포함시키기 대문에 이러한 미국의 『협조』가 많은 나라들에서 단호히 거부 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무대에서 그 나라들이 노는 역할에는 관계 없이 오직 국가들 간의 평등적인 호상 협조만을 주장하며 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설정된 국제적 관계의 새로운 형에서 명백히 체현되고 있으며 또한 인도、 비르마、 아프가니스탄 등 광범한 평화 애호적 국가들과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평등 및 호상 내정 불간섭의 원칙 우에서라야만 평화적 공존이 성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면서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적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와 경쟁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것은 두 제도간의 평화적 경쟁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결정적인 우월성이 나날이 명백하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의 무정부 상태와 공황、 실업 등 자본주의에게 고유한 모순들이 낳는 비참한 결과들을 모르며 생산의 부단하고 무제한한 장성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계속적 장성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체계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수천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을 끈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자본의 착취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광범한 근로 대중의 가장 열렬한 희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공산주의가 가져다 주는 우월성을 세계의 모든 근로자들이 일

단 확진하게 되면 그들은 조만간에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흐루쑈브, 제二〇차 당 대회에서의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두 제도 간의 평화적 경쟁이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의 평화적 경쟁에서 자만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늘 국제 정세 발전의 전반적 추세는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리념이 승리하여 나아가는 그 행로를 어떠한 힘도 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이 마치도 불가능하다는 듯이 떠들어 대고 있는 바 그들의 『론거』의 허위성은 더욱 더 철저하게 폭로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원인』으로써 이미 파산된지 오랜 사회주의 국가들의 『침략적 성격』에 대한 『리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낳는 제 원인은 오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력사적 경험은 전쟁의 근원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데 기초하여 설정된 사회 관계에 항상 있었으며 또 있다고 하는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을 전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독점체들의 탐욕적 욕망,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내외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대자본가들 호상간에 진행되는 판매 시장, 원료 원천, 투자권, 세력권을 위한 투쟁이 전쟁을 낳게 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독점체들과 금융 과두 및 대재벌이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남의 원료 원천지를 략탈할 데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며 투자권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에는 침략적 목적들이 있을 수 없게끔 되여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 침략 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가 추호라도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치부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에 리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그루빠들이 있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을 청산하였다. 혹은 우리에게 충분한 령토와 자연 부원이 없는가. 혹은 원료 원천이나 상품 판매 시장들이 우리에게 부족되는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쓰고도 남으리만큼 가지고 있다. 묻노니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전쟁이 필요하겠는가. 우리에게는 전쟁이 필요치 않다. 우리는 수백만 사람들이 한 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의 탐욕스러운 리익을 위하여 전쟁에 몰려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흐루쑈브, 제二〇차 당 대회에서의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제국주의자들의 허위 선전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고하고도 항구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혈연적

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평화는 장엄한 건설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첫 조건으로 되는 바 이 계획에 의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및 문화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적 태도를 례로 들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 였기 때문에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 나라 인민들은 무의미하게 지주와 자본가들의 정권을 전복하고 그들이 설정하여 놓았던 사회적 질서들을 청산해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독점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에 대하여 자랑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사회 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되여야 한다는 것을 념두에 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사회 질서를 각이하게 평가하며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에 전쟁이 불가피적인가 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적 답변을 준다. 각이한 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 공통적인 리해의 기초 우에서 행동한 사실을 우리는 수다히 알고 있다. 二차 대전에서의 실례만 보더라도 독일, 일본과 미국, 영국, 불란서는 동일한 체계의 국가였지만 그들은 싸웠으며 미, 영, 불과 쏘련은 서로 상이한 체계를 가진 국가이지만 그들은 싸운 것이 아니라 협력하였다. 이것은 서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 각이한 체계를 가진 국가들도 완전히 협력할 수 있으며 만일 협력할 희망이 없다면 동일한 체계의 국가들 간에 있어서도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떠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론거』의 허위성은 이러하다.

* * *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리념은 오늘 지구의 동 서반구에 사는 수억만 인민들 속에 더욱 널리 침투되고 있으며 수 많은 국가와 인민들로부터 접수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만 하여도 식민지 예속 국가였던 나라들의 인민에 의하여 창건된 국가들이 오늘 평화적 공존의 적극적 지지자로서 출현하였는 바 인도, 비르마,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야, 애급 기타 일련의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자립과 독립에 대한 기대를 제국주의의 정책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정책——인민들 간의 평화와 친선의 정책, 평화적 공존의 정책과 밀접히 련결시키고 있다.

一九五四년 여름 주 은래 총리와 네루 수상의 공동 성명에 의하여 천명된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은 그 후 사회 제도를 달리하는 수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찬동을 받았으며 특히 반둥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이 원칙을 국가들 간의 협조와 공고한 평화를 위한 기초로서 확인하는 선언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지난번 쏘련 정부 지도자들이 인도、비르마、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과 조인한 공동 성명들에는 쏘련과 이 나라들과의 관계가 령토 완정 및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불가침、상대방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평등 및 호혜、평화적 공존 및 경제적 협조의 확고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원칙을 계속 충실하게 준수할 데 대한 이 나라들의 확고한 립장이 표시되여 있다。 공동 성명들에는 또한 평화적 공존의 이 원칙을 대 소 국가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 평화의 공고화와 인민들 간의 유익한 협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이 표명되여 있다。 다방면에 걸친 이 나라들의 경제 및 문화적 협조는 의심할 바 없이 이 나라 인민들 간의 친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실로 이것은 평화적 공존에 관한 리념의 대승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모든 사실들의 영향 밑에서 오늘 더욱 더 많은 부르죠아 국가들과 정객들이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의 문제에 진실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자』들도 자기의 실지 경험을 통하여 자기들에 대한 실제적 위협성이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동료』인 미국의 침략 정책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더욱 더 느끼기 시작하였다。

지난 四월 쏘련 지도자들은 영국을 방문하고 영국 정부 지도자들과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많은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하게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유・엔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으며 민족적 독립 및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령토 완정、그리고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이 사회 제도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들의 친선적 협조와 평화적 공존의 기초로 된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두 나라간의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며 문화적 및 기타의 련계를 확장시킬 데 대한 긍정적 결과가 달성되였다。

쏘 영 두 나라 지도자들 간의 직접적 접촉은 호상 성의를 표시하고 호상 상대방의 리익을 존중히 한다면 국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쏘련과 서방 국가들 간에는 평화적 공존에 립각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체면을 크게 모욕 당하고 있는 불란서의 지배층 내에서도 미국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인사

들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쏘련 정부의 초청을 받은 불란서 수상 기 몰레와 외상 피노는 지난 五월 중순에 모쓰크바를 방문하고 쏘—불 량국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그의 개선 방도에 관한 문제、그리고 국제 문제 전반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정치、경제 및 사회 제도에 존재하는 차이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들 간의 호상 신뢰의 공고화와 관계의 개선을 촉진시킬 그러한 조치들을 강구할 데 대한 자기들의 굳은 의지를 강조한 두 나라 대표단간의 회담은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였다。

이리하여 구라파의 三대 렬강——쏘、영、불 정부 지도자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필요성을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특히 북대서양 쁠럭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과 불란서 두 나라가 쏘련과의 평화적 협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 사실은 평화적 공존의 리념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된다。

또한 최근에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한 분란、스웨덴、노루웨이、덴마크 기타 일련의 국가 지도자들도 쌍방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호상 간의 경제 문화 과학적 련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우호적 협조 관계를 강화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성명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많은 국가들이 평화적 공존에 관한 원칙을 평화의 리익과 인민들의 복리의 리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접수하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두 제도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리념이 빛나게 승리하고 있는 국제 정세 발전의 전반적 추세를 어느 누구도 가로 막을 수는 없다。 이 승리는 아직도 『힘의 립장에 선』정책을 고집하면서 국제적 협조를 반대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일부 계층들에게 주는 크나 큰 타격으로 되며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더욱 약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된다。

모든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의 리익을 지향하는 리념——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리념이 전 세계에서 보다 많은 지지자들을 쟁취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꼰술따찌야

력사 발전에 있어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

황 장 엽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의 의식, 사상이 아니라 근로 대중의 실천적 활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이 보편적 진리를 무시하고 력사는 어떤 영웅이나 천재가 창조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러한 주관주의적 견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착취 계급들에 의하여 주장되여 왔으며 따라서 그들의 계급적 리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계급 사회가 출현한 이후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이 분리되였다。 착취 계급은 주로 정신 로동에 종사하게 되였다。 여기로부터 착취 계급들은 육체 로동과 또는 이에 종사하는 근로 대중을 멸시하며 천대하게 되였으며 력사를 창조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오직 인간의 두뇌이며 지식이며 지식을 소유한 탁월한 천재라고 주장하게 되였다。 이 주장은 사회 발전에서 제一차적인 것은 물질적 실천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관념론적 견해로서 착취의 대상인 인민 대중을 억압하며 그들의 해방 투쟁을 마비시키려는 착취 계급들의 기도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사회는 인간의 로동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관계로써 맺어진 인간의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와는 달리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변화 발전이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진행된다。

인간은 의식, 일정한 사상, 리론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반드시 인간의 실천에 참가한다。 그러므로 의식은 실천과 유리되여서는 안된다。 사상 리론은 인민 대중을 포착하고 그들의 실천과 결부되여서만 세계를 변혁하며 새 것을 창조하는 물질적 력량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 발전에서의 리론의 역할을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으며 또 선진적 사상 리론을 소유한 걸출한 개인들의 역할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사상, 리론은 반드시 그것이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익을 표현하는 때에만 실천적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였다는 것은 결국 생산력이 발전되였다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생산 관계를 기초로 한 사회 제도와 문화가 발전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발전에서 인민 대중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결국 생산 활동에서와 새 사회 제도의 수립을 위한 혁명적 활동에서와 그리고 과학, 예술 등 정신 문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민 대중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을 증명하면 충분할것이다。

생산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인간의 로동력과 로동 도구이다。 인간의 로동력 없이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생산은 불가능하다。 로동은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이다。 로동 도구를 비롯한 모든 로동 수단도 결국 로동의 산물이다。 공장과 기계 등은 결코 자본가들의 화폐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로동의 산물이다。

로동 도구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로동에서의 경험의 결과이다。 인간은 로동을 통하여서만 자연을 개조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부단히 자기의 로동 도구를 개선하게 된다。

생산력에서 능동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인간의 로동력이다。 현대적 정밀한 기계는 인간의 사유까지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되였다。 일초 동안에 몇 천개의 복잡한 계산을 하는 계산기도 있으며 형식 론리학적 사유를 하는 기계와 책을 읽어가는 기계, 지어는 외국어를 번역하는 기계까지도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앞으로는 모든 것을 기계가 할 것이니 로동자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계가 발전되여도 인간의 모든 다양한 로동 활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로동은 어느 때나 필요하며 로동력이 생산력의 주요 요소임을 그만 둘 수는 없다。 이것으로 보아도 로동력의 소유자인 근로 대중이 생산력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생산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초에는 생산 활동이 놓여 있다。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생산

관계를 요구하게 되며 또 생산력의 발전은 모든 정신 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지어 준다。이런 의미에서 근로 대중은 력사를 그 뿌리로부터 발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실천적 활동에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산 관계를 창설하며 새로운 사회 제도를 건설하는 혁명적 활동이다。

모든 사회 제도의 기초에는 일정한 생산 관계가 놓여 있으며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적응한다。부단히 발전하는 생산력은 반드시 낡은 생산 관계와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이 모순의 해결은 낡은 생산 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생산 관계를 창설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따라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모순을 해결하며 새로운 생산 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오직 생산력의 직접적 담당자인 근로 대중이다。낡은 생산 관계의 타파와 새로운 생산 관계의 창설은 반동적 계급이 낡은 생산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한 오직 인민 대중의 혁명적 활동에 의하여서만 수행된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의 격화는 계급 사회에서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게 한다。노예 사회가 멸망하게 되였을 때 노예들에 대한 노예주들의 착취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봉건 사회 말기에 봉건 지주들의 농민에 대한 착취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 단계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모순의 격화는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피착취 계급의 치렬한 계급 투쟁으로 나타 난다。계급 투쟁은 계급 사회 발전의 동력이며 계급 투쟁의 최고 형태인 혁명은 새로운 사회 제도를 창설하는 력사 발전의 기관차로 되는바 수백 수천만의 근로 대중은 항상 여기에서 주동적 결정적 력량이였다。

또한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도 결정적 주동적 력량이였다。

우리 나라 력사상에서도 그와 같은 실례를 허다히 찾아 볼 수 있다。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왜적을 반대하여 가장 용감하게 끝까지 원쑤들과 싸운 것은 봉건적 통치 계급들이 아니라 인민 대중들이였다。당시 인민들은 의병 부대들을 조직하여 도처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왜적의 침략적 야망을 분쇄하였다。

二〇세기 초엽、즉 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되던 그때에 봉건 지배 계급과 친일파들은 일제의 주구로 행동하면서 우리 조국을 손쉽게 일제에게 내주었으나 우리 인민들은 계속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해방 투쟁을 각종 형태로 꾸준히 계속하였다。일제를 반대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의 광범한 의병 투쟁

들과 三·一 인민 봉기들에서 우리 나라의 수 많은 애국적 인민 대중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투쟁하였다。

三·一 운동 이후 점차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의 선두에는 근로 농민과 튼튼히 동맹한 로동 계급이 서게 되였다。일제의 탄압이 강화됨에 따라 지주들은 물론 민족 부르죠아들도 해방 투쟁의 대렬에서 리탈되고 말았다。그러나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들은 계속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三〇년대에 와서 일제의 중국 동북 침략과 관련하여 조선 인민에 대한 그들의 팟쇼적 탄압이 야수적으로 감행되였을 때에도 우리 나라 근로 인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영웅적 투쟁을 계속하였다。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수 많은 우리 나라의 애국적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항일 무장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였던 것이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은 전 세계 인민들 앞에 그의 무진장한 력량을 시위하였다。해방 후 처음으로 국가의 주인공으로 된 조선 인민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의 주구들의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였다。

인간 사회에서 생산적 활동과 혁명적 투쟁은 모든 활동의 기초로 된다。인간의 다른 모든 활동들、즉 정신 문화를 창조하는 과학 활동과 예술 창작 활동 등은 모두 이 두개의 기본적인 사회적 활동에 종속되여 있으며 이와의 련계하에서만 그 본질을 리해할 수 있다。정신 문화의 발전은 물질적 생산 발전의 반영이다。정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과 예술이다。

과학의 발전이 로동 도구의 발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반드시 생산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다。즉 기술에 대한 요구성은 자연 과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격화는 그의 지도적 사상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생과 발전을 조건지운 것은 의심할 바 없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과학、예술의 발전이 생산 발전에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나 그가 반드시 사회의 생산 발전 또는 사회 제도의 발전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과학과 예술은 자기 발전에서 생산에 대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특히 과학과 예술 등 인간의 정신 문화 발전에서는 오직 지배 계급들과 어떤 천재들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허무 맹랑한 것이다。

과학은 인간 실천의 리론적 측면이라고 말한다。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떠나서는 과학이 발생 할 수 없으며 발전할 수도 없다。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생활 필

수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서는 살아나아갈 수 없는 정도로 생산력의 발전이 미약하였던 원시 사회에서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이 분리될 수 없었으며 전문적인 과학적 활동이 생길 수 없었다。 과학은 물질적 실천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실천에서 얻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서부터 발생하였다。

사람들이 토지의 면적과 거리를 측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을 때 기하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에 필요한 계절를 분간하는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천문학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실천의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된 과학은 역시 그가 실천에 복무하는 때에라야만、 실천과 결부되여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 과학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생과 그 기원을 같이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전에 발생한 고대 및 중세기 과학의 발전이 미약했던 것은 그가 생산과의 련계가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과학은 일종 신비로운 것으로 되여 있었으며 다분히 지배 계급들의 취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되여 있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과학은 직접 생산에 도입되게 되였다。『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과학은 급격히 발전하게 되였다。

과학은 생산에 도입되여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결정적으로 생산 기술 발전의 요구에 의존한다。 따라서 과학이 기술의 요구를 떠나서는 또 기술의 발전을 더욱 일반화하며 생산에서 얻은 로동자 농민들의 산경험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과학의 급격한 발전의 원인은、 거기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비할 바 없이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이 높고 과학이 더욱 밀접히 생산과 그리고 근로 대중의 창조적 활동과 련결되여 있기 때문이다。 로동자와 농민들은 매일과 같이 공장과 농장에서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갖 창발성을 발휘하여 기술 발전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이 근로자들의 고귀한 경험 없이는 과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 대중은 항상 과학을 배우며 실천을 통하여 과학 기술 발전에 직접 참가 한다。

사회 과학의 발전에서도 이와 꼭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발생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 모순의 격화와 로동 계급의 혁명적 해방 투쟁의 반영이였다。 그것은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성숙된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의 근본적 리해 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수백만 근로자들을 자기의 기치하에 뭉쳐 놓았으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창조적으로 발전되여 왔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인 맑스와 엥겔스는 항상 인민 대중의 혁명적 실천에 엄격히 의거하여 자기 학설을 발전시켰다。 맑스와 엥겔스는 一八四八년 혁명 전야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반드시 정권을 잡고 지배 계급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발표(『공산당 선언』에서)하였지마는 그를 위한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못하였었다。 다만 一八四八——一八五一년 혁명을 총화하면서야 비로소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파괴함으로써만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단정하였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정권으로써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직 一八七一년 파리 꼼무나의 경험을 통하여서만 그 구체적 형태를 말할 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레닌은 로씨야의 一九〇五년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로동자 병사 대표 쏘베트를 연구하고 이것이 가장 로씨야에서 적합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정권 형태라는 것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에서 그 특수성에 따라 각이한 형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였다(『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의 이 천재적 예견은 제二차 대전 후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발생으로써 그 정당성을 더욱 확증받았다。

위대한 천재들과 과학자들이 새로운 리론을 창조하는 데서 노는 역할은 크다。 그러나 그 리론들은 반드시 근로 대중의 생산적 또는 혁명적 실천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근로 대중은 실천을 통하여 항상 창발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리론의 창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근로 대중은 과학자들에게 모든 물질 생활 조건을 보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리론과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창의 창발성과 생산 활동에서의 그들의 경험、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그들의 장엄한 투쟁을 연구함이 없이는 우리 나라 과학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과학 발전에서 인민 대중들이 노는 역할은 더욱 증대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과학이 인민에게 복무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 직접 인민의 것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특권 계층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 자신이 모두 배우고 있으며 높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학 연구 사업과 새 것의 발견과 발명에 대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간다면 과학은 진실로 인민의 것으로 될 것은 두 말 할 것 없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간의 차이가 점점 희박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도로 발전된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게 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과학 연구는 벌써 어떤 전문가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일상적 사업으로 될 것이다。

과학은 인민 대중에 의하여 발전된다。 인민 대중의 과학 발전의 수준이 미약하고 과학의 성과를 실생활에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없을 때에는 어떤 한 두명의 천재들의 발견과 발명이 대중과 련결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문학 예술 부문에 있어서는 과학에서 보다도 결출한 개인、즉 천재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인민 대중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 창조에 참가하여 결정적 역할을 논다。 인민 대중은 자기들의 로동 과정에서 또는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에서 로동을 존중하며 동지를 사랑하며 정의의 승리를 환영하는 감정 등을 이런 또는 저런 형태의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창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신화와 전설、이야기들과 민요들은 인민 대중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흥부와 놀부』、『콩쥐 팥쥐』、『춘향전』 등은 모두 인민들의 창작이며 여기에는 인민들의 기쁨과 슬픔、증오와 사랑、희망과 념원이 반영되여 있는 것이다。

예술적 천재들은 인민이 창조한 이 위대한 창작을 토대로 하여 여기에다 더 높은 새로운 인민 생활의 내용을 담아 발전시키는 데 그들의 공적이 있다。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의 기초에는 인민들이 창조한 전설과 신화와 옛말들이 놓여 있으며 위대한 작곡가들의 웅장한 씸포니의 기초에는 인민들의 창작인 민요가 놓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희랍 신화는 희랍 예술의 토대라고 말하였으며 로씨야의 민족 음악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그린까는 음악은 인민이 창조하는 것이며 예술가는 다만 그것을 편곡할 뿐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지금 사회주의 사회에서 고도로 발전된 예술은 인민 속에서 나온 예술 전문가들과 그들의 지도하에 공장、농촌들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예술 써클들의 활동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다。

근로 대중은 이 써클을 통하여 광범히 인민적 예술 창작에 참가하고 있다。 예술 전문가들은 로동자、사무원들、비전문 예술가들의 창작에서、공장과 농촌의 연예 써클들의 창작 활동에서 인민적 예술의 새것을 배우며 그것을 자기의 창작 발전의 기초로 삼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발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진정한 예술은 항상 인민적 성격을 가진다。 인민의 희망과 슬픔과 기쁨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민을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지 않는 작품들은 결코 훌륭한 인민적 예술 작품으로 될 수 없다。

사실주의적으로 객관적 현실을 잘 반영한 작품은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 착취 계급의 타락하고 허위로 충만된 생활의 폭로와 착취 제도의 비인간적 죄악의 폭로와 근로 대중의 위대한 력량의 묘사는 인민 대

중을 해방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 정신적 무기로 된다。

착취 계급들은 항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작품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러한 작품들은 그들의 죄악과 무력、불가피적 멸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현실을 외곡하며 사회의 모순을 음폐하며 근로 대중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예술 작품을 리용하려고 한다。 허위와 반사실주의와 반인민성은 착취 계급에게 고유하며 진실성과 사실주의와 인도주의는 근로 대중에게 고유한 것이다。 사실주의와 인민성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

과거의 우수한 작가、예술가들 중에서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 반동적 요소들과 진보적、인민적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사상의 인민적 요소는 흔히 인민에 대한 동정、막연한 인도주의로써 표현되는 때가 적지 않다。 똘쓰또이는 무저항주의자로서 반동적 사상을 가졌지마는 동시에 강한 인도주의자였다。 인민들은 똘쓰또이의 작품들에서 그의 숙명론적 견해와 무저항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와 결부된 인민성의 표현을 찬양하는 것이다。

착취 계급들은 항상 과거의 위대한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의 그들의 제한성을 악용하여 그들을 자기들의 종복으로 선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실주의적 작품은 착취 제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노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멸망을 촉진시킨다。 또한 이런 작품들은 착취 제도의 상충 구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의 정신적 재산으로서 영원히 계승 발전된다。

이와 같이 진정한 예술은 인민적 예술이며 인민 대중에 복무하는 예술이며 그의 발전은 인민 대중의 직접적 참가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생산적 실천에서와 혁명 투쟁에서 또 문화 건설에서 노는 인민 대중의 역할은 력사적으로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인류의 력사 발전은 근로 인민들의 역할의 점차적 장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계급 사회에서 인민 대중은 항상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무진장한 창조적 정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근로 대중을 완전히 해방시킨 사회주의 사회는 인민 대중이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사회와 국가의 주인공이 되였으며 공장과 기업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사회의 근로 대중은 무한한 적극성을 가지고 생산에서 또는 국가 및 문화 건설 사업에서 온갖 영웅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급격한 발전은 인민 대중의 적극적 투쟁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二六년간에 공업 생산력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약 九〇% 장성한데 비하여 사회주의 국가 쏘련에서는 二〇배로 장성되

였다。 이 기간에 쏘련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이 六배 이상으로 증대되였으며 로동자들은 매년 백 여 만개의 창의 고안을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후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북반부의 근로자들도 그의 무궁 무진한 창조적 열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생산에서 높은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였으며 또 발휘하고 있다。 벌써 一九五〇년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로동 생산 능률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三三三·三%로 증대되였고 공업 총생산량은 약 四배로 증가되였다。

조선에서의 三년간에 걸친 조국 해방 전쟁은 해방된 조선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을 보여 주는 대표적 실례로 된다。 조선의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자기의 조국을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총궐기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원쑤들의 침략적 야망을 분쇄하고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방대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一九五五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二·三배로 장성하였으며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五六% 릉가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많은 로력 혁신자들과 로력 영웅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벌써 三개년 계획을 一년 내지 二년에 완수하였다。 증산 경쟁에 참가하는 로동자들의 수는 현저히 증가되고 있으며 창의 고안의 수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만 수백만 근로 대중의 의식적 활동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자기들의 국가를 위하여 일하며 앞으로 더욱 행복스러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똑똑히 자각하고 있는 인민들의 창조적 적극성은 종국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을 완성할 것이다。

✽ ✽ ✽

로동 계급은 인민 대중 가운데서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이다。 로동 계급은 다단 자기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서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착취 계급들과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로동 계급이 다른 모든 근로 계급들의 령도자로 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로동 계급은 모든 피압박 계급을 해방시켜 그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만들 것을 사명으로 하는만큼 가장 선진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계급이다。 민주주의는 오직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만 철저성을 가진다。 여기에 로동 계급이 모든 민주주의적 계층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

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필연성이 있다。

민주주의 사상은 결코 로동 계급에게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부르죠아지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소부르죠아지도 민주주의를 자기의 구호로 내세웠다。

부르죠아지는 봉건을 반대할 때 이 구호를 들고 나섬으로써 많은 근로 인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결국 부르죠아 독재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초보적인 정치적 『평등』에 불과하다。

소부르죠아적 민주주의 사상은 기껏해야 무정부주의 사상이며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의 리상으로 된다。 이것은 형식적 평등의 사상이며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주장하는 비동지적 평등의 사상이다。 이것이 로동 계급의 립장에는 서지 못하나 비교적 량심적인 부르죠아 인테리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의 민주주의 사상이다。

그러나 로동 계급의 민주주의는 동지적 립장에 선 민주주의이며 단결과 협력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이다。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 동지적 단결은 생명으로 된다。 로동 계급은 그가 계급으로서 탄생한 첫날부터 단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이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동지적으로 단결할 수 밖에 없었다。 통일과 단결은 로동 계급에게 고유한 속성이며 통일체、즉 집단은 곧 그들의 생명이다。 따라서 로동 계급은 어느 때나 항상 자기의 집단、자기의 조직을 자기 개체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지적인 집단의 단결을 보장하며 한 사람같이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칙이 필요하다。 로동 계급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하여 단결되고 있으며 이 조직체들은 모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칙에 의하여 지도된다。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사람들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로 끌어내기 위한 제도로서의 중앙 집권제는 봉건 사회에서도 있었으며 부르죠아 사회에서도 존재한다。 또 단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민주주의는 부르죠아들에게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오직 로동 계급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항상 중앙 집권제적 조직과 통일되여 존재한다。 자유주의나 관료주의가 로동 계급의 본질과 리익에 상반되는 해독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로써 명백하다。

로동 계급의 모든 조직체 가운데서 모든 조직들을 지도하는 최고 조직체가 당이다。 만약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 조직이 생명이라면 그 조직의 최고 형태이며 그의 선봉 부대인 당이야말로 전체 로동 계급의 가장 귀중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로동 계급이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비할바 없이 자기의 당을 신뢰하며 사랑하

는 리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체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진정한 정치적 수령은 집체적 령도자인 맑스주의 당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가르쳐 주는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로동 계급을 비롯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 과업과 그 전망을 명시하여 주는 바 그것 없이는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실로 맑스—레닌주의 당이야말로 인민 대중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며 따라서 인민 대중의 모든 승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와 관련되여 있다。

로동 계급 조직의 최고 형태인 당의 활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근본 원칙으로 된다。 이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멀리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들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당과 혁명에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혁명에서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민 대중이 력사 발전에서 노는 결정적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걸출한 인물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는다。

개인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여 걸출한 인물、 영웅들과 천재들이 마음대로 력사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론적 견해이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견해도 또한 객관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릇된 견해로서 배격되여야 한다。

과거에도 걸출한 인물은 모든 분야에 존재하였으며 현재도 존재한다。 전 세계 근로자들에게 해방과 광명의 길을 밝혀준 인류의 위대한 천재들인 맑스、 엥겔스、 레닌은 세계사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전 세계 인민들의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 조선에서도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장군들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위인들이며 따라서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의 존경을 받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걸출한 인물들은 흔히 인민 대중 앞에 거대한 력사적 과업이 나서는 혁명적 변혁의 시기에 출현한다。 인민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요구될 때 인민 대중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창조한다。 걸출한 인물들은 대중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옳게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

로동 계급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실로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논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항상 당의 활동 및 역할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그들은 당과 근로 대중들에 의하여 선출되며 또 당에 의하여 육성、 단련되며 당의 지지에 의하여 대중 운동을 조직 지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당의 활동과 결부되여 있으며 당과 인민이 준 위임을 충실히 수행

함으로써 인민의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계급과 당과 수령들의 관계는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당의 우수한 지도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에 집결된다。 자기 당에 대한 로동 계급의 사랑과 존경은 자기 당 중앙 위원회에 대한 존경과 신임으로 표현된다。 당과 당 중앙 위원회와 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신임은 모든 다른 계급들에서는 볼 수 없는、 로동 계급에게만 고유한 계급적 감정이다。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분산되여 살아나간다면 지도자도 요구되지 않으며 당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당과 지도자들은 바로 군중들이 대중적으로 어떤 운동에 망라되였을 때에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혁명 시기에 우수한 지도자들이 요구되며、여기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 대중의 역할이 더욱 장성되며 그들이 모든 사업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의 령도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그의 책임적 일군들의 조직자적 사업은 그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대중의 의식의 장성과 적극성의 장성은 더욱 유력하고 우수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치도를 요구하게 된다。

당 활동에서 수령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좌익 「소아병」의 한 개의 발현이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지도자들의 역할을 부인하고 무원칙한 자유와 평균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소부르죠아적 분산성의 표현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에서의 로씨야 로동 계급의 승리는 로씨야 로동 계급을 유일하게 옳은 맑스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옳바른 전략과 전술로써 그들을 승리에로 인도한 위대한 레닌의 천재적 령도와 분리시킬 수 없다。 레닌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혁명가였으며 자기의 전 생애를 로동 계급의 해방과 혁명을 위하여 바쳤다。 레닌은 위대한 창조적 맑스주의자였다。 레닌은 맑스주의를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기에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전체 쏘련 인민들과 전 세계 로동 계급이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며、위대한 수령으로 부르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민족 해방 투쟁과 우리 당의 창건은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의 지도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一九二五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은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각종 종파주의 분자들이 지도 기관에 들어 앉아 근로 인민들을 옳게 지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파주의 분자들의 무원칙한 파벌 투쟁 때문에 얼마 안가서 해산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혹심하고 조국이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인 진

실한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국내 국외의 광범한 인민 대중들을 망라하여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로써 무장 부대들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였으며 八·一五 해방까지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였다. 해방 후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우리 당의 통일을 분렬시키려는 각종 종파주의자, 지방할거주의자들과 견결히 투쟁하면서 맑스—레닌주의적 새형의 당을 창건하였으며 맑스주의를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옳은 전략과 전술을 작성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길을 명시하였다. 만약에 우리 당이 종파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한 대로 우리 나라 북반부에다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조선 인민의 운명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다.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 조선 인민의 탁월한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이 당과 인민의 지도자들로서 인민의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우리 당의 기본적인 조직 원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이다. 매개 당원들은 이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여 집체적 령도에 참가한다.

당원들이 당의 집체적 령도에 광범히 참가하기 위하여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에서 주인은 당원들이다. 모든 결정권은 당원들에게 있다. 당원들은 자기의 지도 기관을 선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환할 수도 있으며 당의 모든 사업에 자기들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호상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지도 기관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며 당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는 바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여 진행된다.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는 당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제고시키며 어떤 개인의 독단적 지도를 배제한다. 그러므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만 당원들의 자유로운 당 생활이 보장되며 당의 모든 사업에 인입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실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당 지도 기관들의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당의 지도 기관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집체적 지도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집체적 지도 원칙은 지도 기관 내부에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실시이다. 지도 기관내의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도 기관 성원들의 집체적 토의에 의하여 채택하는 것이다. 오직 집체적 지도의 현명성만이 우연성과 일면성을 면할 수 있게 하며 당의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위대한 레닌이 항상 이 집체적 령도의 원칙을 강조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평화적 시기에는 물론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도 전원 회의들을 정상적으로 소집하여 당의 중요한 전략과 전술을 결정한 리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집체적 령도를 파괴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을 억제하는 데서 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주는 것은 개인 숭배 사상, 아첨, 맹종, 개인 영웅주의, 출세주의 등이다.

개인 숭배 사상이 당내 민주주의와 집체적 령도에 주는 해독은 매우 크다. 개인 숭배 사상은 대중의 창발성을 마비시키고 개인 영웅주의자들과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를 조장시킨다. 개인 숭배 사상은 과학과 예술의 발전에서도 인민 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억제하는 것이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은 우리 당의 중요한 지위에 들어 앉아서 허위와 기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개인 숭배를 군중에게 고취함으로써 자기들의 죄악을 음폐하고 간첩 파괴 행위를 지속하려고 하였다. 적지 않은 군중이 이들의 개인 숭배 사상의 포로가 되여 그들을 무원칙 하게 숭배하며 그들에게 맹종맹동하여 왔는바 이것은 그들의 간첩 행위를 급속히 적발하는 데 저해를 주었다.

허 가이와 같은 개인 영웅주의자들은 모든 성과를 자기 개인의 공적으로 돌리며 군중을 멸시하며 당생활의 레닌적 규범을 무시하고 당내 민주주의와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억압함으로써 당의 활동에 많은 손실을 주었다.

개인 숭배 사상은 력사 발전의 동력을 인민 대중으로 보지 않고 그를 개인의 활동에서 찾으려고 하는 관념론적 견해이며 사회의 주인이 인민 대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경멸하는 반인민적인 사상이다. 개인 숭배 사상은 어떤 개인을 당이나 대중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들만이 무엇을 창조하며 새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모두 그들을 따라만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개인 숭배 사상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가치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하게 하며 그의 위신을 절대화한다.

쏘련 공산당 二〇차 대회는 개인 숭배 사상이 당사업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 및 사상 사업에 끼친 해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레닌적 당 생활 규범을 복구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대중의 창발성을 제고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쏘련 공산당과 국제 로동 운동에서 탁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였던 쓰딸린에 대한 쏘련 공산당의 대담한 비판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비판적 정신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으며 쏘련 공산당이 인민 대중 앞에 솔직하며 인민 대중을 신뢰하며 인민 대중과 혈연적으로 통일된 필승 불패의 당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증하여 주었다.

쏘련 공산당은 이와 동시에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며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약화시키려는 온갖 소부르죠아적 경향과의 투쟁을 가강히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력사 발전에서 인민 대중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그

러나 인민 대중과 당과 지도자들을 대립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당과 그의 지도자들은 인민 대중과 밀접히 련계되여 있는 그들은 모두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집단의 성원들인 것이다。공동의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행복스러운 새 생활 건설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오직 인민과 당과 지도자들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만이 승리를 보장하여 준다。

무원칙한 단결이란 있을 수 없다。우리들의 원칙은 인민의 리익에 기초한 단결이다。 인민의 리익에 배반되는 단결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결인 것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체계에 불과하며 총검과 기만에 의하여서만 유지된다。이것은 인민의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불원간 인민에 의하여 분쇄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 기초 우에서 단결된 집단은 인민의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불패일 것은 의심할바 없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이 우리 당의 정책을 한결 같이 지지 찬동하며 그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이 인민의 리익、그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대의 임무로 내세우고 실지 그것을 인민들에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장구한 항일 민족 해방 투쟁과 애국적 투쟁 전통을 계승한 유일하게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부대이다。우리 당은 장기간의 조국 해방 투쟁과 애국적 투쟁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진정한 혁명가들과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단결되고 있다。

우리 당은 창건 당시부터 오직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레닌적 당 생활 규범에 엄격히 립각하며 집체적 령도의 현명성을 보장하여 왔다。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인민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잘 싸울 수 있는 자들만을 자기의 지도자들로 선출하였다。조선 인민은 지난 一〇년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누가 인민 대중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한가를 똑똑히 알았다。그렇기 때문에 광범한 조선 근로 대중은 우리 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궐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민족적 념원을 반영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방책을 제기하였다。이 방책의 객관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전체 조선 인민의 단결된 투쟁이 요구된다。미제와 그의 충실한 주구 리 승만 도당들을 제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모든 애국주의적 요소들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그들을 애국적인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과업이 우리 당의 당면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남북 조선 전체 인민이 오직 조선 인민의 리익을 최고 원칙으로 삼고 투쟁하는 조선 로동당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되였을 때 이 힘을 막을 아무런 힘도 있을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필연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독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원자력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리용되며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가

도 상 록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생산 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생산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평화를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지향하는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근로 인민들은 언제나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평화적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것을 념원한다。

그러나 사회가 적대적 계급들로 분렬되여 있는 조건하에서는 착취자들은 왕왕 자기들의 탐욕적이고 범죄적인 계급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악용한다。이러한 범죄적 행위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특히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날로 심각화하여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극도에 달하고 있다。인류의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자 무기를 생산하면서 평화、민주주의、사회주의의 진영 제 인민을 반대하며 전 세계의 피압박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 도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인민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원자 무기를 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평화 옹호의 사업을 자기들의 손에 틀어잡고 있는 세계의 선진적 인민들은 인류의 복리와 평화를 위하여 원자 무기 기타 대량 학살 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할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 인민은 자기들의 선진적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써 원자력 리용과 원자 무기 생산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을 청산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인류의 투쟁에 위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쏘련의 선진적 과학과 기술은 더욱 나아가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데 있어서도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바 원자력 발전소의 창설은 그의 제一보로 된다。

쏘련과 그리고 쏘련의 방조 밑에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의 발전은 생산의 장성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무궁무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인류의

생활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원자력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평화적으로 리용되여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의 리용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위해서는 지난 세기 六〇년대의 과거에까지 소급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一九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화학 공업이 원자 기술의 대두를 예감하면서 이미 자기의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것의 반영으로서 一八六九년에 발견된 멘젤레예브의 주기률이 사실상 원자 물리학과 핵 물리학의 기점이 되였으며 나아가서는 원자력의 강유력한 지도 원칙중의 하나가 되였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발효 공업을 위시한 많은 분야의 화학 공업이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들의 거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했고 그것은 또한 잡다한 화학 체계의 리론적 정비를 선결문제로 제기했던 것이다。 때마침 전기 화학의 풍부한 지식들이 일단의 정식화를 보는 도중이였다。 이러한 시기의 총화로써 응당 기대되여야 할 것이 원소들이 따르는 정연한 법칙의 출현이였던바、 바로 이렇게 원소의 주기률이 등장한 것이였다。

원소를 원자량의 순서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 차례 느려 놓으면 일정한 간격을 지날때마다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주기률의 개요인바 원자 물리학과 핵 물리학에 있어서의 주요 법칙들이 종합적 연출을 시도한 장관 가운데서의 하나인 것이다。원자력의 심오한 지도 원칙의 일단이 이 장관 속에 은연히 숨어 있었던 것임에 우리는 재삼스럽게 놀라는 바이다。 그것은 원자력의 리용이라는 것이 결국 이러저러한 원소에서 그러저러한 원소에로 전변하는 과정의 리용이며 원소들의 호상 련관을 주기률의 지배하는 울타리 밖에서 과정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을 념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의 가장 고귀한 산물 가운데의 하나인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이 당연한 귀결로서 순조롭게 이룩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러 선량한 인간들의 간고한 투쟁의 련속을 통해서만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파란의 탁월한 과학자 큐리 부인은 주기률의 지도 원칙을 옳게 계승한 사람중의 하나로서 一八九八년의 그의 라디움 발견이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라디움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뚜렷한 사실은 원자는 그 체적에 비해서 심히 큰 에네르기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一그람의 라디움이 一년 동안에 질량에 있어서 거의 변화를 받지 않고 一一七만 카로리의 열량을 발사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증명된 바이다。 인류는 이와 같은 원자 에네르기의 거대한 존재에 직면하자 그 리용 가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였다。 이 때는 중공업이 벌써 현대적 면모에까지 발전했고 용광로의 열 복사 문제를 계기로 해서 원자 물리학과 핵 물리학의 리론 체계로서의 양자 력학의 대두를 재촉하던 시기여서 라디움 리용에 대한 흥미는 자못 긴장성을 띤 것이였다。 원자력의 찬란하고도 묘원한 로정이 실질상 발족된 것이였다。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여 주기률의 정당성을 거듭 증명해 주었고 이와 긴밀한 련관하에서 여러가지 소립자들이 뒤를 이어 알려졌다。 특히 영국의 촤드윅에 의하여 소립자중의 하나인 뉴트론이 발견되여 이채를 나타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디움이 많은

에네르기를 자발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라디움 원자 가운데서의 일부분이 자연적으로 파괴되여 다른 원자로 전변하고 그때에 에네르기의 유리가 생겨서 그것이 외부에 방출되는 까닭인데 이것은 원자의 자연적 파괴에 해당한 것이다。 물론 원자의 파괴라는 것은 원자의 핵심 부분인 원자핵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자핵의 자연적 파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원자핵을 파괴해서 보다 많은 량의 에네르기 방출을 획책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있어서 원자핵의 인공적 파괴를 실현하는 무기가 요구되는데 뉴트론이 그 요구에 적응한 것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실 뉴트론 충격에 의하여 거의 전부의 원자핵이 파괴되는 것이다。 핵 물리학의 풍부한 지식이 축적되였고 원자력의 새로운 기원을 불러 일으키기에 넉넉한 것으로 되였다。

드디여 一九三八년에 독일의 한 및 그 공동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기한 실험이 수행되였다。 즉 뉴트론 한 개로 우라늄 원소의 핵을 충격하면 우라늄핵 한 개가 쪼개져서 두 개의 가벼운 핵(다른 원소의 핵)으로 전변함과 동시에 막대한 량의 에네르기가 방출되며 새로 두 개 내지 세 개의 뉴트론이 방사되는 소위 핵 분렬 현상이 밝혀졌다。 물론 이 실험의 정식화에 있어서 주기률의 지도적 역할이 뚜렷했던 것이다。

원자력의 본격적인 전개가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우라늄 덩어리가 뉴트론의 충격을 받아서 핵 분렬을 일으키면 거기서 튀여나온 뉴트론이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우라늄 핵을 분렬시키고 이 작용은 련쇄적으로 계속해서 급속히 진행되여 여기에 거대한 량의 에네르기가 방출될 것이 충분히 기대된다。 물론 이 기대는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라늄 핵의 분렬 현상은 인류의 무한한 행복을 상징하고 등장한 것이였으나 미영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상이 인류의 대량적 학살을 가능케 하는 핵 무기 제조에 리용되는 것으로 되였다。 그들은 만회할 수 없는 무참한 정치적 패배를 무릅쓰고 핵 무기 제조에 성공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핵 무기의 독점자가 아니였다。 오히려 수소탄의 실험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보다 뒤떨어진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근거가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쏘베트 인민들은 우라늄 핵의 분렬 현상이 알려지자 수억만 인민들의 크나큰 행복이 약속된 것을 감촉하고 그것의 현실화를 위하여 볼쉐위크적 노력을 계속해서 드디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유효 五천키로왓트의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조업을 개시한지 이미 오래다。 급속한 시일 내에 一〇만키로왓트와 一二四만키로왓트의 출력을 가진 제원자력 발전소들이 조업을 개시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전세계의 동력 문제가 새롭게 해결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병행해서 열핵 반응의 평화적 리용의 길이 쏘베트 과학원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개척되면서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실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대한 규모의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미 막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평화적 리용에 대한 큰 비중을 망각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쏘베트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류 문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전 지구상 인류가 위대한 쏘베트 련맹을 더욱 더 우러러 바라 보고 쏘베트 련맹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 인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쏘베트 련맹을 향하여 배울 때 우리 앞에도 광활한 전망이 약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로선을 고수하는 것이다.

* * *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은 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을 크게 세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원자력 발전소로써 특징지어지는 핵 분렬 현상의 리용 분야가 그것의 첫째요, 수소탄의 폭발로써 개관할 수 있는 열핵 반응의 리용·분야가 그것의 둘째요, 표식 원자로써 특징지어지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리용 분야가 그것의 세째이다. 물론 큰 동력을 얻는다는 견지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는 합쳐서 한 범주에 포괄시킬 수도 있으나 원리적으로는 서로 정반대의 분야인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 세 가지 구분에 의하여 서술하고저 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의 최고 단계는 세 분야의 종합적 리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리용이 가능하리라는 약간의 근거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먼저 핵 분렬 현상을 리용하는 첫째 분야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우라눔의 핵 분렬 현상은 우라눔 덩어리의 한 군데서 그것이 시작되면 련쇄적 반응이 너무 급작스러이 진행되여 원자탄의 폭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이 핵 분렬 현상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해서는 련쇄적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도록 하며 또한 그것을 자유로 조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곧 원자 가마이다.

뉴트론에 의하여 핵 분렬을 일으키는 원소를 핵 연료라고 부르는데, 핵 연료로서는 현재 세 개가 알려져 있다. 즉 우란—二三五, 플루토눔—二三九 및 우란—二三三이 곧 이것들인데 어느 것이든지 같은 작용을 한다 (우라눔을 우란이라고도 부른다). 첫째와 둘째는 천연산 우란 광석에서 얻을 수 있고 우란—二三三은 천연산 도리움 광석에서 얻을 수 있다.

우란 광석은 지구상에 광범위로 또한 다량으로 존재하며 도리움 광석은 우란 광석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서 광범위에 분포되여 있다.

핵 연료가 전 세계 인민의 큰 행복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는 특징 두 개를 우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핵 연료는 대체로 그 나라의 면적에 비례하는 량만큼 그 나라에 매장되여 있다는 것이 첫째 특징이다. 핵 연료의 둘째 특징은 지구상에 매장되여 있는 량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적은 량의 핵 연료에 의하여 막대한 량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꾸이비쉐브 수력 발전소와 같은 큰 출력을 갖는 원자력 발전소를 一년 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 연료는 우란—二三五라면 二톤 정도로써 넉넉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동력 전부를 원자력에서 공급받는다고 하고 우란—二三五로써 환산하면 一〇〇—一三〇톤 정도가 요구된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 앞으로 동력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지구상에 매장되여 있는 핵 연료의 량을 평가하면 금후 수천 세기 동안 전 세계의 수요에 충분한 것으로 된다. 지각의 백만분의 六이 우란이며 도리움은 그 보다 훨씬 많이 매장되여 있다는 기초에서 계산하면 금후 수천 세기가 아니라 좀 더 장구한 기간 동안 보장될 것이다. 우에서 말한 수천 세기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

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핵 연료가 발견되면 계산은 물론 달라질 것이다.

원소의 주기률은 새로운 핵 연료의 발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핵 연료는 지구 상에 풍부하게 고루 분포되여 있다.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탈각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

다음으로 핵 연료는 새로운 경제 체계에 가장 적합한 연료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핵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장작이나 목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간편하지는 않으나 선진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인민에게 있어서는 큰 동력을 얻는 견지에서 볼 때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더 곤난한 점이 없다. 오히려 로동자의 수와 설비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출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견지에서 볼 때 가장 간편한 연료라고 말할 수 있다. 모쓰크바에서 백 수십키로메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조업하고 있는 유효 五천 키로왓트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불원간 조업을 개시하게 될 출력 一〇만 키로왓트의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장래에 조업을 보게 될 출력 二四만 키로왓트의 원자력 발전소가 더욱 명확히 우리의 주장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하며 핵 연료를 사용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전망을 말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는 기구를 대략 설명하고저 한다. 어떤 핵 연료를 례로 들어도 같은 결과로 되므로 우란—二三五를 중심하고 이야기를 추진시키려 한다.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금속 우란은 세 가지 우란의 혼합물이다. 즉 천연 우란은 우란—二三八, 우란—二三五 및 우란—二三四의 혼합물인데, 우란—二三八이 절대 다수이고 우란—二三五가 〇·七% 정도로 혼합되여 있다. 우란—二三四는 극히 미량이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우란—二三五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매우 복잡하고 극히 곤난한 공정을 거쳐서 우란—二三五를 분리해 낼 수는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대체로 천연산 우란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 이외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즉 우란—二三五는 속도가 빠른 뉴트론에 의해서도 분렬이 되며 속도가 느린 뉴트론에 의해서도 분렬이 되는데, 어떤 속도의 뉴트론을 핵 분렬에 참가시키는가에 따라서 원자 가마 내의 과정이 매우 달라지므로 뉴트론의 속도를 엄격히 선별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선다. 맨 처음에 핵 분렬을 일으키는 뉴트론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서 핵 분렬에 참가하는 뉴트론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다. 흔히 뉴트론의 속도를 세 단계에 나누어서 리용한다. 매우 빠른 뉴트론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고속도 가마라고 부르고 심히 느린 뉴트론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열 뉴트론 가마라고 부른다. 이외에 중간 속도의 뉴트론을 리용하는 중간 뉴트론 가마도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열 뉴트론 가마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선박이라든가 원자력 항공기같은 데서는 중간 뉴트론 가마 혹은 고속도 가마를 리용할 것으로 되여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발전된 단계에서는 열 뉴트론 가마와 고속도 가마를 병행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천연 우란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 뉴트론 가마에 국한하기로 하자.

핵 분렬에서 뛰여나오는 뉴트론은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감속제에 의하여 매우 느린 뉴트론 (이것을

열 뉴트론이라고 부른다)으로 만드러서 핵 분렬에 참가시키는 가마가 열 뉴트론 가마이다。 감속제로서는 흑연 (석묵)을 흔히 사용한다。 뉴트론의 속도가 느리게 되는 원인은 감속제와의 충돌에 있는 데, 이 때에 충돌에 의하여 뉴트론의 속도가 감소될 뿐이고 뉴트론이 감속제에 흡수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감속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은 뉴트론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성질이 흑연에 있고 중수 (무거운 물)와 베릴리움에도 있다。 현재 조업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감속제로서 흑연을 사용하고 있다。

뉴트론은 흑연과 한 번만 충돌해서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충돌해야 비로소 우리의 목적에 맞는 열 뉴트론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두어가지 난관이 있다。 즉 흑연이 뉴트론과 여러번 충돌하고 나면 흑연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첫째 난관인 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여 있는 것을 작년 七월에 모쓰크바에서 개최되였던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쏘베트 동맹 과학원 회의가 밝혀 주었다。 둘째 난관은 열 뉴트론이 되기 직전에 공명 뉴트론의 사선(死線)이 있다는 것이다。 공명 뉴트론이라는 것은 열 뉴트론보다 다소 빠른 뉴트론인 데, 이 공명 뉴트론은 우란—二三八에 특별히 잘 흡수되는 것이다。 연료인 천연 우란의 절대 다수가 우란—二三八인데, 열 뉴트론이 되기 직전인 공명 뉴트론의 단계에서 전부 우란—二三八에 흡수되고 보면 열 뉴트론이 될 것은 없게 된다。 이 사선을 넘기 위해서는 연료인 천연 우란을 둥근 막대기 모양으로 여러개를 만들고 이것들을 흑연 덩어리 속에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평행이 되게 꽂아야 한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결국은 대부분의 뉴트론이 공명 뉴트론의 사선을 넘어서 열 뉴트론이 되며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란—二三五의 분렬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핵 분렬에 참가하는 열 뉴트론의 수가 너무 많게 되면 가마가 폭발될 념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열 뉴트론을 잘 흡수만 하고 다른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카드미움 금속을, 막대기처럼 만들어서 준비해 두고 그것을 군데 군데에 꽂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카드미움 막대기를 많이 꽂아 놓으면 핵 분렬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카드미움 막대기로써 핵 분렬의 진행 정도를 자유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원자 가마 속으로 물을 적당히 순환시켜서 얻는 수증기 (온도가 二六〇도、압력이 一二•五 기압 정도)를 증기 타빈에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서 우리는 열 뉴트론 가마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운영할 수 있게 되였다。 현재 조업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 가마의 중심 부분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천연산 우란을 다소 가공하여 우란—二三五가 五%정도로 된 것을 가지고 직경이 七CM요、길이가 一五〇CM인 속이 빈 막대기 一二八개를 준비한 다음에 높이가 一七〇CM 정도요、직경이 一五〇CM정도인 원주형의 흑연 덩어리 속에 이 一二八개를 수직으로 같은 간격으로 꽂은 것이 가마의 핵심 부분이다。 흑연의 온도는 三〇〇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우란 막대기 속으로 一〇〇기압 정도의 물이 순환하게 되여 있는 데、이 물이 고온도가 되여서 가마 외부에 있는 증기 발생 장치에 유도되고 거기서 온도가 二六〇도 정도이고 압력이 一二•五기압 정도가 되는 수증기로 변하여져서 증기 타빈에 가게된다。 흑연의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 우란의 구조에 지

장을 주며 가마 속에서 수증기가 발생하면 가마의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된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출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또한 큰 장점으로 되여 있다。 적은 출력을 내도록 설계할 수도、큰 출력을 내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아무리 큰 출력이래도 그것을 내도록 설계할 수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구는 대략 이상과 같다。 여기서 고속도 가마와 중간 뉴트론 가마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말하기로 하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열 뉴트론 가마에 대한 한、오늘 날 완전히 해결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할 때에 고속도 가마와 중간 뉴트론 가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실용에까지 옮겨질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하여 원자력 선박이나 원자력 항공기같은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간 뉴트론 가마에 의한 원자력 잠수선이 초보적이나마 시험기에 있으니 우선 원자력 잠수선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 원자력 잠수선의 장점은 산소를 요구하지 않는 연료로 잠행한다는 것이다。 선원들의 호흡을 위해서만이 산소가 요구된다。 북극양 어름 밑으로 장시간 잠행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선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기한 소식을 전해 줄 것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북극양의 어름 밑에 탐사의 손을 뻐친 일이 없으며 따라서 거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연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잠수선 다음에는 고속도 가마에 의한 원자력 항공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을 기점으로 하고 생각한다면 평양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를 一二시간 이내에 날아 가기 위해서는 시속 一、七〇〇키로 메터의 항공기로써 무착륙 비행을 하여야 한다。 이 속도는 소리의 속도의 一•四배 정도이고 미끄의 속도의 一•七배 정도이다。 이런 항공기는 성층권 속을 날아 가는 원자력 항공기에 의하여서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 액체 수소를 고속도 가마에 보내여 급속히 증발시키면서 외부에 뿜게 하면 그 반발력으로 항공기가 전진할 수 있는 데、이는 원자력 항공기에 대한 가능한 설계 가운데의 하나이다。 물론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한다。 즉 가마에서 생기는 열의 대부분을 급속히 항공기 밖으로 방출시켜야 하며 액체 수소가 차지하는 방대한 체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난관들이 극복되여 원자력 항공기가 실현된다면 전 세계의 문화 교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원자력 자동차 문제는 핵 분렬 현상을 리용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이상의 서술에서 리해되겠거니와、핵 분렬 현상을 리용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큰 성과로서는 전 세계에서 요구되는 전력의 대부분을 원자력 발전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요、큰 기대로서는 원자력 항공기와 원자력 선박이 인류 문화에 막대한 새로운 기여를 하리라는 것이다。

❀ ❀ ❀

두 번째로 열핵 반응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개관하기로 하자。

열핵 반응은 핵 분렬 현상에 정 반대되는 현상인 것이다。 즉 핵 분렬이라는 것은 우란 핵 정도의 무거운 한 개의 핵이 중간 정도의 두 개의 핵으로 분렬하는 현상인 데、열핵 반응이라는 것

은 수소핵 정도의 가벼운 두 개의 핵이 헬리움핵 정도의 한 개의 핵으로 결합되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핵 분렬 현상에 있어서는 련쇄적 반응이라는 것이 있으나 열핵 반응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도 다른 점이다。 원소의 주기률은 열핵 반응의 가능성을 이미 암시한지 오랬으나 그것의 실현이 늦어진 것 뿐이다。

열핵 반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모두가 대동 소이하므로 한 가지 대표적인 례를 들어서 설명하려 한다。

수소에는 보통 수소 이외에 중수소와 초중수소가 있다。 보통 수소의 원자량이 一·〇〇八一인데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그것은 각각 二·〇一四七과 三·〇一七一이다。 중수소의 핵을 듀톤이라고 부르고 초중 수소의 핵을 트리톤이라고 부른다。 보통 수소의 핵이 프로톤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듀톤은 프로톤 한 개와 뉴트론 한 개로 되였고 트리톤은 프로톤 한 개와 뉴트론 두 개로 되였다。 프로톤과 뉴트론의 질량이 거의 같으므로 세 수소 핵의 무게의 비가 一대 二대 三에 근사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원자량들은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소 다음에 가벼운 원소는 헬리움이다。 헬리움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 헬리움의 원자량은 四、〇〇九이고 그 핵은 알파 립자라고 부른다。 알파 립자는 프로톤 두 개와 뉴트론 두 개로 되였다。 그러므로 듀톤、트리톤 및 알파 립자의 무게의 비가 二대 三대 四에 가까운 것이다。

듀톤이 트리톤과 충돌하면 뉴트론 한 개가 발사되고 알파 립자가 형성된다。 이때에 많은 량의 에네르기가 외부에 방출된다。 이것이 열핵 반응이다。 듀톤과 프로톤을 합하면 프로톤 두 개와 뉴트론 세 개가 되므로 여기에서 알파 립자 한 개가 형성되면 뉴트론 한 개가 남게 된다。 이 남은 뉴트론이 외부에 발사되는 것이다。

열핵 반응을 좁은 범위에서 일으키려면, 실험실 내에서도 가능하나, 넓은 범위에 걸쳐 열핵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탄의 폭발과 같은 결과를 초래케 하려면 듀톤의 많은 량과 트리톤의 많은 량을 백만도 정도의 무서운 온도하에서 작용시켜야 한다。 핵 분렬 현상에 있어서도 이와 류사한 사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다。 즉 핵 분렬이 몇 차례 일어 났다고 해서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련쇄적 반응이 잘 진행되여서 수많은 핵 분렬이 짧은 시간내에 일어나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열핵 반응에 있어서도 반응이 몇 차례 일어 났다고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넓은 범위에 걸쳐 열핵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거기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백만도라는 온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핵 분렬 현상에 있어서의 련쇄적 반응에 대응하는것이 여기서는 백만도라는 온도이다。 백만도라는 온도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엄중하다。 더욱 백만도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의문이겠다。

지구상에서 그런 온도를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온도를 알게 된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리론적 계산이며 둘째는 태양의 발열 기구이다。 이 후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서는 프로톤 네 개가 복잡하게 작용해서 알파 립자 한 개를 형성하고 그때에 많은 량의 에네르기를 방출하는 반응이 광범위에 걸쳐 진행되는 데, 이것이 태양의 발열 기구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백만도 혹은 그 이상의 온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일종의 열핵 반응이 광범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태양에서는 수소탄의 폭발이 정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핵 반응을 광범위에 걸쳐 진행시키려면 백만도 정도의 온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였다。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면 백만도 정도의 온도를 어떻게 얻겠는가이다。 여기에 있어서 원자탄이 폭발할 때 그 중심의 온도가 백만도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원자탄 한 개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듀톤과 트리톤을 고체 상태(적당한 화합물)로 한 것을 많이 에워쌓은 다음에 원자탄을 폭발시키면 듀톤과 트리톤 전체에 걸친 열핵 반응이 동반하여 여기에 거대한 폭발이 실현된다。 이것이 곧 수소탄의 폭발이다。 원자탄에는 한계 질량이라는 제한성이 있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이상으로 더 큰 원자탄을 만들 수가 없으나 수소탄에는 제한성이 거의 없다。 듀톤과 트리톤의 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데 파괴력에 있어서 수소탄은 원자탄의 천배 정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이 성질은 오히려 열핵 반응이 평화적 리용에 있어서 거대한 장점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열핵 반응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자。

지구상에서 최대의 파괴력을 가져는 열핵 반응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한다는 것은 가장 곤난한 문제 가운데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변할 시기도 멀지 않아 닥쳐올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쏘베트 동맹 과학원 원장 네스메야노브 원사는 자기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억만의 백만배를 백만억이라고 부르면 석탄의 백만억배 이상으로 효과적인 수소 연료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열핵 반응을 평화적 목적에, 전 세계 연민의 부원과 행복의 목적에,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의 비약적 확장의 목적에 리용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민들의 단결된 일차한 노력을 경주할만한 가치 있는 숭고한 목적인 것이다』。

사실 열핵 반응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데 관한 연구는 벌써 제一 단계를 거치면서 있다。 극복해야 할 난관은 다량으로 발사되는 방사선과 많은 량의 뉴트론 방사를 처리하는 점에 있다。 이 처리는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세 분야의 종합적 리용의 로선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수년 전에 미영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종합적 리용을 악용하여 소위 코발트탄을 망상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영원한 망상으로 되였고 우리에게는 오직 열핵 반응의 평화적 리용이 날개를 펴고 도래할 뿐이다。 산과 봉오리를 옮겨 바다와 호수를 메꾸며 북극과 남극의 기후를 온화하게 할 력량이 열핵 반응에 있는 것이다。

* * *

세번째로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보자。

이 분야에서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발사하는 베타선과 감마선을 리용하는 것인데, 원칙은 이 방사선들을 발사하는 원자가 표식 원자로 될 수 있다는 점과 이 방사선들의 현미경적 파괴력이 여러가지 목적에 유효하게 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표식 원자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린을 례로

들자。보통 린은 린—三一인데, 이것을 뉴트론으로 충격하면 베타선을 발사하는 방사선 린,즉 린—三二가 된다。이 방사선 린을 식물에, 례하면 베코니야에 비료로써 흡수시킨 다음 흡수된 린—三二가 발사하는 베타선에 감광하는 간판으로 사진을 찍어 보면 린—三二가 베코니야의 가지와 잎에 분포되는 정형이 명확히 나타난다。그리하여 린—三二의 행동을 일일이 추적할 수 있게 된다。마치 린—三二에 딱지를 부친 것과 같아서 그것에 표식 원자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것이다。

물론 방사성 린이라고 해도 린으로서의 작용은 보통 린과 같다。이때 베타선의 에네르기가 린—三二에서 유리된 원자 에네르기이다。오늘날 핵 연료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대량적으로 산출되는 각종의 방사성 동위 원소들을 산업 방면、농촌 경리 보건 사업 및 과학 연구 사업에 적절하게 리용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앞으로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수는 실로 一〇〇종 이상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산업 방면에 있어서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리용하여 생산 농물과 제품의 질을 훨씬 제고시키고 있으며 각종의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고 있다。그리하여 오늘날 야금、기계 전조、화학 공업、석탄 공업、섬유 공업、통신 기자재 공업、건설 공업 및 기계 제조에 있어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도입이 큰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농촌 경리에 있어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리용은 거의 혁명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되였다。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전연 새로운 방법이 채택되였으며 농산물 저장에 있어서 종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변시켰다。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식 원자 이외에 직접적인 치료제로서 광범하게 리용하여 막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오늘날 방사성 동위 원소를 리용하지 않는 의학 부문이라고는 거의 없게 되였으며 의학 교육을 위한 저작들은 새로 개편되여야 할 것이다。물리학、화학、생물학 등 여러 과학 부면에 있어서의 연구 사업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리용하는 경우가 또한 매우 많다。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아니면 연구가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이다。

이와 같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여 거둔 성과는 거대하다。이 분야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발전은 자못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 ＊ ＊

이상에 있어서 우리는 쏘베트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개척이 되였고 발전하고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대해서 개괄하였다。전 세계의 동력 문제가 실질상 해결되였고 새 시대에 맞는 산업과 보건 사업의 토대가 구축되였다。사막과 빙야를 옥토로 전변시키며 씨비리와 태평양을 동내집 마당과 골짜기 시내처럼 생각하게 할 새로운 세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려고 한다。바야흐로 우리는 광명한 원자력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중화 인민 공화국을 위시한 수다한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사업을 전개할 데 대한 쏘베트 정부의 성의 있는 방조가 더욱 우리의 이 신심을 확고하게 해 준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심을 거듭 확고하게 해 주는 한 가지의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그것은 중간 정도의 원자력에 대한 문제이다。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큰 동력 문제와 미시적 동력 문제는 원자력이 잘 해결해 주나 중간 정도의 동력 문제、례하면 자동차의 동력 정도의 동력 문제를 원자력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주가 다른 원자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작년 八월에 쁘라우다지는 쏘베트 과학원이 프로톤의 구조를 밝혀준 것을 보도하였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뉴트론이나 프로톤은 소립자이여서 이것을 더 적게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다。그러나 프로톤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또한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 비로소 범주가 다른 원자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물론 범주가 다른 이 원자력이 바로 중간 정도의 동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범주가 다른 원자력과 현재의 원자력과의 호상 련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새로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저 하는 바이다。례하면 적당히 좁은 범위에서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고 열핵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어찌했던 중간 정도의 원자력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은 전 세계 인민들의 그칠 줄 모르는 번영과 나날이 두터워가는 친목을 위하여 위대한 복무를 할 것이다。진정코 인류 문화의 새로운 력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자력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사회에 최대의 불행을 가져오는 전쟁을 위해서 리용하려는 범죄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의 길이며 흉악한 인류의 적만이 추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엄숙히 선언하노니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이 걸어가는 반역의 길은 분쇄되고야 말 것이며 침략을 위하여 미제가 작만한 원자탄과 수소탄은 영원한 불발탄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수억만 인민들은 한결같이 일어섰다。이것을 막을 그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평화는 고수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근로자 제七호 (루계 제一二八호)

一九五六년 七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六년 七월 二五일 발행

편집위원회

발행소 근로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四五원)

ㄱ—40179호

사회 정치 중요 론문

번역월간

翻譯月刊

본 잡지는 쏘련과 중국 등 형제 국가들의 출판물상에 발표되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발전을 반영하는 중요 론문들을 번역 소개하여 우리 나라의 간부들과 이데올로기 사업 부면에 종사하는 일'군들에게 방조를 줄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월간 번역 잡지이다.

그 내용에는 쏘련의 《꼼무니스트》, 《경제 제 문제》, 《철학 제 문제》, 《력사 제 문제》, 《쁘라우다》와 중국의 《학습》, 《력사 연구》, 《철학 연구》, 《신 건설》, 《인민 일보》 등을 원천으로 하여 당 건설, 당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 정치 경제학, 철학, 력사학, 문학 리론에 관한 문제 특히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제기된 중요 문제들을 취급한 론문들 중 주목할만한 것을 소개할 것이다.

(본 잡지는 7월부터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바, 구독 희망자는 체신성 출판물 보급 사업소에 예약 신청할 것.)

도서 안내

(책 명) (저 자)

△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 주요 문헌집.

△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모택동, 류소기, 주은래, 리부춘, 뢰약우 동지들의 중요 보고 론문 수록)

△ 당을 론함……………………………………류 소 기

△ 19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리조 봉건 통치 계급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조선 인민의 투쟁.(민족 해방 투쟁사 참고 자료) ……………………리 나 영

△ 조선 문제의 평화적 민주주의적 해결을 위한 쏘련의 투쟁.……………………………장 응 태

상기 도서는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됨.